

불영사 회주 일면 스님
"세상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안 될일 없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2월 19일) · 주간

제925호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부지런하고 늘 깨어있으라.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하지 말고
탐욕과 성냄을 멀리해야 한다.
「숫타니파타」

"청소년 꿈·스펙 동시에 만족"

불교계 국제청소년포상제 참가 본격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청소년포상제'(이하 성취포상제)를 후원하는 넬슨 만델라의 말이다. 청소년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불교계가 프로그램 확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는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사업으로 자기개발과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동장, 은장, 금장 등 포상단계별로 나눠지며 활동분야는 탐험, 봉사, 자기계발, 신체단련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 영역별로 3,6,12개월의 최소 필요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성취 목표에 달성해야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된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성취포상제 중앙운영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2012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한 사찰은 42개이며 7개 사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그동안 사찰 등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영어법회 등을 자기개발활동에 포함시켜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 장점이 있다.

서울 금강선원의 경우 청소년 불교명상을 통한 집중력향상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9월부터 진행된 청소년불교명상에는 청소년 기초참선과정을 마친 20여 학생들이 참여해 이완명상, 자비관수행 등을 진행했다.

서울 옥천암의 경우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인 보도각백불의 환경을 이용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병행한 것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불교영어연극 등을 활용해 영어법회와 성취포상제의 자기개발활동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또 창원 대광사의 경우 국제구호 NGO인 YBA와 연계해 태국 메솟 지역에서 1주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불교방송 참관 등 청소년 들에게 다양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장을 수여받은 옥천암 청소년법회 박진하 학생은 "대학 입시에 있어 하나의 스펙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생각돼 시작하게 됐지만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제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해야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장은 1450명, 은장은 110명이 받았고, 금장은 단 3명만이 받았다. 12만 3천 명에 육박하는 등록자 수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으로 이름만 걸친 이들이 많다.

옥천암 김미숙 지도교사는 "청소년 능력 개발의 이면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성취포상제를 봉사활동 점수따기와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로 취지를 오해하기도 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모두 외면할 수는 없다. 불교계에서 청소년 잠재력 개발과 능력개발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국제청소년포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자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며 "포교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보다 많은 불자들과 사찰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청소년 잠재력 개발은 물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참여 사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만 49개 사찰 참여
명상 통한 집중력 향상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기
청소년 잠재력 향상에 주목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하얀 도량 새하얀 마음 강원도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월정사에 1월 23일 큰 눈이 내렸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석탑 앞에 두 손을 모은 약왕보살(藥王菩薩)도 새하얀 눈을 이고 있다. 일월정명덕(日月淨明德)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희견보살은 환희심에 가득 차 천이백년 동안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월정명국 왕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 팔만이천세 동안 사리탑을 공양하였으니 바로 약왕보살이다. 내린 눈에 도량이 온통 새하얗듯 도량을 찾은 중생들 마음은 약왕보살 공덕으로 새하얗게 빛난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제공=월정사

종교인 소득, '사례비' 규정해 과세

통진당 김재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종교 행위를 사례비로 규정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1월 20일 20일 종교인의 종교활동의 대가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해 과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사례금도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종교인의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며 "종교인의 사례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조항에 '종교시설 에서 받는 봉사료 ·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상여 ·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사례비'를 신설할 것을 발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산중총회법·선거법 재개정 필요

교구본사주지協 마곡사 회의서 결의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문)는 1월24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산중총회법과 선거법의 재개정을 총무원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 중 지난해 개정된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를 원래대로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법에서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현실성 있게 1년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의 종단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주경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새로 총림으로 지정된 동화사와 쌍계사, 범어사에 방장 추천과 현재 일부 교구본사들의 총림 지정 추진을 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포교원에서 보고한 '정전 60주년 한반도 세계평화 기원대회'에 대해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과 포교원, 범어사, 전국비구니회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다음 회의는 3월28일 은해사에서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정부 금강산 관광 재개 힘써달라"

운동본부 건의서 제출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자승 스님, 이하 운동본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1월 24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과 재개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운동본부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의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대화 추진, 이산가족상봉과 대북인도지원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적십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양측의 타협과 조정 필요 △관광장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북한의 의사 재확인 및 수용 등의 안을 담았다.

운동본부는 인수위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사업'을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통일을 염원하는 '금강산 국제 평화음악회' 등을 올해 중점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朴 당선인, 불교계 공약 지키나

조계종 · 대통령 인수위, 공식 대화 시작

선거 공약 실천을 천명한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불교 공약 이행을 위해 조계종과 공식 대화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경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공식 면담 시간을 가지고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는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와 실무자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면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불교계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며 "면담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추후 관련 실무부서와 결합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허용 △전통 사찰 규제 완화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 등 9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2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교육원 신년 간담회
태고종 인공 스님 기자회견
아잔 브람 방한이 남긴 것들
대불청 신년사업계획 발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재

시방세계 5
대구 사원聯 성도절 연합법회

신행 6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08선원을 찾아서 12
불국사 불국선원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 · 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니
기억하라! 그 어떤 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아기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기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잔인한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아기가 사는 동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이 그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서산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드리워지나니, 그처럼 인생도 제 갈 길로 가고, 죽음의 그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드리워진다네.

아기는 자라서 청소년기를 맞게 되고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실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매 호흡마다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하고 있으니, 가축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생은 한 번뿐이고, 미래의 삶은 수없이 많습니다. 금생의 신기루 같은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만약 수행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깊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이미 늦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에 매진할 시간입니다. 수행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경험은 죽는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단 한 가지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단 교육개혁불사 안정화에 최선”

조계종교육원, 신년기자회견… “공교육화 나설 것”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에도 교육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승가대학원 설립과 학사 행정 표준화, 출가제도 다양화 등의 사업을 중점 전개한다.

교육원은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불교’를 최종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전의 치문, 사집, 사교, 대교과정을 초기, 대승, 선불교 등으로 대폭 개편했으며, 염불 의례 과목을 신설해 불교적 신심을 고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승가 교육을 제도권 공교육화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스님은 “도제 양성식으로 진행하던 교육 방식과 환경을 제도권 공교육 형태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하도록 대폭 정비하고 있다”며 “현재 개편된 기본 교육과정은 중앙승가대와 지방의 사찰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돼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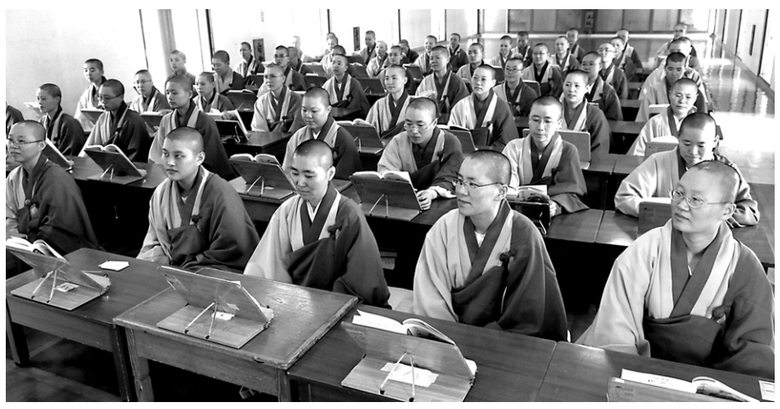
이를 위해 교육원은 △승가대학원 다양화 및 활성화 △기본·전문·특수 교육기관 학사행정 표준화 △불교상요의례 정규 교과과정 시행 △청년·특수·단기 출가제도 시행 △다양한 안거제도 도입 △연수교육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 △승가고시 개선 △승가교육교재 제작 및 연찬회 등 올해 8대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교육 영역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승가대학원은 선학, 율학, 한문불전, 초기불전, 화엄학, 반야중관학 등 8개 분야로

율학·선학 등 승가대학원 설립
기본·전문교육기관 행정 표준화
고령자·청년 등 출가제도 다양화

나눠져 각 교구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기본교육기관에서 ‘불교상용의례’ 교과목이 편성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육원은 불교상용의례 교육을 위해 교재를 편찬 발간하며, 교육은 한글염불지도교수단(8명)과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12명)이 담당하게 된다.



학인스님들이 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교육원은 전통 도계 방식이 아닌 제도권 공교육을 승가교육 기조로 삼고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을 보인 청년출가학교도 확대된다. 올해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7~8월 경 진행된다. 고령자 등에 대한 특수 출가와 단기, 청년 출가 제도는 오는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안거에 삼장원과 염불원을 설치·운영하는 제도 역시 3월 임시 중앙종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종헌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교육분과위원회에 법안이 이송돼 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제도 다변화는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아닌 유능한 인재들이 출가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삼장원, 염불원 도입은 수선안거와 더불어 경율론 삼장과 염불을 수행해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교육개혁불사는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하고 보완해 교육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원사 문제 해결, 임기중 가장 큰 쾌거”

태고종 인공 스님 신년 계획 기자간담회

“2010년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소유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태고종과 조계종 양 종단은 1950년 분규이후 선암사, 봉원사, 백련사 등 10여개 사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여왔고, 봉원사의 경우는 양종단 대책위원회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벌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 종단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봉원사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것이 재임기간동안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사진〉은 1월 2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연두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올 10월 임기가 끝나는 인공 스님은 가장 큰 성과로 조계종과의 봉원사 소유권 협상 타결을 들었다. 하지만 스님은 “태고종과 조계종이 아직도 공동운영하는 선암사는 조속히 해결하려는 조계종측의 의지가 부족해 보여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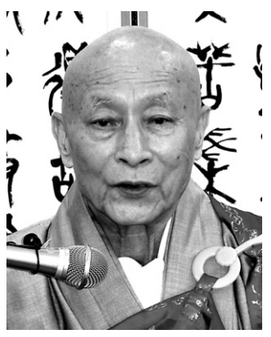
이어 인공 스님은 “종단의 총본산인 선암사에 원로 스님들을 위한 노후수행처인 ‘기로원’을 건립하려는 계획도 선암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태고종은 또한 올해 사업으로 △종조탄신다례 및 태고문화축제 △전통문화유산 대중화 및 세계화 △영산재 시연 및 문화콘텐츠 사업 △전통불교문화 명인지정 △

원장 선거 앞서 분한신고 예정
용궁사 템플스테이 사찰로 정비

템플스테이 제반 여건 구축 △성보문화재 전수조사 및 중앙박물관 건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후학전승사업 △불교문화 해외 선양사업 △사회복지사업 증대 △승려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갱신 △해외사업 포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예정인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승려분한신고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총무부장 능해 스님은 “지난해 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직간선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종도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돼있어 분한신고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종도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고종은 인천시와 연계해 인천공항 근처에 위치한 용궁사를 템플스테이 사찰로 정비해 종단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앙박물관 건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 스님은 “종단과 종도들이 소장중인 성보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해 종단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중앙박물관도 건립 예정”이라며 “장소는 교통과 접근성을 감안해 신촌 봉원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은해·백양·수덕사 등 종회의원 5석 보궐선거

조계종 중선위, 내달 28일 선거

은해사, 백양사, 수덕사, 직능직 보궐선거가 내달 28일 치러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월 22일 26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10교구 은해사는 중앙종회의원 장적, 덕조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장적, 덕조 스님의 사퇴는 해당 교구인 법일 스님의 승적 논란과 관련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은해사는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교구 행정을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석 중인 7교구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1석과 18교구 백양사 1석, 직능대표 1석 등 3석에 대해서도 보궐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열리는 백양사 산중 총회의 구성원도 확정됐다. 구성원은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따라 비구 130명, 비구니 26명 총 156명으로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봉 행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축하 국민 대 통합 기도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을 축하하며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민족종단,
문화계 등이 연합하여 국민대통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국민대통합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명법사단 : 대 법 주 : 영공도성 큰스님,
증 명 대 법 주 : 만옹도일 큰스님, 경우 큰스님
불교상임대표 : 정각 큰스님, 흥교 큰스님, 가산 큰스님, 해공 큰스님
대통합위원장대회장 : 조연 큰스님
불교수석대표 : 보광 큰스님, 혜인 큰스님, 보각 큰스님,
성철 큰스님, 청공 큰스님
불교공동대표 : 범종단 각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봉행위원장 석 능 인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이 사 장 송 진 호 합장

■ 일 시 : **2013년 2월 2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불교행사 오후 2시 부터)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 3룸**
■ 주 최 / 주 관 : 국민대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행 사 진 행 : ㈜ HN한맥엔터테인먼트
■ 후 원 : (재)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재) 국제리더쉽스피치문화재단, (사)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 법연종 법연사, (사) 국제할레루야드, (사) 국제환경문화운동본부, 세계유나프리선교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한국자유총연맹종교특별위원회, 한민족평화통일운동단체총연합회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 황산벌세계무예대제전조직위원회, 한민대학교, 한중교류협회. 법성원,
■ 협 찬 : 삼명종합건설㈜, ㈜정식품, 한국화보, ㈜무비데이(범국민독도영화), 환경TV, 서보산업개발,
㈜우주자동차, ㈜강인SSD, ㈜해피코리아타운, ㈜더아산미라클시티
■ 문 의 : 전화 02) 706- 0074 / 팩스 02) 706-0154 / 010-6302-4514
E-mail : sliris@naver.com sambo111@hanmail.net

* 참석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경우 저희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 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KINTEX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 전화 031)810-8114, 팩스 031) 810-8083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자가용 : 강변북로 → 자유로 → 미산포IC → KINTEX서문
◆버 스 : 9700, 76-1, 77, 77-2, 9708, 9707, 87, 87-3, 3000, 3300, 150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역점

대불청, 신년사업계획 발표

새로 출범한 제27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 이하 대불청)가 20 · 30대 청년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에 본격 나선다.

대불청은 1월 21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3년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준호 회장은 "청년 불자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며 "대불청은 세대교체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 20 · 30대 청년 불자들을 보듬어 전국 대불청 네트워크를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불청은 소통 · 비전 · 화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교 · 신행 사업 △회원교육 사업△사회적 기업 △공모사업 등 교육 · 신행 사업을 통해 청년 불자 희망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불청은 우선 공연과 토크콘서트가 통합된 형태인 '쓰담쓰담 통통콘서트(가칭)'를 통해 청년 불자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유대하면서 '왓츠캠프 (What's camp - 걸으며 치유하고, 대화하며 나누는 힐링캠프)'를 실상사, 불교귀농농장 등 지리산 일원에서 상 · 하반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불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 · 하반기로 나눠 각 6회에 걸친 청년 강좌를 연다.

전 회장은 "그동안 대불청은 청년 불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체계없이 외형에만 치우쳐 운영해온 것이 문제"라며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통해 청년 불자를 모집하고 각 지구 · 지회 조직을 활성화해 청년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간화선 세계화, 그 해답을 보았다

아잔 브람 스님 방한 1주일이 남긴 것들

세계적 명상 수행자인 아잔 브라흐마 스님〈사진, 이하 아잔 브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아잔 브람 스님은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동국대 국제선센터와 강당에서 열린 세계명상힐링캠프에서 참가자들의 수행을 살폈으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불광사 등 주요 도심사찰에서 대중 법회를 봉행했다. 사시사철 수좌들의 정진이 이어지는 문경 봉암사에서는 적명 스님과의 대담도 진행했다.

이미 아잔 브람 스님은 〈성난 물소 길들이기〉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불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방한에 대한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동국대의 세계명상힐링캠프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조계사 · 봉은사 · 구룡사 등에서 열린 대중 법회에서도 평균 500여 명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아잔 브람 스님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설했다.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 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호흡에 집중하면 결정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영화 볼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호흡에 정

집중 수행에 200명 참석

각 사찰 법회도 인산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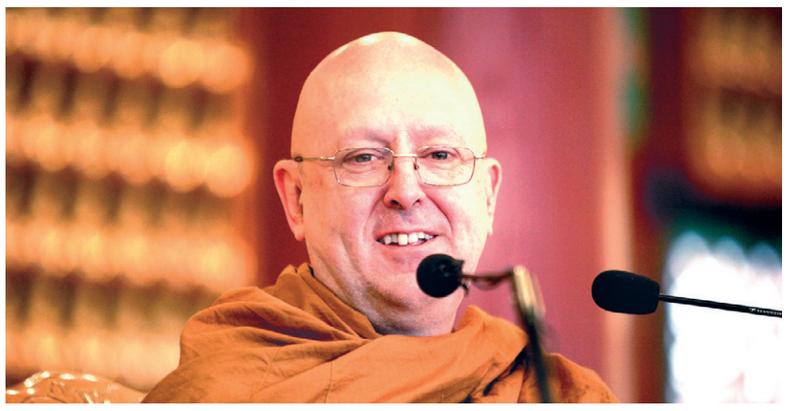
'불교에 쉽게 접근' 특징

'수행법 보편화' 한국불교 숙제

말 흥미를 가지면 즐거워지고 여기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1월 11일 동국대 세계명상힐링캠프 집중 인터뷰 中〉

실제 집중 수행에 참석했던 불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대부분이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세계명상힐링캠프에 참가한 명상수행 경력 4개월의 초심자인 김택수 씨는 "아잔 브람 스님의 집중 인터뷰는 불교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며 "내가 찾던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봉은사 대중법회에서 설법하고 있는 아잔 브람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교리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수행법 개발이 필요하다.

안희찬 씨 역시 "초기불교 경전에 근거한 불교수행의 길을 아잔 브람 스님의 법문을 통해 확인하고 명상을 실참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금까지 오온(五蘊)이 나의 친구인줄 알았지만, 적(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했다. 이번 생에 깨달음의 굳건한 토대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푸른 눈의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행사를 주최한 참불선원 아잔 브람 한국 명상센터 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번 스님의 방한으로 그간 주석서 위주의 위빠사나 수행을 전통 경전에 근거한 정확한 남방불교 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대인들은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올바른 명상법을 한국사회에 알릴 수 있는 것도 이번 방한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산 스님은 "스님의 방한을 통해 '간화선과 한국불교 세계화'의 해답을 볼 수 있었다"며 "초기 경전 안에도 간화선 수행의 기본이 담겨 있다. 이 같이 경전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킨다면 충분히 간화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불교 전문가인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원장은 한국불교도 경전에 입각한 수행법을 전해야 대중들의 호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아잔 브람 스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불교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수행을 하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부처님이 그랬듯이 사람들이 왜 힘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좀더 보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잔 브람이나 달라이 라마와 같은 수행자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가산당 지관대종사 문도회가 1월 20일 서울 경국사에서 봉행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재.〈사진 왼쪽〉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추모관〈사진 오른쪽〉에서도 19일 연구위원과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당대 최고 학승 지관 스님의 추모 열기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다.

"故지관 스님 유지 이어 나갈 것"

문도회, 20일 경국사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재

지난해 1월 입적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추모재가 열렸다.

가산당 지관 대종사 문도회는 1월 20일 서울 정릉 경국사 관음전에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복과 화합의 인연'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월탄, 인환, 혜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중앙종회의장 향적, 호계원장 일면, 문도회 대표 태원, 전 포교원장 혜총,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 자문위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에 다시 없을 학승"이라며 "스님의 덕화가 만대에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시간이 갈 수록 지관 스님의 발자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행 정진과 후학 양성이라는 향기로운 자취를 이어가며 중생을 제첩할 것인가"라고 애도했다.

이날 추모재는 종사 영반, 헌향,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헌화, 문도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관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행장록, 비 제막 등 계획

가산문화원 초하루 · 보름

지관 스님 다례재 봉행

문도회는 지관 스님의 행장을 기리는 추모비와 부도를 조만간 해인사에 조성할 계획이다. 비문은 고은 시인이 맡았다. 지관 스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무문관 안거에 들어간 세민 스님을 대신해 문도회 대표로 나선 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의 크신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유지를 받들어 수행자로서 정진할 것"이라며 "스님의 선양사업은 단순히 문도회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부대중이 나서야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지관 스님이 세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김정배)은 지관 스님의 집무실을 추모관으로 보존하고 연구위원과 학자 50여 명이 초하루와 보름마다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사전에 완간될 때까지 초하루 · 보름 추모재는 계속된다. 향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한글본 40권, 영역본 15권의 〈가산지관대종사전집〉을 비롯해 지관 스님 관련 아카이브 구축, 추모공원 조성, 1주기 추모문집 〈큰스님 뵙고싶습니다〉 등의 선양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교회 십자가, 빛공해 방지법 제외

환경부 "종교 상징 규제 못해"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십자가의 경우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 시설임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해왔다. 입법예고 기간에 교회 십자가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도 이유였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광고조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입안했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행안부의 이 같은 해석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문 재가봉사단 출범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월 21일 승가복지 전문 자원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스님들의 기초 복지 발전을 다짐했다.

승가복지 전문자원봉사단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의 특화된 전문영역봉사단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다년간의 봉사경력을 소유한 봉사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승가복지 전문자원봉사단은 △승가복지 종합상담 △제도 홍보 △승보공양(후원)기금 모연 및 후원활동 △자원개발 및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일 주 문



안양교도소 신년위문 개최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9일 안양교도소에서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떡국 공양을 올리고 모범수 조상 제사를 개최한다.



중구청에 1천만원 전달

서울중구불교협의회장 법타 스님은 1월 18일 최창식 중구청장을 만나 중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강원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취임

원주 성불유치원장 현각 스님은 1월 1일 101개 강원도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강원 사립유치원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최영수 봉은사 신임 신도회장

최영수 봉은사 신도회장은 1월 19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신도회장 이취임식 및 2013년 신도회 발대식'에서 취임했다.

東大불교대학원 16대 회장 취임식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문황진)는 1월 23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전회장 문황진 회장(제3기) 이임사에 이어 제16대 회장으로 추대된 진우 스님(제10기)은 "2500여 동문들의 의견을 착실히 수렴해 동문회 발전에 힘스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운문사승가대 졸업식 개최



청도 운문사승가대 제 49회 졸업식이 1월 24일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36명의 학인 스님이 졸업장을 받았다. 또한 보현율원 11명과 지난 2010년 설립된 한문불전 승가대학원도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임기 마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소통 위한 해법을 말하다

"칭찬과 배려를 하라"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자기를 들여다 보라"

개인간의 갈등 해결 하려면

"일자리를 늘려라"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1월 18일 임기를 마친 송석구 전 사회통합위원장에게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송 전위원장은 2002년 불교세계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활성화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갈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따라다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분명 극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좌절과 포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려면 내가 먼저 부처가 돼야 합니다. 중생심을 갖고 양보하고 이기심을 없앤다면 누구와도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습니다. 곧 들어설 새 정부도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계층 갈등을 극복하려면 바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1월 18일로 임기를 마친 송석구(74)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다면 죽은 사회"라며 "갈등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의 요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2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때부터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1월 고건 초대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을 이어 받은 후 연임해 2년간 위원장을 맡았다. 송 위원장은 동국대와 동덕여대, 가천의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위원회 활동을 마친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지역 및 계층, 세대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과 통합은 정부 및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듣고 대화하는 것 만큼 큰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부처가 아닌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여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좋은 자문 기구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소통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요.

-16개 시·도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중앙 간 소통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29개 도시에서 진행된 334차례의 지역 간담회와 2만여명이 참가한 소통 아카데미, 노인과 젊은이들이 역할을 바꿔 함께 참여한 '청춘 다방'과 '생활의 달인 교실' 프로젝트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근로 빈곤층에 대한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재산 출연 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로 하고 개인 기부 비과세 대상을 30%로 올린 것 등도 나눔 확대를 위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일을 하면서 불교적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접점의 해법은 결국 중도인데 중도라는 것은 두 가치의 중간이 아니고 가치의 최고 정점입니다. 이것이 양쪽을 다 포섭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론에는 '如言而取 皆不許故(여언이취 개불허고) 得意而言 無不許故(득의이언 무불허고)'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따르면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에 담긴 뜻을 살려 들으면 무엇이든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직 생활 내내 좌우명으로 삼고 일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개인적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화하지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겨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대화는 상호존중과 배려, 칭찬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은 바로 없어집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양극화, 계층 갈등 극복을 최순위에 놓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빈곤층은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지요. 당장 생존권도 위협받는데 무슨 소통과 화합이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만이 사회통합의 핵심입니다. 새 정부도 이를 위해 힘써야 국민대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2002년에 동국대 총장 시절 만든 학회가 있습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인데요. 그동안 한국불교학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을 20권 정도 출간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동안 재정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시켜서 계속해서 후학들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구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한국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잡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이라면 제가 그동안 5권의 책을 펴냈는데 이를 세 권으로 압축한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통에 관한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닐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빙상 이상화 선수, 불심으로 세계新

불교종립 은석초교 출신, 경기 전 향피우고 마음 가다듬어

'빙속 여제' 이상화(24, 서울시청)가 불심으로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역사를 새롭게 썼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는 이상화 선수는 1월 21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m 1부 리그 2차 레이스에서 36초 80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1월 중국의 위징이 작성한 세계기록(36초94)을 0.14초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이상화는 2012~2013시즌 500m에서 8연속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정토심(淨土心)이란 법명을 지니고 있는 이상화 선수는 종립학교인 은석초등학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불교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합 전에는 향을 피우고 불공들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메달을 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현지에서 향을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혀 좋은 기록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화 선수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니 몸 상태도 좋아졌다. 이번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올림픽 2연패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부산 삼광사 힐링·수행·문화 도량으로

2월 1일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 진산식 봉행

천태종 삼광사는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사진〉의 진산식을 2월 1일 오전 10시 삼광사 불교문화회관(지관전)에서 봉행한다.

무원스님은 "종단의 대표 사찰이자 부산 시민의 의지처인 삼광사를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힐링 도량, 신심과 원력으로 삼광사의 발전과 종단화합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문화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향후 4년간 주지를 맡게 된 무원 스님은 195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1979년 구인사에서 출가해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 득도했고,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고 현재 종의회 부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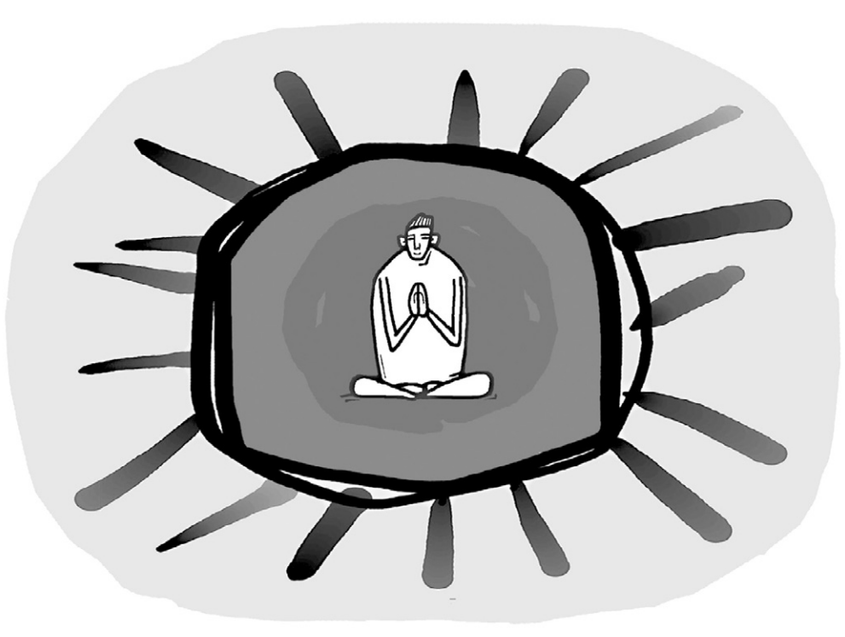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등을 맡아 남북교류사업과 영통사 복원사업, 다문화가정돕기 등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생활속의 불법수행 ❸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그 물처럼 얽힌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내직장,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가정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무슨 까닭인가? 불가에서는 그 원인을 무명(無明)에서 찾는다.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을 낳고 삼독심은 온갖 번뇌망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고(苦)의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상호관계의 산물이라서 그 관계의 그물을 벗어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다시말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나'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생존·생리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 자존자에의 욕구가 있다. 누구나 다 내 생명의 소중함이 당연스럽고 내 이익, 내 감정에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고로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잣대로 삼아 세상을 상대하고 사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를 고집하는 게 무명이요 그 점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원인이 된다 해도 개개인으로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우리는 금새 '나'를 고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보자. 이 원고지·연필·책상·의자 이 사무실 건물, 이도시·이 땅·이 지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글을 쓰는 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조상들이 없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없을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장의 원고지도 또 종이 원료인 펌프를 공급하는 삼림의 수목과 연결되어 있고 수목은 토양과 비구름, 바람, 태양열과 이어져 있다.

나의 아침 식단 - 쌀밥, 생선, 채소, 고기 등은 내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체의 생명체, 일체의 무정물들과 고리에 고리로 이어진 채로 살고 있다. 그런 연쇄의 고리 속에서만 비로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복잡한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개개인이란 하나의 그물코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그 관계성을 잊고 산다. 아니, 본래 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모를 뿐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나'만을 고집하고 내 존재 , 내 이익, 내 감정에만 집착한다. 그물을 끊는 행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관계의 그물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곧 불행, 갈등을 푸어내는 열쇠이다.

협찬 약천사 자운스님
02)3391-8523 서울 노원구 중계동

새벽 정각 이룬 부처님처럼 불자들 수행 열기 뜨거워

2천여 대구 불자 철야정진으로 성도재일 의미 새겨

음력 12월 8일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출가재일, 열반재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싯다르다 태자가 6년간의 고행 끝에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출발점이며, 나아가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불자들은 성도재일 기려 법회와 철야 수행정진을 진행한다.

대구 불교계도 철야정진 등 다양한 법회를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구 동화사와 대구 반월당 보현사,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등 대구.경북지역 사찰들은 이날 일제히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1월 19일에는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성도절 기념 연합법회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1981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창립 후 이듬해 1982년부터 시작된 성도절 기념 법회는 아직까지 지속되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연합법회로 손꼽히고 있다.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대구사원연합회장 경희 스님, 유승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희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성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전 인류에게 직접 전파하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인 날"이라며 성도절의 의미를 강조했다.

성문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연기법을 바로 알고 행해서 원융화합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대구사원연, 19일 연합법회 봉행
법성도 요잡으로 화엄사상 되새겨
소외계층 장학금 등 프로그램 다채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의상 대사의 화엄법계도를 따라 걸으며 서원을 세우는 법성도 요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성도절 마다 한해도 그르지 않고 지속해온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의 법성도 요잡은 일명 해인도로, 신라 의상스님께서 화엄사상의 요지를 7언 30송 210자로 압축한 도인(圖印)이다.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우주만물의 현상을 가장 고차원적인 이론으로 진리의 세계를 압축하여 큰 네 칸의 사각형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로왕번을 든 법사스님의 지도에 따라 도는 것을 요잡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행완성과 남의 수행을 돕는 것으로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법요식에 이어 2부 순서로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혜민 스님의 힐링 콘서트가 진행됐다. 또 대구사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모범불자 10여 명을 시상하고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18일 밤 9시부터 19일 새벽 5시까지 대구큰절 옥불보전에서 주지 밀허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불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재일 기념 철야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천수경과 금강경 독경, 사경, 촛불행진, 108배 등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중국 칭따오 분원에서 보낸 영상법문을 통해 "불자라면 누구나 일정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포교와 정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①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19일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성게 요잡을 하고있는 모습.

② 장궤합장을 한 스님들이 부처님께 공양의식을 하고있다.

성도절 맞이 제언

이제 불기를 불멸 아닌 '성도 기원'으로

올해는 불기(佛紀) 2557년이다. 이는 B.C.E.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반열반에 따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안거횟수를 계산한 수이다. 때문에 불기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약자로 보기도 한다.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는 1년 중 약 3개월 간 안거(安居)제도가 있다.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공동체에서는 몬순(Monsoon) 기간 동안의 안거 유무에 따라 법랍(法臘)이 계산된다. 그래서 지금도 법랍을 의미하는 말과 안거를 의미하는 말은 같다.

불기 2557년으로 계산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成道) 기원은 B.C.E. 589년이다. 조계종 종단본 〈부처님 생애〉에서도 부처님 일생연표에 589년을 성도기원의 해로 표기하고 있다.

1956년은 통일 불기 2500년으로 제정됐다. 세계불교도회(WFB)는 부처님의 반열반 해를 B.C.E. 544년으로 잡고 2500년인 1956년에 맞추었다. 특히 네팔 카투만두에서 불기 2500년을 기념해 1956년 11월 15~21일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불기 계산법에 의하면 2011년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成道) 기원 2,600년이다. 인도와 다른 불교국에서는 2011년부터 성도 기원 2600년을 대대적으로 봉행했다. 2011년 5월 16일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대회의장에서 특별 연설을 하기도 했다.

불기와 관련해 한국 불교계 언론에서 불기를 태국 등과 맞추기 위해 1년을 줄이자고 주장해 논란이 인적이 있다.

당시 조계종단에서는 "현재 한국 불기(佛紀)는 중앙종회 최초 결의와 다르며 세

동북아 음력 성도일은 오류
모든 불교국가 날짜 통일해야
성도 기원이 불교 정신 반영

계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불기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불기 사용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특위 연구위원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는 1년이 차이나지만 인도, 미얀마 등 세계불교권은 우리와 같은 불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과 관련된 탄생과 출가, 성도, 반열반일 등 4대 사건에 대한 날짜와 기념일은 각 국가들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성도일에 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음력 12월 8일로 보는 것은 착오임이 밝혀졌다.

모든 불교국은 같은 해와 같은 날짜에 부처님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다. 불교국 간 사방승



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가(四方僧伽)로서 긴밀한 연대가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불교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불교사회에 통일안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한국불교계가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세계불교도회(WFB) 등 국제불교사회에 주요 불교 기념일을 통일하자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계불교계는 불기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반열반과 안거횟수에 산정된 연대가 아닌 부처님의 성도 기준으로 성도기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앞서 말한 대로 1년 차이라는 몇 개국과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도 기원의 불기야말로 불교 본연의 정신에 더 투철한 기념일이라는 이유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인류역사에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경지'인 열반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

우주적인 사건이기에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였으며 그 또한 주저 없이 그의 완전성을 우렁차게 선포하였다.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개막되었음을. 종(縱)으로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횡(橫)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류의 역사는 석가모니 붓다의 성도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 사건으로부터, 그 해로부터 인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인류역사는 물론 현재의 불교계는 부처님 성도일을 역사에서 가장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날과 해로 되새겨 볼 수 있게끔 위치시켜야 한다.



불교교리 알아야 신심키운다

전국 불교대학 2013년 신입생 모집

신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해도 기초 교리를 알아야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올해 발심해서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의 사찰과 수행처에서 불교교양대학 · 대학원을 운영하며 강좌를 열고 있다. 2013년 신입생도 모집하고 있다. 기초교리서부터 다도 · 명상, 불교문화 등 과목도 다양하다. 대학이나 사찰을 다니기가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2년 과정으로 1주일에 1회 90분 교육을 통한 불교 기본교육과 경전을 해석하기 위한 1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토요반 · 목요반 · 통신반으로 나누어 강의를 개설한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이외에도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선 · 명상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2013년 불교학과 42기를 모집하는 동산불교대학은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 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강좌를 개설해 불교 전반적인 이론과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병조 교수(금강대 총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활안 스님(송광사 천자암 조실) 등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들이 열정적인 강의를 펼친다.

동산불교대학은 "사찰, 포교원, 각종 신행단체에서 활동할 포교사, 법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심층적 교육을 위해 불교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과 경전을 전문수학하는 '동산불교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다"며 "교계의 대덕 스님들과 석학들이 펼치는 진리의 한마당에 인연을 함께 해 큰 감동과 환희를 거두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불화를 그리고 있는 동산불교대학 미술학과 학생의 모습

불교대학 교육내용 및 일정

기관	전공 및 교육내용	개강일	연락처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 불교다도학과, 선.명상학과	2월 2일 부터	02-732-1206
조계사 불교대학	불교이해, 불교사 등	3월 10일	02-720-1390
봉은불교대학	불교개론, 불교문화, 성지순례	3월 10일	02-3218-4822
월호 스님 경전교실	전통강원 교과목 원전 강독	2월 28일	02-732-9500
불광불교대학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2월 말까지 모집	02-417-2551
법주사 불교대학	기초(기초교리)반, 경전반(대승경전)	3월 6일	043-542-4200
참좋은 우리절	사띠수행, 위빠사나, 천수경 및 불교의식	3월 개강	063-236-6633
삼보사이버불교대학	기초교리 및 포교사 강의실 우수한 교수진	수시로 입학	cyber.sambobuddha.org

조계사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한다. 주 · 야간반과 토요반으로 나눠 주1회 3시간씩 △불교이해 △불교사 △포교방법론 △인도불교이야기 △중관사상 △불교원전강독 등을 가르친다. 강사진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는 스님과 교수진들로 구성돼있다.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1년 과정의 사이버불교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종범스님(前 승가대 총장), 정병조 교수(금강대 총장),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재영 박사(청보리회 법사)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진들로 구성돼있다. 강좌는 석가의 생애, 초기불교의 교단, 불교교리의 특징 등을 강의하는 초기불교의 이해와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의 심리학, 포교의 이해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진 포교사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20강 정도로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다. 반야사상 등 총 10과목을 1년 과정으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1년이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만큼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봉은사 봉은불교대학은 종단인가 전문교육과정으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경전공부, 기도정진, 선수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신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매주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을 운영하며 불교개론, 부처님 생애(심화과정), 가정법회, 불교교리, 불교문화, 수련회, 경전, 성지순례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월호 스님의 경전교실은 행불선원 시민강원 제1기를 모집한다. 불교전통강의 교과목을 원전강독하는 모임으로 2년제 4학기 과정으로 강원을 운영한다. 〈초발심자경문〉〈치문경훈〉〈서장〉〈선요〉〈대승기신론〉〈원각경〉〈금강경〉 등의 원전을 강독해 나간다. 또한 경전교실 마련됐다. 입문 · 중급 · 고급 · 심화 등 4단계로 나뉘어 매주 1회 90분 수업할 예정이다.

법주사 불교대학은 기초반 1년,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기초교리(기초반)과 경전반(대승경전)과목을 배우게 되며 매월 3째주 일요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숲속 힐링 일요법회'에 참여하게 된다.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불교기본교육 60기와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대학은 2년제 4학기로 운영되며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등을 배우게 된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은 정규반과 수행반 및 경전반을 모집한다. 정규반은 1년 2학기로 기초불교교리를 배우며 수행반은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사띠수행'을 3~7월 매주 수요일 90분으로 진행한다. 또한 천수경과 불교의식을 배우는 경전반도 마련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수행 필수 내담자 치료 위해"

불교상담개발원 기념세미나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상담자의 인성과 태도 문제는 치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하며 이를 위해 불교수행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현수 신경정신과 의원장)

"불교상담의 주요 기제는 성찰, 소통, 명상이다. 개인적, 관계적 사건을 연기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因) · 연(緣) · 과(果)를 통찰하고 새로운 선인(善因)을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현수 신경정신과 의원장이 '불교심리치료의 모색(실제를 중심으로)'을, 박찬욱 소장(밝은사람들연구소)이 '불교상담의 성찰, 소통, 명상을 통한 이고득락'을, 선업 스님(불교상담심리전문가)이 '불교상담개발원 활동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현수 원장은 "상담과 심리치료는 본질적으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치료자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환자와 나누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원장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하며 불교수행 중 팔정도의 정견(正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담자들이 상담자 인성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상담자의 불교수행과 전문가로서의 수련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일은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소장은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론체계와 다양한 방편들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원리가 어떻게 상담에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불교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각자의 삶이 주교재임을 인지시킨다. 내담자로 하여금 무상, 고, 무아에 대해 이해하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시켜 선, 불선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생각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감정은 보듬고, 욕망은 조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 앞서 제5대 신임원장인 도현스님의 취임식이 봉행됐다. **이나은 기자**

대불청外 불교단체 4곳 문화재 지킨다

201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 이하 대불청)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13년 한 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소외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세섭)은 1월 16일 문화재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모를 하고 활동우수사업 지원단체로 31개 단체를 선정했다. 31곳 가운데 불교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 신라문화원, 충북파라미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4곳이다.

단체들은 오는 3~11월 △지역주민 청소년 지킴이 활성화 분야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 분야 등 에서 문화재 보호 사업을 펼치게 된다.

대불청은 전국 대불청 지구와 더불어 소외된 사찰 폐사지에서 집중적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쳐 불교문화재를 청년들의 손으로 가꾸어 나아가고 있다.

대불청은 "전국 각 지구에서 폐사지를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폐사지 음악회를 개최해 불교문화유적이 단순히 문화재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도록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대불청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전문가와 결합해 대불청 불교문화재 지킴이를 양성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가며 불교단체중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불교 문화재 지킴이 대표단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포교원, 지구촌어린이 돕기 나서

정전 60주년 법회 앞두고 방생법회 등 협조 요청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지구촌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생명평화 방생 운동을 전개한다.

포교원은 201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9월 부산에서 기획 중인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대회를 앞두고 생명평화 방생운동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생명평화 방생운동은 지구촌 빈곤아동 돕기로 진행된다.

포교원 측은 "한국전쟁 당시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에 시달렸다"며 "다행히 세계 우방의 원조로 우리 아이들은 기아와 빈곤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고 생명평화 방생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교원 측은 이어 "지구촌에서는 소아마비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보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방생 불사"라고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포교원은 2월부터 진행되는 정월 방생법회를 생명방생 불사로 전환하기 위해 방생법회를 진행하는 각 사찰에 협조 공문 등을 통해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김대관 벽송예하께서는 2012년 1월 10일 경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수신으로 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종정벽송) 명의로 12가지 안건의 소명을 요구하며 종회소집을 요구하고, 규정부 조사결과 종정은 종단에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명장을 발부하는 등 도당을 지어 종단의 화합을 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불교원효종 2557년 제 1 차 중앙종회회의에서 종정예하의 해임과 징계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으로 금일자로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의 직책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규정법 제 4 장 징계 제 16 조 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에 근거하여 체탈도첩 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2557년 1월 25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 향운**
대한불교원효종 규정부장 **김상배 상묵**

아동보건센터·베이비부머 사업 활성화

교계 주요복지기관 신년사업계획 발표

교계 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신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실을 다져 소외이웃을 돕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이 사회대안은행사업을 확대 운영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라오스 아동보건센터를 설립해 국경을 넘은 자비나눔 실천을 펼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월 23일 전법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올해 나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희망을 실현시키는 동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불교사회복지의 과거와 현재의 통찰을 통해 미래를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대안은행사업(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불교계 최초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은 지원조건 및 기준을 완화해 작년보다 30% 증가한 10억원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해외구호활동의 체계를 정비하고 라오스 아동보건센터의 건립 준비를 통해 자비나눔실천을 세계로 뻗어나간다. 재단은 아동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10억 여 원의 기금을 모연하고 국내외 난치병 환아의 치료비 모연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불교사회복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2012년 하나은행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지원 협약을 체결한 재단은 전국 140여개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회계 및 후원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체계 간소화를 통한 사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인과 시설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불교사회복지의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자비나눔통장, 자비나눔 카드 및 카드결재단말기를 도입해 후원자들이 쉽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경 스님은 "하나은행과 지속적 사업 연계를 통해 불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자비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부를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자비나눔 통장 및 자비나눔 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부처님오신날 즈음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터치식 기부단말기를 도입해 후원자들이 쉽게 5천원, 1만원 단위로 소액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교기관의 기부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은 설립 15주년을 맞아 진각복지비전을 확립해 내실을 다져나간다. 재단은 "법인설립 15주년을 맞아 진각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비전수립을 위해 진각복지미래연구 TFT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산하시설 경영성과평가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인재육성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월 23일 전법회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복지…소액자본대출확대

종로노인…노인문화대학설립

서울노인…베이비부머 프로그램

진각복지… 15주년 세미나·TFT구성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공동체 발전기여, 노인문화 확대 등을 주요기조로 삼고 운영해 나간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2년제로 운영하면서 연극, 미디어 등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관 옥상에 장독대를 마련해 장을 담그고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지역공동체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관은 어르신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웃사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1인 1차트 갖기 운동'을 펼친다. 또한 종로구청 유휴공간에 마련된 고령자 기업인 '플러스카페'를 집중 운영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후 어르신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센터 내에 갤러리를 설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내일행복학교'를 2월부터 진행한다. 은퇴 후 배움을 통해 노년의 활기를 더하거나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센터측은 "내일행복학교는 노년설계·창업·직업전문·창의직업·힐링아카데미 5개 요소로 구성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젊은 세대들에게 장기기증홍보를 널리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은 "포털 블로그나 교구본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학용품 팔아 미얀마 친구 도우니 기뻐요

지구촌공생회, 미얀마 식수지원에 학교·기업 등 동참



금당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학용품 및 자신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 모은 돈 118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서 진행중인 미얀마 식수지원사업에 기부했다(왼쪽). 주식회사 아이네임즈가 후원한 물탱크를 이용하고 있는 떼야또 마을 주민들(오른쪽).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진행하는 미얀마 물탱크 건립사업에 기업, 학교에서부터 개인까지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개인소장품 등을 사고파는 알뜰시장을 열어 모인 수익금 등으로 지구촌공생회에 지원했다. 개인, 단체 등 곳곳에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에 따르면 충남 금당초등학교(교장 전병세)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교직원, 학부모회는 1월 22일 알뜰 시장 등을 통해 118만원을 모아 미얀마 식수지원사업비로 기부했다. 또한 금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은 지난 12월 11~17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인근아파트에서 판매했다.

초등학생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파는 알뜰시장을 열었다. 아이들의 열정적인 나눔 행보에 학부모들도 교내에서 일일찻집을 운영해 수익금을 모았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당초등학교가 2012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교육청 역점시책 중 하나인 바른 품성 5운동(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을 실천한 결과다.

전병세 교장이 수년전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된 지구촌공생회 식수지원사업을 본 것이 계기였다.

전 교장은 "충남 당진초등학교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우물을 후원했다. 이런 모금활동을 해보면 아이들이 더 먼저 기뻐한다"며 "이번에도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 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더 활발히 참여했다.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회사 아이네임즈(사장 김태제)는 2012년 9월 37,5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는 12월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태제 사장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듯, 남을 돕는 일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빈곤국 지원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와 가뭄은 식수문제를 가져온다. 이 같은 문제는 불교국가인 미얀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얀마 중북부지역인 만달레이주, 사가잉주,

학생들 텃밭에서 기른 채소 팔아

학부모 일일찻집 운영 '한마음'

전병세 교장 "학생들이 더 좋아해"

물탱크 9개 9000명 혜택 받아

마그웨이주 3개 지역은 미얀마 연 평균 강수량의 10~20% 수준에 그치는 '건조지대(Dry Zone)'로 약 1,450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물 부족으로 생계와 건강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 케냐, 몽골 지역에 식수지원사업을 벌이던 지구촌공생회는 2011년 9월부터 미얀마에서 식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강진아 간사(지구촌공생회 서울사무국 해외사업팀)는 "학교, 기업의 후원 덕분에 미얀마 만달레이주에 9개의 물탱크를 건립해 약 9000여 명이 혜택을 보았다"며 "후원자분들의 기대만큼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물탱크가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주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2)3409-0303

이나은 기자

"장애·비장애 넘어 봉사활동해요"

철산복지관, 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원 모집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야 하는 봉사활동을 보다 의미있게 할 수는 없을까.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은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 'WECAN'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창단한 WECAN은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증진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월 2·4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기획·진행한다. 주로 지역 재가어르신 및 경로당을 방문해 정서지원 및 세대 공감 활동을 하며, 지역축제·지역사회캠페인 등의 사회참여 활동도 진행한다. 또 봉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리더십 교육에도 참가해 즐거운 모임으로 유도한다.


장애·비장애 청소년봉사단 'WECAN' 단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서는 2월 6일까지 작성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한다. 2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단원으로 선정돼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02)2617-0410 이나은 기자

한양대 불교동문회, 100만원 기금전달

"늦게 동참해 부끄럽다", 소외아동 책가방 구입비로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가 소외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선지식동문회(회장 서쌍교)는 1월 24일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 100만원은 아름다운동행의 저소득가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선재의 선물'을 통해 조손·한부모 가정 아동 20명에게 책가방과 학용품·도서 세트 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서쌍교 회장은 "너무 늦게 나눔에 동참하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금을 시작으로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이 동참하겠다"며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해 말부터 2개월여간 '선재의 선물-책가방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전국 500여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 학용품 구입에 쓰이게 되며 2월에 전국적으로 배포된다. (02)737-9595



한양대 선지식동문회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가운데)이 전달식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본원종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8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3년 3월 2일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게,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종 총무원
▣ 수 강 료 : 월 일십만원 (100,000)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혜에 눈떠 세상을 복되게 하면 '화엄'

대방광불 화엄경 강의

용학 스님 (범어사 강주)

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청정히 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은 지난 1월 5일 관음재일 법회에서 "신심을 가지고 또박 또박 화엄 약찬게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청정해지고 지혜와 자비를 갖출 수 있다"고 설했다. 모든 방편을 가지고 큰마음의 이치를 널리널리 펼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대방광불 화엄경은 우리에게 꽃처럼 살고 열매처럼 결실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용학 스님은 전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음재일을 맞아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대중들에게 설했다. 스님은 화엄 약찬게를 매일 독송하면 탐심이 끊어지고 화가 사라진다며 대중들에게 경전독송을 권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대방광불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설법했다.

우리가 한 세상 와서 사는 것이 것이 얼핏 보면 불성의 종자가 잘 움틀 것 같지도 않고 희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신심이 있는 자들은 파란 싹이 움틀 것을 기약하면서 살면 사바세계 지난한 세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라는 천년의 빛나는 보배 같은 분이 계셨기에 화엄의 맥이라는 법문 한 자락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화엄경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영화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관 가서는 영화는 안 보고 영화관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절에 와서 화엄경 법문 안 듣고 절만 보고 간 사람은 관음재일날 절에 오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장점을 살려서 더불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화엄산림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엄경 약찬게를 법회 때마다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비워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말이죠. 화엄경 약찬게는 용수보살이 지었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여 놓은 것입니다. 바다가 너무 망망대해니 바닷물을 줄여 놓은 것처럼 불자들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약찬게가 탄생한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처음 출가 했을 때 늘 배우는 말입니다. 근기와 나무의 뿌리가 다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도 만년 세월이 지나더라도 오늘과 같은 존재요. 천만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니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화장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법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실 길이 다 끊어졌고 원효대사님이 가신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음재일 법문은 제가 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품절 부처님이죠? 설법전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입니다.

화엄경 약찬게 매일 독송
신심 간절하면 탐심 끊어져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꽃처럼 열매처럼 사세요"

우리가 꽃처럼 빛나고 달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청정하고 맑고 복된 터 신선 사는 곳 같은 곳에 와서 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 내 자신에게 모진 생각을 갖지 않도록 꽃처럼 사는 것이 華(화)요 남들에게 잘 영근 대추처럼 알곡식처럼 아주 맛난 과일처럼 열매가 되어 사는 것이 엄(嚴)입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득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지혜에 눈을 뜨고 역량껏 소질껏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학 스님은 매달 관음재일 마다 범어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강의한다.

얼마전 조폭 두목 김태촌이라는 분이 저 세상으로 가셨죠? 그 분은 소질이 미치지 못하니 폭력적 강압적이게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극락왕생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사신 분들은 뭔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도움 못 주는 삶은 백 살을 살면 뭐하고 천 살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복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길마다 금은보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발로 지나간 뒤에라도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냇가에 모난 돌이 흘러가는 물결에 깎이듯이 지나가는 바람결에 단단한 바위가 깎이고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대방광불 약찬게를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을 수승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수행하면 시비가 끊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신심이 간절해지면 마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열심히 정진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모질게 살아온 업장이 소멸된다는 마음으로 이 약찬게를 읽어 봅시다.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 나무화장세계해(大方廣佛華嚴經 龍樹菩薩略纂偈 南無華藏世界海)/ 비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석가모니제여래(毘盧遮那眞法身 現在說法盧舍那 釋迦牟尼諸如來)…'

지금 읽으신 약찬게 710자 잘 읽으신 분도 읽고 산란스럽게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작은 접시라도 받쳐 놓으면 작은 접시만큼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야 받치면 대야만큼 큰 바다만큼 펼쳐 놓으면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염불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글자 글자 몰입해서 1년만 읽으면 탐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녹이나 품값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어집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되지요. 6개월 지나면 화를 내거나 남을 해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어찌 됐든 간에 겉 구정물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대방광불 화엄경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매일 지극히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얽혔던 모진 인연의 고리가 풀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실타래가 엉키면 앞에 실도 걸에 실도 못 쓰게 됩니다. 실타래가 엉키지 않게 지금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1년 반이 지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또 군더더기 말이 끊어지게 되지요. 말이 끊어진다는 것은 잡념이 끊어진다는 소리죠. 간섭하는 소리를 많이 하면 잡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좋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는 것이 부처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것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론 뜻은 모르셔도 됩니다. 배고프면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을 끊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보십시오. 야무지게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천년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광불(大方廣佛)의 대(大)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方)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침 놓다 안 되면 약 먹고 하는 것이지요. 편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법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면서 법의 틈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결국 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환한 밝은 대낮처럼 명약관화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 식구, 내 편, 우리 편, 동네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마음의 본질을 전하겠다는 것이 대방광(大方廣)입니다. 큰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모든 방편을 가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널리널리 펼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꽃처럼 살고 열매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럼 경은 뭘까요? 가마니를 예로 들어봅시다. 가마니 짤 때 날줄이 바로 경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경입니다. 날줄은 언제나 모양이 같습니다. 옆으로 가는 줄이 씨줄인데 이것은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오늘 읽고 내일 읽어도 감로수와 같고 물과 같아서 질리지 않습니다. 갖가지를 요리해 놓은 '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달라진다는 거죠. 먹물을 들이기도 홍화물을 들이기도 쪽물을 들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경은 염주 줄과 같은 것입니다. 염주는 보리수도 있고 율무도 있고 프라스틱 염주알도 있고 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알이 꿰어 형형색색 다른 모양을 내는 것을 시절 인연이고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염주줄입니다. 똑같이 먹고 숨 쉬고 살아가지만 몸의 조건 따라 형편 따라 장소에 따라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경을 알게 되면 인연공덕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질병를 좌우하는몸속에 숨어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령인지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최면이 아님 환자의 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전문가 강좌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확인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3. 영가의 수준파악.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4.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확인
매주 월 ,수 ,금 수련 / 오후 2시/ 보시금 1회-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후에 상담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알기쉬고 이해하기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꽤뚫어보는 법
2기 힐링분석상담사교육생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 일반,전문가 강좌
민간가격증으로 인체에 흐르는 기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의지,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영적인 치유와 건강,심리 궁합,직업,적성,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우징의 기법을 통한 80가지의 에너지도형의 분석법
1.일반인반 4회 책자 / 2.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및 강의)

3강좌 : 우리몸의 과거,현재,미래가 간직된오오라장 일깨우는 차크라파동수련
1-7차크라 각성하여 초능력과 잠재능력을 발현의 원리 수행의 완성
난치병,불치병,빙의,정신병,마음의병,업장소멸의 원리를 체험,치유
월 , 금요일 / 오전 10, 오후 4시 / 수련 선택(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과 마음의 병치유 업장소멸의 원리 체험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고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 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화계사, 근현대 불교변화의 중심지

화계사지 발간 위한 학술세미나서 목소리 모아져

화계사지 발간을 위한 '삼각산화계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세미나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화계사 스님, 신도 등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세미나는 장장 5시간에 걸쳐 발표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진호 스님이 편찬한 〈삼각산화계사약지〉를 기반으로 화계사의 불교사적 가치와 역사성, 근현대 역사문화 등 5개 분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천 직지사 주지 홍선 스님이 좌장을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제 1주제로 〈조선후기 왕실과 화계사의 불교사적 가치〉의 발표자로 나선 오경후 동국대 연구교수는 화계사의 창건과 중건, 조선후기 왕실과 화계사, 그리고 조선후기 문화적 경향과 화계사를 조명했다.

오 연구교수는 "화계사의 불교문화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과 함께 현대불교문화와의 접목을 통한 계승·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삼각산화계사약지〉 편찬자체에 대한 이해와 화계사와 추사학파와의 관련성,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의 특색이 반영된 전통사찰로서 화계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 2주제 〈화계사의 근대사〉에서는 한상길 동국대 연구교수가 '개화운동의 산실로서 화계사', '근대종단의 주역 홍월초스님과 화계사', '범패의 성행과 화계사', '한글 통일 운동과 화계사' 등 관련자료 검토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연구교수는 "화계사의 근대사는 선구적이자 진보적"이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 화계사의 위상이 한 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에 덧붙여 "개화기 화계사에서 이동인 스님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동인, 무불, 차홍식 등 근현대 지식인들이 화계사와의 유대를 이어갔으며 거사불교의 움직임이 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또 "화계사에서 한글운동이 일어났으며 1964년 7월 조계종단에서 승가교육 도제양성차원에서 화계사를 중앙총림(中央叢林)으로 지정했다가 성사돼지 못한 점, 동국대 종비생 기숙사 백상원을 화계사에 지어 지금까지 이르게 한 점을 보면 불교현대화와 불교발전을 위한 담론이 화계사에서 잉태됐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1522년 탄문 대사 법등 이은 곳
근현대 지식인 활동 전개 도량
1964년 중앙총림 임시 지정 되기도

제 3주제로 〈숭산 행원 선사의 선사상〉를 발표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숭산 스님에 대한 발표를 크게 둘로 나누어 선종역사에 대한 숭산 스님의 역사인식과 선종사상에 대한 숭산 선사의 철학적 견해를 살폈다.



오경후 연구교수 / 한상길 연구교수 / 신규탁 교수 / 김성도 사무관

제 4주제로 〈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에 대해 김성도 문화재청 시설사무관은 조선시대 작성된 문헌 기록 및 당시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역사성을 고찰했다.

김 사무관은 "화계사가 개창 시기에는 아름다운 꽃과 맑은 시내로 유명한 암자"였다며 "탄문 대사의 법등을 이어 1522년에 초창돼 선종의 법맥을 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세월이 흐르며 정토신앙과 염불수행이 크게 성행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염불이 쇠퇴하며 다시 선종 중심도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지난해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흥선 스님의 도움으로 〈삼각산화계사약지〉를 발견하게 됐고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2년 기간 동안 자료를 모아 보충 보완하고 토론을 거쳐서 화계사지에 대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역사인식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차분한 마음으로 불교문화 느껴보세요"

불교전시실 새 단장 한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



"불교문화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채광과 조명을 개선해 많은 관람객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교조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상설전시장 3층에 위치한 대형 불상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월 21일 언론공개회에서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1여 년 간 진행된 개선사업의 소회와 기대를 밝혔다.

김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실 개선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으로 1여 년 간 진행됐으며 불교조각실 개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지난해 10월 반가사유상실, 신라금관실 개선에 이어 불교조각실의 대형 불상 전시공간의 전면 개보수가 원만히 마무리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차세대 리더모임 YFM(박물관의 젊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며 "모금 음악회 등을 통해 3억 원을 후원해 이번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관장은 "그동안 불교조각실은 역광 등으로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의 무게로 공간 배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불상의 미를 보다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전체에 타공 금속판과 암막 스크린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하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했다. 또 실내 바닥과 벽, 천장을 단일 톤으로 통일했다. 동시에 LED 조명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 근거리정보태그(NFC) 기능을 활용한 문화재 정보 제공도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N표시가 된 부분에 대면 전시물의 사진 다운로드를 비롯한 해설, SNS를 이용한 감상평 등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관장은 "불교전시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이날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전경.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불교의 다양성 녹아 있다

자현 스님, 학술지 〈文 · 史 · 哲〉에서 분석 논문 눈길



불교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자현 스님이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지(2012겨울 · 2013봄호)에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본 한국문화의 재발견'이란 논문을 통해 자현 스님은 싸이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을 진단했다.

자현 스님은 논문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성공 배경에 한국적인 특수성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족대이동을 겪었으며 민족적인 잡종(섞임) 상황을 맞이해 변화의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유교적 영향 등으로 획일화된 사회는 변화를 맞았으며 젊은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방향으로 좌충우돌하게 됐다"며 "부모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학력과 외국생활의 경험들이 쌓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 속에서도 활화산과 같은 문화적 생산을 꽃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이어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실크로드 시대 중앙아시아와 같이 문명의 잡종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첨단 전자제품과 게임 및 영화 등의 세계 성공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험장이자 척도로도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싸이 역시 잡종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싸이의 경우 한국적인 혼란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적인 의지를 통해서 자기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섞임 문화가 한류열풍 배경
싸이는 문화의 다양함 대변

자현 스님은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는 종교적 영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강남 지역은 개발을 통한 급격한 변화로 개인화된 문화가 섞인 지역으로 카오스를 대변하는 공간"이라며 "싸이는 노래를 통해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라는 카오스를 지향하는 구조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오스는 코스모스보다 하열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편견의 판단일 수 있다"며 "불교에서는 편견을 버린 상관성을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강남스타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스님은 끝으로 "우리 민족이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이러한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열린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며 "다양한 가능성 바탕에 인류문화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근현대 불교문화재 목록화 사업 착수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 관리 방안의 초석 마련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근현대 불교문화재 목록을 자료화 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에서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분야 목록화 사업' 중 첫 번째로 실시되는 '불교문화재 목록화 작업'이다.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사업'은 1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행되며 결과물은 각 유형별, 지역별 분류를 기본으로 한 보고서와 디지털 자료로 제작된다.

이번 조사 사업은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심화연구를 위한 초석을 생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은 "근현대 불교문화재는 100년 전에 제작된 유물, 유적 등에 비해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아 사찰성보대장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훼손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와 향후 보존 ·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여래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삼보귀의하옵고!
여래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강원교육과 문화교실을 통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배움의 장을 만들고 신도들을 상대로 법사를 배출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 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보 성 (강원 속초시)
호계원장 성 보 (경기 문산 승주사)
포교원장 만 경 (강원 춘천 보통정사)
선 원 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사회부장 제 오 (충남 금산군 광명사)

- 입 종 서 류 -

- 승려 및 사찰 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사본 및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1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교 육 부 설 -

교육구분	대 상
강원 (4년)	비구, 비구니 양성
불교대학 (2년)	일반신도 및 법사 양성
불교대학원 (2년)	전 법사 양성
문화교실 (매주)	서예,사군자,달마도, 불교의식 등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2282-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대전보문사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계사년 전남불교단체 포교활동 시작

환경법회 ·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활성화

계사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신행활동과 사회참여운동을 통해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교통사고예방안전지원 및 로드킬 희생영가 천도재'를 시작으로 올 해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지난 1일 통도사에서 열린 '2013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포교 · 신도단체 새해맞이 포교결집대회'의 참가한 후 포교사업에 적극적인 회원 사업에 전념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사찰순례 산악회와 108정진 조찬회(매주 수요일 새벽 5시), 수미산 합창단,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찬불가 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스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환경법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살 실천계목 제정, 빈그릇 운동 캠페인 및 빈그릇 운동 실천도량 지정하여 자원을 절약하여 지구환경도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환경실천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부설기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인 어린이 생태학교, 자따마따 1박2일,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등을 보다 내실 있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불교신도…산악회 · 찬불가교실

불교환경연대…기후변화 대응 사업

광주전남전법단…거점사찰확보

광주전남지역단…복지행사주력

특히 지난 1월 월출산 마애불과 상견성암으로 첫 생태기행을 시작한 소모임 산愛들愛(단장 김정식)는 '암자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013년 1월부터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생태문화기행을 마련, 회원들이 함께 암자를 찾아 기도를 드리고 신심을 키워가는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더불어 사회적 실천사업을 강화해 〈망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와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등을 비롯해 통일, 환경, 인권 등 우리 사회 공업(共業)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다양한 일들과 창립 5주년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전법단(단장 효진)은 2013년 활동목표로 도서지역 거점사찰확보 및 섬포교활동과 취약한 마을의 불자양성,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대학생 · 청년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불교문화강좌 개설 등을 잡았다.

섬포교사업은 불교이미지 개선과 도서지역 사찰신도들의 불교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음사업은 독거노인들의 집수리, 의료봉사, 무료급식, 연료비 전달, 이 · 미용봉사활동이 진행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포교사업으로는 대불련 동아리, 청년법회 개설을 지원하며, 장학결연을 통해 청년층의 불교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올해 복지관련 행사에 주력한다.

정영균 단장은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센터 등과 연대하여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동안 활동해왔던 섬포교 활동을 2회로 제한하고, 시설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백양사에서 실시하는 포교전문 강원에도 참여한다.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안내, 소년원교화, 교도소교화, 염불봉사, 문화예술봉사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통악기 교육을 강화한다.

이미 다문화축제에서 많은 수상경력과 공연경력을 갖고있는 '다문화가족의 전통악기 공연'은 많은 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들었다. 여기에 가야금, 오카리나, 난타, 화관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10월 다문화가족들의 체육대회를 광주전남NGO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전북 17%, 전남 13% 불과…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 꺼려



지자체가 사찰화재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09년 금산사 미륵전에서 실시된 소방훈련 모습

호남지역 시 · 도 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지원할 방안 마련 등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보물급 이상 목조문화재 19곳 중 36.8%인 7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시 · 도 지정 목조문화재는 전체 170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8곳(17%)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전체 73점 중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보물 1311호) 등 22점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도 지정 문화재 311점 중에서는 41곳(13%)만이 가입돼 있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은 상당수 문화재 소유주가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도 또한 문화재의 보험가액 산정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 발생 위험을 들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점도 보험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 및 방재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며 "도내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소화전 설치, 방연제 도포, 방수총(365° 회전이 가능한 진화장비)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진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내 '소방서의 출동시간5분 이상'인 보물급 목조문화재는 전체의 19곳 중 절반이 넘었고 자체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금산사, 송광사등 일부 사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광 · 혜월 · 일명 스님 등 10명 경승활동

광주지방경찰청 경승단 위촉식 가져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경승단 위촉식이 지난 1월 23일 경찰청내 무등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경승단위촉식에서 단장 연광 스님(증심사)을 비롯해 총무 효진 스님(광덕사), 일명 스님(금선사), 도제 스님(길상사), 혜법 스님(미륵사), 월인 스님(법륜사), 혜공 스님(성거사), 명신 스님(연화사), 무등 스님(천룡사), 혜월 스님(한마음선원)이 각각 위촉돼 3년간의 임기동안 경승활동에 참여한다.

단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에 사랑과 자비가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기 때문" 이라며,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워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재경 청장은 "스님들을 모시게 되어 광주 경찰이 시민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 후 경승 스님들은 청내 112 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및 부처님오신 날 기념 점등식을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광 스님, 효진 스님, 도제 스님 등 10여 스님이 3년간 광주지역 경승활동에 참여한다.

광주 증심사, 이웃사랑 성금전달



연광 스님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증심사 신도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불교계의 자비의 기금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에 동참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지난 2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전달했다.

이날 기금은 증심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인 성금으로, 최근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모금한 자비 기금이다.

전달식에는 연광 스님, 선형채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강원영 증심사 前 유마거사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선형채 부회장은 "불교단체에서 기부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환경연대, 미얀마에 학용품 전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연광 스님, 증심사 주지)이 국제국호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스님들이 지은 제따원학교(교장 우하대사)에 책걸상 및 학용품 등 약 600여 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미얀마 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함께 닭싸움, 축구 경기, 축하공연 등의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연광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21명은 '제4회 선재역사문화탐방'에 참가해 1월 4~11일 양곤, 바간, 만달레이, 밍군, 네피도의 주요 파고다와 유적지를 방문하고, 아웅산 폭파현장, 그리고 양곤박물관, 재래시장 등을 탐방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이 제따원학교에 6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사찰음식 체험전



일반 시민들이 자연음식문화원에 모여 혜각 스님의 자연사찰음식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혜각 스님 제철 자연음식 특강

지난해 12월 개원한 자연음식문화원이 1월 21일 전주 시민들을 위한 자연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정기강좌와 함께 특강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자연음식 체험전은 꾸준하게 자연음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혜각 스님이 특별강사로 나섰다.

유해 먹거리로부터 건강을 지켜내고 식습관 개선과 제철 자연음식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기 위한 이번 특강은 80명의 정원을 넘어선 120여명이 수강신청을 해 사찰음식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설음식을 응용한 떡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즉석떡국과 메밀만두, 늙은 호박잼의 3가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혜각 스님은 젊은 시절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조차 퇴원조치를 당했으나 자연음식으로 암을 극복하고 꾸준하게 자연음식을 연구, 보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촌 성룡사 : 02.336.2052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구로 명화사 : 02.854.0196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산 월강사 : 031.419.5048			
성남 화성사 : 031.745.1482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일산 화성사 : 031.905.2912		군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부산 상징하는 축제 만들 터”

범어사 전통등 강습회…1월 24일, 21일 2회 열어



부산 범어사가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대중참여축제로 이끌기 위한 전통 등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사진은 강습회 장면.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 스님)가 전통 등 문화 보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범어사는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관 대강당에서 1월 14~15일, 1월21~24일 각각 2회의 강습을 열었다.

이번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대중참여축제로 끌어내기 위한 전통등 문화 보급에 범어사가 당찬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강습회는 성공적인 전통등 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해 서울연등축제 기획팀과 전통 등 제작 전문가 10명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강습회는 초호화 장엄등보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행렬등 제작 보급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총괄 기획을 맡은 범어사 기획국장 목종 스님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적극적인

행렬등 보급 운동으로
부산연등축제 국제화에 기여

제안과 관심 속에 추진 된 행사다. 부산연등축제가 국제도시 부산의 상징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종 스님은 “범어사는 전통등 문화 보급을 위해 4개년의 계획을 세웠다. 범어사 신행단체 교육에서 시작해 향후 범어사 말사, 불교계, 시민들에까지 점차적으로 전통등 보급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진희 씨는 “화려한 제등행렬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철사를 잇고, 한지를 붙이고 채색을 하면서 차츰 완성되어 가는 등을 보면서 환희심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한다.

이진명(범어사청년회)씨는 “차량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초호화 대형 장엄등에 주눅이 들어 참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 등 강습회를 통해 서울 연등축제의 성공적 비결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행렬등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강습회에 참여한 보람을 이야기 했다.

서울연등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참여축제 1위에 마크될 정도로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반면, 부산 연등축제는 이벤트성 축제, 소모성 축제, 동원 축제 등 일회성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최근 부산지역 몇몇 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예산지원으로 시민참여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등축제 집행부의 전통등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중·장기 발전 전략 부재, 지역사회 기여와 자발적 참여모색에 대한 진정성 결여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래서 범어사의 전통등 강습회는 대중참여축제 단위에서 출발해 부산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해가겠다는 취지는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일이다. 체계적인 등문화 보급을 위한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산연등축제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본다.

박경수 부산 지사장

“전국 모범으로 부산 불교 우뚝 서길”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만찬회

비조계종연합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는 삼광사 법화삼매당에서 신년인사 및 부산불교발전기원 만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을 증명으로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조연 스님(법연사 주지),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등 부산지역 비조계종단 스님 100여명이 동참했다.

법민 스님은 “신년벽두 범종단의 스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돼 반갑고 영광스럽다”며 소회를 밝히고 “승가연합회의 출범으로 이제 종단 간 차별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심동체, 일불제자로 승가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부산불교가 전국의 모범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사장 화산 스님은 “종단의 결정에 따라 부산을 떠나게 되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히고 “어디에서든 승가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 37년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기간 승가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지고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 만찬회 장면

이날 행사는 신년인사, 임명장수여, 2013 사업설명으로 진행됐으며, 2월경 온천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입주식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울산 월봉사 불자야구단 창단

거사회 중심으로 23명 선수 구성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스님)가 불자 야구단을 창단했다. 월봉사는 1월 12일 경내에서 ‘월봉사 샤프니스 야구단’ 창단 및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구단주는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이 맡았다. 야구단은 거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용석 거사가 단장을, 이태희 거사가 회장, 하대식 거사가 감독, 김양곤 거사가 코치, 정성우 거사가 총무를 맡는다.

현재 23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호응도에 따라 참가자를 늘릴 예정이다. 야구단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상진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회

고우스님 “중도 의미 강조”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1월 17일 부처님 성도재일 맞아 안동시민회관에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자현 스님(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였다.

회장 자현스님은 “오늘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으로 정각을 이루고 세상을 교화시킨 날”이라고 성도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스님은 법어 를 통해 “연기가 핵심인 불교의 중도를 이해하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법회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안동지역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실천부터

댓돌 위에 가지런히 벗어 놓은 하얀 고무신을 보면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의 모습을 대번에 알 수가 있다. 스님도 스님이지만 절 살림을 사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의 성격까지도 한눈에 들여다 볼 수가 있다.

신발 벗어놓은 모습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가 살림살이 전체를 드러내 보일 수 밖에 없으니 작은 것이라고 해서 어찌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예전처럼 절에 불자들이 많지 않고 절집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았던 때에는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문밖에 벗어놓은 신발 한 두개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즘처럼 법당에서 사시사철 다양한 법회가 열리고, 많은 불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수행이나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법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무관심하게 벗어놓은 신발 하나가 여러 불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절에서는 불자들이 출입하는 문밖에 신발장을 짜 놓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불자들이 법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어 두거나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착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절집의 품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벗어놓은 신발로 인해서 법회가 끝나고 문밖을 나서면서 우왕좌왕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등 혼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불교는 위계와 질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는 종교이다.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신발이 다른 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렵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신발은 다른 불자들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 서울 ㅈ사찰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 (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금리거리


대불선원


만리장성


무 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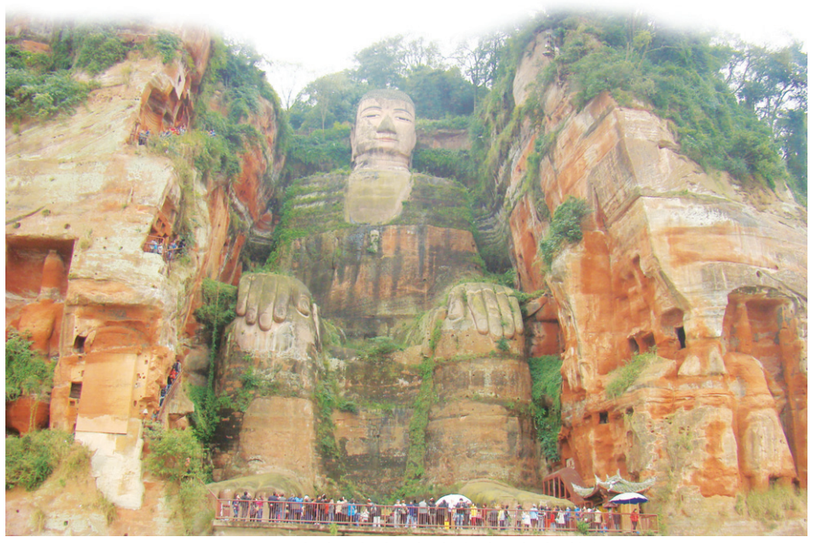

문 수 원


이 화 원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 (3/29, 금)	북경, 성도
2일 (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 (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 (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 (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 (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① 108선원순례단 단원들이 불국선원에서 좌선삼매에 빠져 있다. ② 불국선원에서 선원장 종우 스님에게 참선을 지도받는 모습 ③ 불국사 백운교에서 기념사진 ④ 무설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법문을 합송하는 단원들

"승보공양 문화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정진"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단, 첫 순례 동행기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월 23일 경주 불국사와 불국선원, 석굴암과 기림사, 분황사를 참배하는 제1회 108사찰과 선원 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례에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해 자현 순례단 단장 등 청계사 신도 임원 33명이 함께했다.

경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국정토의 108선원 순례를 앞두고 서원합니다. 부처님 법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승보공양의 문화가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한 순례가 아니었다. 1월 23일 하얀 순례복을 맞춰 입은 33명은 매서운 겨울날씨에 얼음장 같은 법당에서 미동도 없이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의 표정에는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정이 드러났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가 주최한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이날 순례는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사찰과 선원 순례단'이 창단된 지 100일 만에 이뤄진 행사였다. 2012년 10월 15일 창단된 이후 순례단은 순례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기도복과 가방을 맞추고 한글 법문집을 제작하기도 했다. 순례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선원 순례를 통해 스님들의 정진에 힘을 보태고 스스로 마음자리를 닦자는 것이다. 순례단은 올해에만 4월, 6월, 9월, 11월 등 안거기간에 맞춰 전국 선원을 순례할 예정이다. 순례는 5년 동안 이어진다.

긴 준비 끝에 108선원순례단은 이날 경주 불국선원을 비롯해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분황사 등 경주 일대에 순례의 첫 발을 내디뎠다. 새벽 6시 안양 인덕원역에서 출발한 버스에는 순례단원들이 준비한 공양물이 차례차례 실렸다. 출발과 동시에 버스는 달리는 작은 법당으로 변했다.

주지 성행 스님의 법문에 이어 모두들 따로 마련한 법문집을 들고 법문을 외웠다. 법문 소리와 함께 순례단을 태운 버스는 5시간이 걸려 경주 불국사 불국선원에 도착했다.

선원에 도착하자 말소리는 절로 줄어들었다. 안거 중인 스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 내리던 진눈개비도 순례단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모습을 감추었다.

선원장 종우 스님의 안내로 순례단 33명은 선원에서 대중공양물을 올리고 불국선

버스 출발하자 법당으로 변해

불국선원서 대중공양 후 좌선

분황사 등 참배하며 서원 세워

원에 모셔진 월산 대종사 영정에 절을 했다. 이어 순례단은 선원장 종우 스님의 지도하에 스님들의 공양시간 동안 선방에서 좌복을 깔고 잠시 좌정에 들었다.

"진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진실한 마음, 생각을 지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짓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그 마음을 찾아보세요."

수개월동안 정진한 스님들의 청량한 기운이 순례단에 전해졌는지 모두들 삼매에 빠진 듯 했다. 30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례단은 다시 길을 나섰다.

자현 순례단 단장은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과 같이 안거를 하지 못하는 재가자들이 주변 사찰에 머물며 100일 기도에 동참했다고 한다"며 "안거 기간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선원에서 점심공양 후 불국선원을 둘러본 것도 잠시 순례단은 선원 뒤로 난 오솔길을 따라 불국사로 향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순례단을 반기는 듯 했다.

불국사에서는 대웅전 뒤 무설전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관광객이나 기도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한 배려였다. 하지만 기도포와 순례단복을 맞추고 합송하는 모습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불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지심귀명례를 하며 기도가 시작됐다. 차가운 법당도 이들의 열기에 곧 훈훈해졌다. 법당 바깥에서는 금강 같은 발원이 새어나왔다.

팔을 다쳐 불편한 이들은 한 손으로나마 합장을 하고 바닥에 이마를 댔다. 서 있을 땐 가슴에 모은 두 손으로 신심을 부여잡았고, 굽은 등은 하심 하겠다는 서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순례단원들은 함께 순례에 동참한 도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청계사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매순간 정법 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또 항상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께 안내하겠다고 서원했다.

법회가 끝나고 성행 스님은 순례단원들에게 불국선원과 불국사가 새겨진 염주 알을 나눠주며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순례에 참여한 혜안심 보살은 "평소 참선 수행하며 전국 제방 선방에 꼭 와보고 싶었다"며 "스님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환희를 느꼈다"고 말했다.

자운 거사는 "개별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선원을 찾아 도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며 "완주까지 함께하며 불교 안에서도 필요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일정은 불국사 이후 석굴암, 기림사 순례에 이어 분황사에서의 모전석탑 탑돌이와 서원지 소지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순례단의 서원을 담은 불꽃은 경주의 밤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선원 공양 전통 되살릴 것"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사라져 가는 선원 대중공양 전통을 살리기 위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승보공양 문화가 교계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08선원 순례에 대해 "불제자로서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악도를 면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선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번 108선원 순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선원 공양을 홀로 다녔다.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는 선방 수좌 스님들을 볼 때마다 그 원력에 청계사로 돌아와서도 힘이 넘쳤다. 좋은 것은 권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신도들에게 선원 대중공양을 겸한 순례를 제시했고 신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선원 순례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인해 순례단 모집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몰렸다. 하지만 청계사가 순례단 창단을 발표한 직후 참가는 마감됐다. 인원을 33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안거기간 수행하는 곳을 방문하기에 많은 인원을 꾸리기 힘들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선원 곳곳을 다니며 보고 느끼고, 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마음으로 스님은 순례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단복에 들어가는 문양부터 기도포 문구, 염주의 재료 등을 직접 챙겼다.

순례에서 스님은 사찰마다 직접 문화재를 해설하기도 했다. 스님은 "의상대사께서는 처음 발심할 때 이미 그 목적에 도달한다고 하셨다"며 "시작과 끝이 하나요, 원인과 결과 또한 하나라는 '초발심변정각'의 마음을 가지고 108사찰과 선원 순례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생태사회와 불교
사르보다야운동과 사방승가운동

지역 기반으로 한 불교적 발전모델


2005년 대한불교청년회의 라오스 해외 구호 봉사의 모습. 최근 한국불교 역시 자비 사상에 입각한 국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세계적 파급력은 떨어진다. 한국불교도 불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한 사회운동을 고민할 때이다.

생태사회, 마을과 지역중심 재편화
산업화가 '떠돌이 문화'로 전락시켜
스리랑카 불교 토대로 개발운동 전개

붙박이 문화와 떠돌이 문화

대안적 생태사회는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약탈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며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끼리 의존도를 높여가며 서로 돕고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 의존하는 순간 자본과 산업에 포섭되며, 고유의 문화도 파괴되며 공동체도 해체되는 경험을 이미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돈과 자본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속에서 이미 '고향'의 개념은 사라졌다. '붙박이 문화'가 아니라 모두 '떠돌이 문화'가 되었다. 오늘날 집과 아파트는 거주하는 생활공간이 아니라 사고팔며 부를 축적하는 자본으로 전락했다.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사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된다. 더 넓은 고급 아파트로, 시골에서 도시로, 더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면서 산다. 이렇듯 '떠돌이문화'는 이웃의 도움을 얻을 필요도, 이웃과 사귀며 관계를 만들 필요도 없다. 또한 마을의 냇물이 오염되어도, 산의 파괴되고 개발이 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업화와 산업사회 이전까지 역사는 '붙박이 문화'였다. 한 지역에서 대를 이으며 가문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이다. 인근의 나무나 풀뿌리 하나하나 선조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 냇물이 더럽혀지거나, 강물이 오염되면 마을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며 나무가 함부로 베어지는 것을 눈감고 보고 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근의 자연은 자신의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이기도 했지만 자신과 후손들이 살아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운동'

오늘날 개발문제와 환경오염 등의 사안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사안별로 대응해 왔다. 낙동강 페놀사건, 동강댐개발, 새만금간척, 북한간 관통도로, 천성산 터널문제에서 최근 4대강개발까지 불교환경운동단체들은 대응 해야 하며 개발을 막고 나아가 개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하나가 성공하고 나면 또 다른 일련의 개발사건이 벌어진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대응 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과 파괴를 저지하는 운동을 언제나 중앙의 환경단체나 불교종단이 모두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장기적으로 결국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져야 한다. 지속되는 개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진화된 방식은 결국 풀뿌리 지역공동체 운동의 강화로 모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지역풀뿌리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지역운동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각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파괴적인 산업화에 대응하는 문명전환적 대안이라고 간디는 강조했다.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저서에서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상호부조와 마을공동체가 산업사회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가난한 나라의 개발운동으로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Sarvodaya Shramadana)'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운동의 창시자 아리야라트네 박사에 의해 개인의 깨달음과 가족의 각성, 마을공동체의 각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와 세계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완결적 개발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스리랑카의 반이 넘는 1만3천여개 마을이 참여해 온 운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33개의 지역센터와 345개의 구역센터, 505개의 마을에 마을금고를 운영하며, 3,359개의 마을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주민자치형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사르보다야의 정신은 '가난도 부정하지만, 풍요도 부정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회개발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국경 · 세대 넘는 일본의 사방승가운동

불교적 가르침에 근거로 한 사회운동으로는 일본 일련종 스님인 이모토 가츠유키(井本 勝幸)의 사방승가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어떤 장소에 4명 이상의 비구가 모여 대중이 형성되고, 포살과 자자, 여타의 갈마 등이 이루어지는 승가를 현전승가(現前僧伽)라고 한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가공동체가 바로 현전승가다. 그러나 이 현전승가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는 '사방승가(四方僧伽)'다. 이는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쳐 확대된 공동체,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를 통합한 승가공동체를 지칭한다.

이 사방승가라는 개념은 이미 한 국가단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미래에 살아갈 생명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생태위기가 우리에게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생존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국가라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세대와 생명의 삶을 하나의 큰 공동체로 두고 사고하는 사방승가는 매우 의미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이모토 스님의 사방승가운동은 현재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불교국가 모든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 상호 지원하고 도우며 지역의 자립적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사방승가운동은 ① Self-Sufficiency(순환적이고 자족적인 삶) ② Dharma Practice(마음의 수행) ③ Autonomy(자율적인 자치와 상호 부조적인 연계) 등 3개의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총칭한다. 이 자립적지역공동체를 '불국토'라고 부르며 세상의 억압과 부조리에 대해 '제3의 눈'으로 감시하며, 비폭력 평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 사방승가운동은 의미있는 환경운동이자, 바람직한 개발협력운동이며, 비폭력 평화운동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운동이다. 이는 개발국가들의 자립적인 개발지원방식으로 적절한 불교적 가르침과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서로 긴밀히 네트워크해 국가간 대립과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비폭력 평화운동이다. 그것은 과도한 서구의 물질적인 욕망에 포섭된 개발주의가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정치경제 문화가 바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되어 강자중심 사회로 재편됐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도적 구호활동 중에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무분별하게 이식하여 선진공여국의 의존성을 높이는 개발지원이 비판받고 있는 이때, 가난한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면서 스스로 상호부조를 통해 자치와 자립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는 이 운동은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사방승가운동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통화(Local Money)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 지역통화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하여 '소액대출운동(Micro Credit)'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통화운동은 현재의 화폐가 갖고 있는 이자로 인한 투기적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교환기능만 남겨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상호부조를 공평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서로 대면적 거래를 통해 공동체를 심화시키는 매개이지만, 일반 화폐처럼 재산으로 축적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상품생산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금융과 투기자본, 고리대업으로 잘사는 사람을 더욱 잘살게 만드는 비도덕적 화폐시스템이다. 이것을 지역에서 걷어내면서 그 의존성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것이 지역통화이다. 보완통화, 대안화폐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는 지역통화는 1982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튼에 의해 시작돼 현재까지 가장 널리 실시되고 있는 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에드가 칸에 의해 개발된 '타임달러', 일본의 '후레아이표', 스위스의 '비어(Wir)은행', 아르헨티나의 '교환클럽', 브라질의 '팔마스 은행', 독일의 '레시오', 이탈리아의 '윤리은행'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며, 가난한 사람들끼리 상호부조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역통화에 참가한 사람들 간의 소액대출을 통해 가내공업을 육성하고 지역자립적 산업을 육성한다. 이 무담보 소액대출운동은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에 만든 그라민은행(Grameen Bank)에서 시작되어 현재 방글라데시의 600만명이 넘는 빈민 58%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상환율은 90%가 넘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복지기구들이 도입하고 있다. 사방승가운동에서는 이 지역통화와 무담보 소액대출운동을 전담하는 기구 '붓다뱅크(Buddha Bank)'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전승가 존재 토대는 바로 '사방승가'
'사방승가운동', 불교 가르침 실천
긴급구호와 마을개발운동도 펼쳐

이 사방승가운동은 긴급구호활동과 마을개발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선진국의 공여에 의존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의 사방승가구성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종자를 주고 이익의 20%를 상환받는 볍씨은행, 농사를 위해 소를 빌려주는 소은행, 붓다연못, 붓다로드 등의 방식을 통한 자립적 마을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사방승가운동은 매년 6월에는 세계동시평화법회를 진행한다. 2006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 법회는 지정된 몇몇 특정장소에서 사방승가에 참여하는 중심적 활동가들이 지역협력과 자립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논의하며 전쟁과 갈등, 가난이 사라지도록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종교를 뛰어넘는 생태적 지역운동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사례에 우리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계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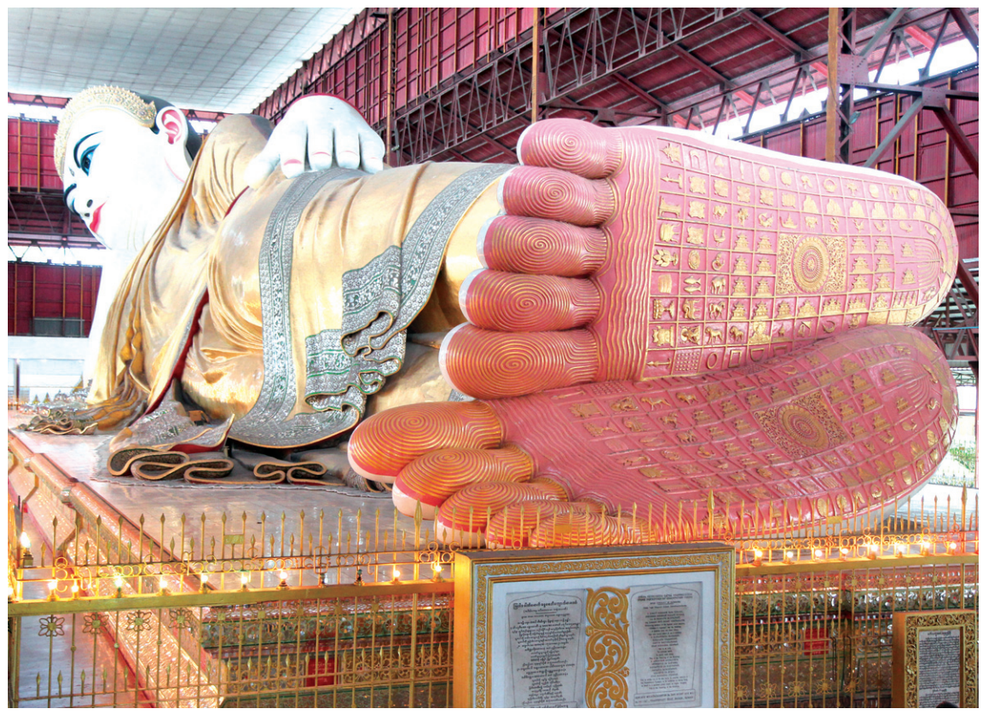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와 미학

법신사상과 불상의 관계

불상은 자비의 화신이며 불멸의 法身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초기 부처상과〈사진 왼쪽〉과 남방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족적〈사진 오른쪽〉. 부처의 몸을 보여주는 불상은 숭배가 아닌 법신에 귀의하는 의미로 조성 · 발전돼 왔다.

모든 종교에는 입문절차가 있다. 불교에도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문절차가 있다. 최근 조계종에서는 불교대학 기본과정을 이수해야 신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등 불교 입문을 위한 형식들을 만들고 있지만, 불자가 되려는 사람이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삼귀의(三歸依), 부처님과 그 분이 가르친 법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의하는 것이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불교에는 형식적인 입문절차가 없다. 출가자를 위한 입문의식인 수계의식과 절차가 율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부처님 재세 시에는 '오라, 비구여!' 라는 한 마디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재가자의 경우에는 그저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면 불자가 된다.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보다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삼귀의 중 이미 열반에 들어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에 대한 귀의는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법과 승가와 비교해 볼 때 부처님에 대한 귀의는 귀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모호한 것은 신앙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은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 선호된다.

불교의 진실한 귀의처는 어디인가

따라서 모든 종교는 그 교주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그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장치이다.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때에만 예수에 대한 귀의가 분명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성된 모든 것의 변화와 사라짐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신격화가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살아있는 부처님조차 그 육신은 제한되고 허망한 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삼십이상과 팔십종호조차 그 본질이 아니다. 설사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원하는 곳에 몸을 나투더라도 그것은 가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귀의해야 할 귀의처가 아닌 것이다.

부처님의 육신과 신통력으로 나타난 형상조차 허망하다면 우리는 무엇에 귀의해야 하는가? 진실한 것에 귀의할 때만 우리들의 귀의도 진실한 것이 될 것이다. 과연 진실한 것은 무엇일까?

부파불교 시대에도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론되었다. 부처님의 색신은 허망하지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 즉 그 본질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출생이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은 법에 의해 부처님이 되셨으므로,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만든 본질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다. 이 법은 부처님 입멸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에 대한 귀의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귀의에 다름 아니다.

법신, 가장 진실한 귀의의 대상

이로부터 법신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만들어졌다. 법신, 즉 '진리의 몸' 은 부처님 그 자체, 가장 진실한 부처님을 말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동시에 부처를 부처로 만드는 본질인 법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 다시 말해 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법성이 실현될 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진리의 몸' 을 이루게 된다.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 곧 지혜의 완성은 법성으로서의 공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신은 가장 진실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몸인 동시에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신사상은 대승불교 비판자들이 주장하듯이 역사적 존재인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나 신비화가 아니다. 그것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정신의 계승이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리라."는 〈상응부경〉의 말씀이나 "여래가 법을 공양하기 때문에 법을 공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공경하는 것이며 법을 관찰한다면 곧 나를 보는 것이며 법이 있으면 곧 내가 있느니라."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은 법과 불이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법신사상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법신은 지혜와 자비가 구체화된 몸

법신사상의 새로운 점이라면, 법을 아비달마의 주제인 제법처럼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지혜와 자비라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덕성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불멸 후 사람들은 부처님이 실제로 일생 동안 세속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출세간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청정한 지혜와 자비의 몸을 가진 부처님은 열반에 든 뒤에도 어딘가 청정한 곳에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싹트게 되었다. 자비의 화신인 부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리 없다는 생각은 부처님의 열반이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이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불멸하는 존재, 영원한 현재를 표상하는 법신이 역사적 존재인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신은 역사적 존재인 부처님의 신격화가 아니라 불법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대표한다.

불교는 숭배아닌 귀의 강조
법신은 부처님 법 계승 의미
불상 · 불탑 귀의 위해 제작

불상의 진상 · 가상 이중주 속
청정한 허공의 몸을 보리라

사실 법신사상은 부파불교의 스콜라적 사변으로부터 다시 삶의 현장으로, 사회로 되돌아오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불상의 조성은 법신사상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기원후 1세기 경 간다라 지방과 미투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불상의 인도문화의 자생적인 발전 결과이든 헬레니즘 문명과의 교섭 결과이든 불멸 후 5백년 가까운 무불상시대 이후에 출현한 불상은 불교사상과 실천의 변화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에서 먼저 불상이 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불상의 제작이 대승불교의 출현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미술사는 불상의 조성을 신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대승불교로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설명하여왔다. 따라서 불상 역시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렇게 본다면 불상은 다른 종교인들이 비판하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을 것이며 대승불교도 비판자의 견해처럼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초기불교로부터의 이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저 심원한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결론이다.

무불상시대에 부처님의 색신을 대신하여 불교조형물 속에 나타난 보리수, 불족적(佛足跡), 빈 대좌, 법륜 따위는 부처님의 색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기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읽을 수 있다.

불상 · 불탑은 숭배 아닌 귀의 의미

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던가? 부처님을 색신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는 사실은 부처님의 색신에 대한 강한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간의 형태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상징들은 부처님의 역사적 실존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색신의 부재는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부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가지야마 유이치 같은 일본 불교학자도 부처님 사후 수세기 동안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존경이 사리를 보관한 불탑에 대한 숭배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상화에 대한 이처럼 조심스럽던 태도와 비교해 본다면 불상의 출현은 놀라운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새롭게 등장한 법신사상이 불상을 조성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 법신에 호소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실존한 부처님의 존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형상화에 대한 제한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역설적이게도 법신에 대한 사유가 부처님의 형상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금기를 깨뜨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불상은 무지몽매한 재가신도들이 부처님을 신격화된 존재로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상은 부처님의 덕성을 가상의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상한다. 덕분에 우리는 진리의 몸, 법신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남아 있는 금석문 분석을 통해 불상 숭배가 사찰과 관련이 있으며 출가 의식의 하나라는 그레고리 쇼펜의 실증주의적 연구결과도 매우 흥미롭다.

모든 형상은 그림자, 가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날마다 돌부처님, 흙부처님, 나무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며, 단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닌 부처님.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이분법의 양변을 떠나 있으며 색깔과 모양, 크기로 표현할 수 없는 부처님. 그래서 찬탄의 대상이 아니지만, 불자들은 "가는 자도 아니고 오는 자도 아니며 간다는 행위도 없는 선서(善逝: 부처님 십호 중 하나)"에게 귀의한다.

지극한 그리움으로 불상에 깃든 진상과 가상의 이중주에 귀 기울인다면 그 속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진 법신의 세계, 청정한 허공의 몸을 보게 되리라.

"당신의 몸은 영원하고 견고하고 심원하고 평온하십니다. 그것은 법의 본성입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법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쉬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4〉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

중생들은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저절로 쉬어지고 비워지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고 온갖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 찾고 또 구하려고 한다. 생각을 쉬고 쓸데없는 망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무념 상태에 이르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으라.'는 말에 속아, 아무 일도 안하거나 일어나는 생각을 일부러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선지식의 가르침을 능멸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목이 열린 사람이 쉬고 비우는 것과 열지 못한 사람이 쉬고 비우는 것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 해서 마음이 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항상 부처나 중생이나 상관없이 늘 함께 하고 있다. 단지 '마음'이라고 이름 했을 뿐, 어떤 형태로 존재하거나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 했듯이, 마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증거 할 수 있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을 듣고 이치를 좇기만 하며, 실제로 근본과 묵묵히 계합하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어서, 닦아 더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는 육도만행과 온갖 공덕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서, 더 이상 공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연따라 드러나는 것을 변화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바 없이 지키는 것! 이것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언어를 빌려서 가깝게 표현한 것뿐이다. 실제로는 본인이 깨달아 봐야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법의 기쁨, 곧 법희선열락(法喜禪悅樂)을 알게 된다.

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해질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당장 눈앞의 세상사 고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만일 이것이 부처임을 결코 믿지 않고, 겉모습[相]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며,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에 흔들려,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만약 도를 깨치게 되면, 그대로 믿고 내려놓으면 된다. 사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밖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흔한 말로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본래 비울 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든 비워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공부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미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 줄 알아야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든 안 되든, 흐름 따라 내버려두면 언젠가 쓰임새에 따라 다 드러날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섭수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고요한 상태라면, 그것이 곧 본래 내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인데 무엇이 걱정인가?

이 마음은 허공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없다.

'마음이란 원래 허공처럼 깨끗하여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이것도 깨달음에 눈뜬 사람들 사이의 말이다.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고 밝은 것이 마음인 줄 아는 분별심에 빠져, 그것을 찾고 구하고자 애를 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본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 없이 방황을 끝낸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의 그림자에 흔들려 허튼 짓을 하는 것이다.

범어사 주지



주성원의
기초 교리 〈49〉

탐욕·무명 동시에 여의는 수승한 수행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⑤ 칠각지(七覺支)

불교의 모든 수행도는 깨달음을 향해가는 길을 제시한다. 삼십칠보리분법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불교의 이 수행도도 부처님이 증득한 열반의 세계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 관점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칠각지(七覺支)도 그 중에 하나이다. 범어로는 "sapta-bodhy-aṅga (쌉따보디앙가)" 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한 일곱 가지의 종류의 수행도를 의미한다.

그 일곱 가지에는 염각지 · 택법각지 · 정진각지 · 희각지 · 경안각지 · 정각지 · 사각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지(覺支)라는 것은 깨달음의 갈래라는 의미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의 수행항목을 가리킨다.

초기불교에서는 호흡을 고르며 정신을 통일하는 수식관(數息觀)을 행하고 난 뒤 사념처관(四念處觀)을 닦고 그 다음에 바로 칠각지를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지혜[明]와 해탈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칠각지는 삼십칠보리분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칠각지에는 명상수행과 지혜의 두 가지 성향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경전인 〈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는 칠각지를 통해 증득할 수 있는 것은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이라고 하여 칠각지 수행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칠각지의 수행을 통해 탐욕을 버리는 심해탈과 무명을 여의는 혜해탈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칠각지 중에 첫 번째는 염각지(念覺支)이다. 염각지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명상[定]에도 지혜[慧]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로 인해 혼탁하거나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택법각지(擇法覺支)이다. 택법각지는 염각지를 기반으로 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택(擇)은 간택의 의미이다. 즉 바른 가르침은 취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버린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찰하고 분별하여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정진각지(精進覺支)이다. 정진각지는 지혜를 기반으로 선택된 바른 법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노력은 그냥 노력이 아니라 바른 노력이다.

붓다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취해 용맹정진 했듯이 정진각지 또한 바른 법에 대해 끊임없이 행하는 바른 노력을 말한다.

네 번째는 희각지(喜覺支)이다. 희각지는 열심히 수행에 정진한 자에게 그 결과로 평안한 기쁨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종에 부단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환희심은 잘못된 견해가 아닌 참된 진리를 얻으려는 노력일 경우에만 생긴다.

다섯 번째는 경안각지(輕安覺支)이다. 경안각지는 희각지를 얻은 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 지는 것을 말한다. 깊은 명상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除覺支] 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정각지(定覺支)이다. 정각지는 경안각지를 얻은 뒤 마음을 집중하는 것[samādhi]을 말한다. 몸과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더욱 깊은 명상에 들어가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통일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사각지(捨覺支)이다. 사각지의 사(捨)는 버려서 완전히 격리한다는 뜻이며 대상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칠각지 중에 택법각지 · 정진각지 · 희각지는 혜(慧)에, 경안각지 · 정각지 · 사각지는 정(定)에 해당하고 염각지는 정과 혜 모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칠각지를 바르게 수행하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마음과 지혜의 해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⑤④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 법을 설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설하지 않으신다

〈서품(序品) 마하반야바라밀경〉

금서 속의 명언

금서(禁書), 불온한 그 무엇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듯 음산한 기운이 풍겨온다. 불온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온건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만큼 판(板)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판, 이라는 제도권을 지켜내야 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감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금서에 피의 냄새가 나는 것도 그러한 탓이리라.

그런 금서는 불교사에서도 존재한다. 〈탄이초(歎異抄)〉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책은 이름부터가 불온(?)하다. 감히 "이탄을 탄식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탄이초〉의 저자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가르침은 이단이라는 것을 못 박고, 그러한 이단의 사설(邪說)을 뿌리뽑고자 한다.



그림 · 박구원

〈탄이초〉에서 길이 탄식하고 있는 이단의 사설은 주로 염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여러 견해를 가리킨다. 편저자 유이엔(唯円)은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스승 신란(親鸞, 1173-1262)의 가르침을 들은 바 그대로 전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라는 것이다. 그런 뒤에 11장에서 18장까지는 그가 견문한 이단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런 뒤에 후서(後序)까지 부쳐서 "믿음에 대한 그릇된 주장하는 한탄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단 타파를 기치로 내건 이 책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금서로 지정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남긴 주인공 렌뇨(蓮如)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한다.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핏 렌뇨의 태도는 모순된다. 필사를 하면서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니 말이다. 누군가는 보아야 할 터이지만,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렌뇨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금서의 매력은 페이지마다 불쑥 불쑥 머리를 내밀고 나오는 명언(名言)들에 있다. 사람들을 잡아끈다. 신란은 가히 명언의 명수(名手)다. 예를 들면, 후서에서 인용되는 신란의 이런 말은 어떤가. "아미타불이 오겁(五劫)이라는 긴 사유 끝에 세우신 서원을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오로지 나 신란을 위한 것이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法藏)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도자였다.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수행기간이 5겁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그러한 긴 시간에 걸친 수행 끝에 법장비구는 48원을 세운다. 그리고 그 서원이 다 이루어져서 아미타불이 되셨다.

그 48원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추체험(追體驗)해 본 끝에 신란이 얻은 결론 : 아, 저 48가지 원은 모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제해 주시려고 세우신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결정적이다.

명언은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는 말이다. 흔히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굳게 견지(堅持)하고 있다. 예컨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어왔던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신란은 수보리가 되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경전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물론 〈마하반야바라밀경(대반야경)〉의 이 말씀은 신란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경전에 의하는 한, 그것은 삼천대천세계의 국토와 시방의 중생들이 하는 착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설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전 말씀을 내가 신란의 말을 가지고 와서 해독하는 것은 일종의 오독(誤讀)이다. 하지만 창조적 오독이다. 우리 스스로 1인칭 시점으로, 우리 스스로 수보리가 되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독을 해봤다. 재미있지 않은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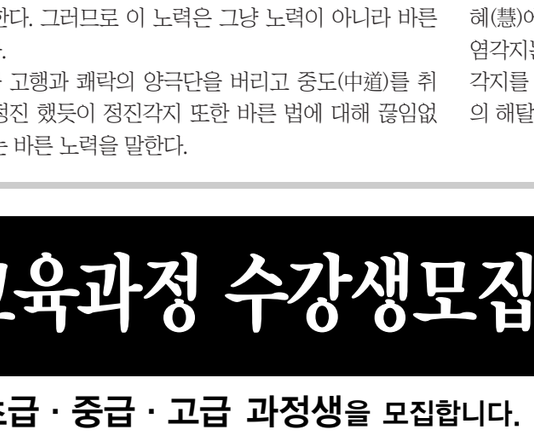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정각 이뤄야 고락에 매이지 않겠죠”

초의스님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아낌없는 후원을 보낸 인물이 추사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최근 발굴된 〈주상운타첩〉에는 지금껏 소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추사의 편지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는데, 이 첩 속에는 두 편의 편지를 한 면에 수록해 두었다. 좌편의 해서체로 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10신과 같은 내용이고, 오른 쪽에 초서체로 흘겨 쓴 것이 처음 소개되는 편지이다. 두 편의 편지 중, 우선 〈여초의〉10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주상운타첩〉의 추사 편지. 초서체는 처음 소개되는 편지다.

昨因季歸 略聞聲信 即又獲見梵棫 種種慰浣 第瓶鉢栖皇客惱可悶 至於明日金剛之行 遂不見我而去耶 仲之長川行 亦非明日可以經發者 且暫收拾躁猿靜俟數日 亦爲休憊之方便也 慧衲殘糧 豈可浪費 亦當裁處 放下着不式 (〈여초의〉10신)

어제 막내아우가 돌아왔기 때문에 대강 소식을 들었는데 또다시 그대의 편지를 받으니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후련합니다. 다만 그대가 떠도는 객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안쓰럽습니다. 내일이 되면 금강산으로 떠나는데 결국 나를 보지 않고 떠나시렵니까. 仲弟가 長川에 가는 일도 내일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잠시 수습하여 조급한 원숭이가 안정되기를 몇 일간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 피곤함을 푸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慧庵 스님이 남긴 양식을 어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하착하시길, 이만 줄입니다.

過境不必提現境 亦復苦甚 至於得成正覺 不在於過境現境之苦樂也 師尙以是爲緣業相因耶 好覺嘖案也 淨聖小照入送如何 當精摹兩本 一留一呈 且爲目下銷遣 即師之賜也 腕力如此橫連 不式(새로 발굴된 편지)

과거의 현상이 현재의 대상을 이끌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고통이 심합니다. 정각을 성취함에 이르러야 과거와 현재의 현상에 따른 고락에 매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대는 이것이 인연의 업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라 여기십니까. 좋이 한번 웃을 만합니다. 관세음보살도는 이리 보내시는 것이 어떨지요. 정성을 다해 모사한 관세음보살도 2본 중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보내십시오. 바로 지금 보낸 것은 (내가)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팔의 힘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만…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한 초의의 저간의 사정이 그리 순조로웠던 것은 아닌 듯. 이에 마음이 쓰인 추사였다. 그가 막내아우 김상희(1794~1861)를 통해 초의의 소식을 들었고, 또 초의의 편지가 당도한 후에야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후련하다’ 고 그의 속내를 토로한 셈이다. 떠도는 객의 신세였던 초의의 고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던 추사였으니 내일이면 떠나는 초의를 위해 하루라도 쉬었다 가기를 바란 것이다. 그의 이런 벗을 위한 배려는 ‘전라도 장수지방으로 출발하는 중제(仲弟) 김명희(1788~1857)도 내일 급히 출발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라는 행간에 오롯이 배어난다. 신실한 우의는 진정 이런 것인가. 실로 닮고 싶은 옛 사람들의 마음씀씀이다.

두 편지에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추사가 말하는 내일이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초의가 금강산 유람을 떠난 것이 1838년 봄이므로, 이 해 봄 어느 날일이리라. 특히 추사가 언급하고 있는 과경(過境)과 현경(現境), 다시 말해 지난 과거의 현상과 현재의 현상이 연기에 의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의 인식에 의한 부침으로, 고(苦)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境)은 곧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대상, 혹은 그런 현상을 이른 말이다. 정각을 이루어야 육경의 고락(苦樂)에 매이지 않는다는 추사의 정의는 그의 불교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그가 ‘그대는 오히려 이것이 인연의 업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라 여기느냐’ 라는 반문은 희언인가. 아니면 동의를 요구하는 말인가. ‘좋이 한번 웃을 만하다’ 는 통변(通辯) 뒤에 숨겨진 본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초의가 그린 관세음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교유에 핵심 축이 불교였다는 것을 드러낸 대목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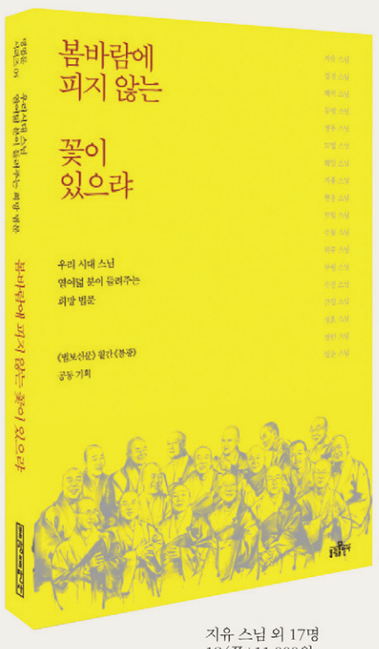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유 스님
설정 스님
혜국 스님
동명 스님
정우 스님
도법 스님
혜담 스님
지홍 스님
현응 스님
도일 스님
수불 스님
허주 스님
무원 스님
우진 스님
금강 스님
성효 스님
청안 스님
일운 스님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명법문 시리즈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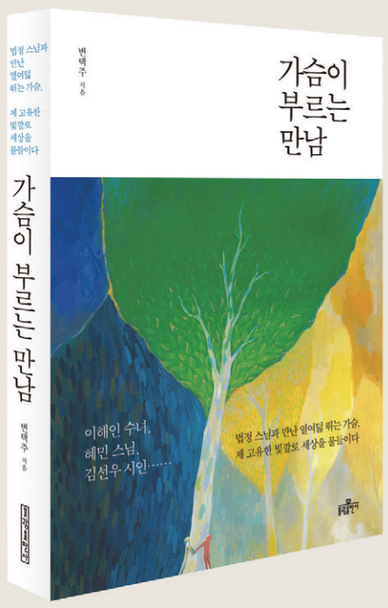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라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 352쪽 | 15,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 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 책에서만 스님을 뵙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춰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생명나눔·포교 종무행정의 ‘달인’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은 직함이 여러 개다. 현재는 조계종 호계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전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 군종교구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직함만 여러 개일 뿐일까. 일면 스님은 직책만 맡으면 ‘올인’ 해 확실한 성과를 냈다.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있을 때는 4년간 최선을 다해 군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군법당 46개를 중창불사하고 14개를 신축했다. 3년 동안에 16만여 명 군장병에게 수계를 내렸다. 또한 신흥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대한불교진흥원 등을 통해 73억여 원의 군포교 기금도 확보했다.

광동학원 이사장직을 맡을 때는 18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교내에 학교 설립자 운허 스님 동상을 세워 불교 건학 이념을 분명히 했다. 또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던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맡아 10억 원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기기증확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재직시에는 승가고시를 재정해 승가교육의 기틀을 세웠다. 현재는 호계원장으로서 종단안정을 위한 승단의 범계행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스님은 주어진 일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스님의 크나큰 원력과 자비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일면 스님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늘 웃는 얼굴이다. 경주가 고향인 일면 스님은 13살 때인 1959년에 출가했다. 악명 높은 사라호 태풍이 몰아친 해이다.

음력 8월 14일 추석전날. 학교에 갔다 돌아온 13살 소년은 형산강에 마을의 집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만 했다. 폐허가 된 마을에 한 스님이 걸망을 지고 탁발을 다니고 있었다. 탁발승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소년은 마음이 화끈한 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 소년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탁발승은 “너나 따라가자”고 했다. 소년은 책보를 마루에 던져놓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왔다.

일면 스님은 “돌아 볼 것도 없이 사문의 팔자였다”고 회고했다. 소년은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절에서 잠시 머물렀다. 마당을 쓸면서 법당에서 들리는 스님의 천수경 염불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외웠다. 그러다 해인사로 옮겼다. “스님이 되겠다”고 하니 문중들은 어리다고 받아주질 않으려 했다. 그렇게 일주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승낙을 받고 엄격한 수행승으로 소문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밥도 짓고 국도 끓였다. 심부름도 거들었다. 장작을 태우기 위해 불쏘시개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밤에는 혼자 울기도 했다.

은사 명허 스님의 별명은 ‘호랑이’ 였다. 하루는 일면 스님이 수건과 내의 등을 세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헹군 물을 버리고 있었는데 명허 스님이 또 꾸짖었다. “놔뒀다가 걸레를 빨 때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만큼 은사 스님은 철저했고, 모든 것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오롯이 새긴 일면 스님은 지금까지도 양말과 속옷이 해져도 다시 기워 입는다.

초등학교 졸업장 없이 어린나이에 절에 들어온 일면 스님은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고 커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평생 동안 화두정진을 했던 명허 스님은 일면 스님에게 “선방에 가서 도인이 돼 불교를 일으켜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일면 스님은 당돌하게 “스님, 저는 복지·행정의 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제자의 고집에 스승은 일면(日面)이라는 법명을 지어주고서는 말했다. “네가 앞으로 중노릇을 잘하면 종단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만약 공부를 못하면 불교를 망칠놈이 된다. 잘 하거라.”

명허 스님은 “절대 비석을 세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1971년 해인사 홍제암에서 입적했다. 일면 스님이 군복무 중일 때였다. 일면 스님은 “우리 스님은 잘못하면 언제나 회초리를 들어 야단을 치셨다. 은사 스님 덕분에 장난 많고 덜렁덜렁했던 성격을 잡을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대 후 일면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만학도로 동국대에 입학했다. 학생 때는 돈이 너무 없어 구운 감자와 번데기를 팔고 헌책방에 책을 팔면서 학비를 마련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 공양주를 자처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놈이 대학교도 졸업했잖습니까. 그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자칫하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 만나 하고 싶은 공부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 해인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면 스님은 눈썹까지 밀고 공양주 소임을 살았다. 정성들여 밥을 짓고, 까마득한 후배 스님들의 고무신도 몰래 닦아 놓았다. 그렇게 묵언 속 정진을 하며 날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칠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발원했다. 이후 삶의 변화가 왔다. 다른 사람들이 스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일면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아가야 할 신념을 확고히 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돈, 명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지녀야 할 신념이 행자 시절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무엇을 하겠다’ 는 신념을 행자 때 세우지 않고 행자 시절을 적당히 보낸 사람치고 중노릇 시원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질에 맞춰 율을 공부해 율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지사업 등 포교를 할 것인가 등의 선택이 행자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노릇 잘하면 종단의 얼굴 되고 잘못하면 불교 망친다” 은사스님 당부

교육원장·군종교구장·광동학원 이사장 역임하며 주어진 일에 ‘올인’

“뇌사자 장기받고 다시 태어났으니 생명나눔은 평생해야할 바라밀 정진”

그러고 난 뒤 선방에서 지낼 때였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故 성수 스님이 일면 스님을 불러 조계사에서 총무 소임을 보라고 한 것.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조계종 교육원장 등 주요직책을 두루 거쳤다.

스님은 ‘할 수 없다’ ‘안된다’ 라는 말을 싫어하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 죽는 놈은 없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후배들에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 고 가르칩니다. 세상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면 스님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의사로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은 것. 1년에 16차례 입·퇴원을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았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말기암으로 악화됐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 우울증이었던 것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지만 40여 년을 중 생활을 한 나로서도 이 고통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불을 덮고 펑펑 울기도 했어요.”

일면 스님은 빨리 몸을 벗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극



1964년 자운 스님을 율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일면 스님



초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일면 스님은 형식과 위치를 따지지 않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일면 스님은 … 194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종비생으로 입학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의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교육원장, 초대 군종교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호계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단적인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때 한 생각을 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였다.

그러다 갑자기 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덕분에 스님은 살아날 수 있었다.

20시간의 수술, 3일간의 혼수상태. 생사 갈림길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 생각이 스쳐갔다. '한강 한 번 더 보려, 한 번 더 사는구나. 결국 생사란 이런 것이구나.' 벌써 13년 전 일이다.

"선재(스님은 뇌사자의 이름을 '선재'라 붙였다.)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인생 사사로운 이익 챙겨 뭐하겠습니까. 부처님 은혜 갚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 후 스님은 지금까지 복지 · 행정의 도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다.

군종교구장이던 시절에는 총무원이 군종교구에 지원하는 금액의 10배인 25억을 화주했다. 분규 속에 있던 광동학원 이사장직을 자처해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그 지역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던 광동고를 명문고로 탈바꿈시켰다.

봉선사 주지 때는 사찰 재정을 공개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내고 사중 재정을 튼튼히 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장 시절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동문회사무실도 갖췄다. 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이사장직을 맡고있는 최근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각각 3만 명에 이르는 쾌거를 이룩했다. 형식과 위치를 따지지 않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스님의 적극성이 이뤄낸 결과들이다.

최근 호계원장으로 임명된 일면 스님은 원칙적인 판결로 호계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평소 제 자신에게는 서릿발같이 대했지만 타인에게는 늘 화합과 조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호계원장이 된 이상 유연하면서도 서릿발 같은 모습을 보이겠다"며 "종단의 화합을 깨트리거나 계획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호계원의 역사가 꽤 되었음에도 이렇다할 양형기준이나 판례집이 없는 상태다. 임기 내에 이를 마무리짓는데 노력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증하는 자살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면 스님은 "많은 국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취업난 · 경제난을 겪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사회갈등을 좁혀야 하며 재벌기업은 상생경영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민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면 스님은 한 가지 발원 하는 것이 있다. 불교행정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다. 지금껏 맡은 직책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출가할 당시를, 은사 스님에게 꾸중을 들으며 시봉하던 그 시절을, 해인사 공양주 소임 살던 그때를 생각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된 불교를 이룩해 모든 이들의 가슴에 와 닿는 불교로 만들고 싶다는 발원이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일궈냈냐는 질문에 일면 스님은 "바른 일, 해야 할 일을 사심 없이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졌다"며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을 생각하니 주위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와줬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일면 스님은 '한쪽 모퉁이를 비추면 천지가 다 밝아진다'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을 좋아한다. 홀로 천지를 모두 밝게 하려는 마음가짐 보다는 내가 한 분야를 비추겠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이다. 일면 스님은 '회광반조(回光返照)' 하는 삶을 강조했다.

"회광반조를 나는 '항상 나를 돌이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추스르고 바른 뜻과 행동을 되새겨 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불교의 밑거름이 되어 후불탱화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각각 3만 명에 이르는 쾌거를 거뒀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김병조(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와 국악신동 송소희(오른쪽)양도 스님을 돕고 있다.

전법일기

은혜에 감사… '나홀로 약속' 3가지

잊지 못하는 인연의 은혜

인생이란 다양한 많은 인연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와 형제 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인연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만나고 만드는 각기 다양하고 특별한 인연들이 있다.

불교와 관련하여 가슴에 품은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불교학생회이다. 학생법회를 통해 스님의 법문을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학교의 다양한 환경의 많은 친구 및 선후배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출가의 마음을 다지게 된 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고교시절 불교학생회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출가의 인연을 맺은 수덕사이다. 총림대중의 원융살림을 통해서 중노릇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고 존경하는 은사스님과 좋은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덕사에서 얻은 초발심의 넘치는 신심과 기쁨이 평생의 출가생활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다.

세 번째는 해인사승가대학시절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달간 도시포교당 생활에 힘들어 할 때, 해인사승가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종정이며 방장이신 성철큰스님과 부방장 혜암스님 등 거목 같은 원로대덕 스님들께서 산중을 지키고 계셨고,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도량으로 그 대중의 엄연함과 원융살림으로 우리불교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다. 큰 대중 속에서 출가인의 거칠고 뾰족한 부분을 쪼고 갈아내는 탁마(琢磨)의 시간이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담하게 해낼 수 있는 뿌리 깊은 힘을 기르고 얻은 시간이었다. 오랜 샘물같이 쉼 없이 솟아나는 정진심과 원력을 품을 수 있었다.



그림 · 박구원

불교학생회 · 청소년 지도법사 소임
탁마도량 해인사 소임은 어려울 듯
출가본사 수덕사 후배지도로 보답

출가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에 대해 늘 은혜를 품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은혜갚음을 위해 속으로 마음먹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먼저 1년 정도는 반드시 내가 성장했던 불교학생회의 법회를 보아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덕사에서 느끼고 배웠던 초발심의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끝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2의 본사로 생각하는 해인사에서 소임을 살아주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수덕사에서는 4년여 소임을 보면서 200명에 가까운 행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과 염불의식을 가르쳐 계를 받게 하였다. 또 수덕사승가대학과 교구신도회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은혜는 보답하지 않았나 싶다. 해인사 소임은 은혜를 입은 스님들이 이미 본사주지의 연배를 넘어가면서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학생회 법사의 소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룰 때까지는 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것 같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꼭 법회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 영영 이 꿈을 이루지 못할까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근래 사찰의 학생법회와 청년법회가 급격하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년 전 광운대학교 학생회에 법회를 봐주었는데 한 학기가 지난 뒤에는 더 이상 법회를 볼 수가 없었다. 법회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종단의 이런저런 소임으로 법회에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언제고 해야 할 본분사는 법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과 초발심자에 대한 법회와 지도이다. 내가 받고 얻었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다 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요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룸텍(Rumtek) 사원의 '빛바랜' 희망

카르마파 룸텍사원 방문 희망 … 印 '신변과 안보' 이유로 거절

13년째 티베트 불교계의 차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인도 시킴(Shikkim) 주의 티베트사원의 사연이 21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돼, 17대 카르마파(17th Karmapa) 스님이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도된 사원은 시킴 주도(州都) 강톡(Gangtok)에서 남서쪽으로 24킬로미터 떨어진 룸텍(Rumtek) 사원으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카규파(Kagu sect)의 총본산이다. 카큐파의 총본산은 원래 중국 치하 티베트 소재 출푸(Tsurphu)사원이지만 달라이라마의 망명 이후 룸텍 사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는 카르마 예쉬(Karma Yesh) 스님은 "17대 카르마파 스님이 계시지 않은 이곳 룸텍사원은 '아버지 없는 집' 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룸텍사원의 강백으로 1975년 중국에서 인도로 망명했다.

비단 예쉬 스님 뿐만 아니다. 뉴욕타임즈는 "룸텍 사원 대중들과 이곳을 성지순례지로 삼은 티베트인 대부분 17세의 나이로 티베트 불교계 4대 종파 중의 하나인 카규파의 지도자로 선임돼 '부처의 삶을 실천하는 자' 로 불리는 오겐 틴레 도르제(Orgyen Trinley Dorje, 17대 카르마파)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 규또(Gyuto)사원에서 '난민지위' 로 머물러 있는 17대 카라마파 스님은 인도 정부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 를 이유로 시킴 주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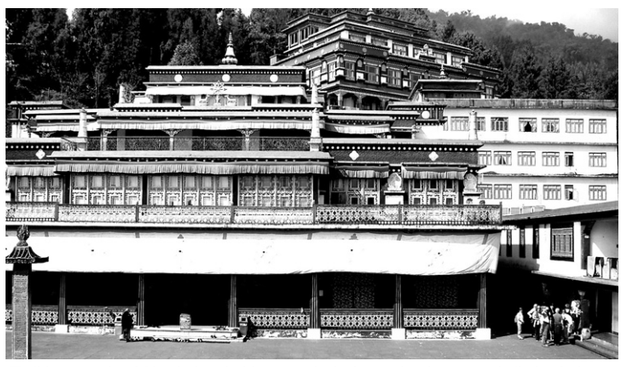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인도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카르마파 스님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일각에서는 카르마파 스님이 중국 스파이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카라마파 스님이 달라이라마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카르마파 스님이 다람살라를 떠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00년 1월초 15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한 카르마파 스님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이은 티베트 불교 서열 3위에 해당한다. 망명 이후 달라이라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카르마파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기대에 부응해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5월 중순 미국을 첫 방문해 티베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 지식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카라마파의 법회는 이메일을 통한 판매에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하는 입장권 2만여 장이 곧바로 매진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카르마파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서 인도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카르마파가 달라이라마를 이을 티베트 망명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중국 정부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하에서 티베트사회가 번영했다고 선전해왔지만 카르마파가 중국을 탈출하면서 그간의 선전이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난 데다 그 역시 반 중국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까르마 예쉬 스님은 "인도 정부와 시킴 주정부가 룸텍사원의 대중들과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많은 티베트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룸텍(Rumtek) 사원 전경. 시킴(Shikkim)의 수도 강톡(Gangtok)에서 남서쪽으로 24Km 거리에 소재한 이 사원은 1717년 건립됐다.


사원 안에 까지 인도 군인들이 사원 보호 명분으로 들어와 있다.

中언론 티베트인 분신 처음으로 공식 보도

중국이 처음으로 2012년 한해 동안 중국에서 티베트인 76명이 분신기도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24일(현지시간) '달라이 라마 세력의 분신 유혹의 내막'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가 2012년 9월 분신을 '가장 높은 수준의 비폭력 투쟁' 으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분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티베트 독립을 외치면서 분신한 티베트인들의 배후에 달라이 라마 세력이 있다고 비난해왔다.

티베트 망명 정부 등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신을 기도한 티베트인들은 99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티베트인 분신은 초기에 아바(阿壩〈土+覇〉)현 등 쓰촨성의 티베트인 거주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다 작년부터는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칭하이성, 간쑤성 등지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신을 막으려고 공안을 대거 배치해 주요 사찰과 거리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신자 가족에게 최저 생계비 등 경제 지원을 거두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5〉



불가촉천민들도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야

불교로의 개종결심과 대규모 개종식

암베드카르가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었다. 그가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선해주었던 그의 고교 교장선생님이 '부처님의 일생' 이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한 것이 그 계기였다. 혹자는 암베드카르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불교로의 개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종을 결심한 이후 암베드카르가 불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먼저 탐색했고 또한 거의 시크교로 개종을 할 뻔 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에 대한 당시 인도 불교계의 반응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미지근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인도에 거주하던 미얀마 승려 우 오타마는 개종선언에 대해 비난을 했다. 또한 스리랑카 승려 담마팔라가 조직한 불교단체인 대각회의 서기는 "힌두교를 떠나겠다는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결심이 유감스럽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은 지각있는 상위계급 힌두들에 의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개종을 하겠다면 불교로의 입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불교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 사회적 장애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승려 로카나타는 암베드카르가 불교로 개종하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했다. 1936년 첫 만남 이후 계속된 서신왕래에서 로카나타는 "당신 서재에 걸려있던 아름다운 부처님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제게 말했던 대로 불교는 세계에서 으뜸인 종교입니다."라고 썼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암베드카르는 이때 시크교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같은 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불가촉천민들이 개종을 한다면 시크교여야 한다.' 라고 쓰기도 했다.

암베드카르가 처음 공식석상에서 불교를 언급한 것은 개종선언이 있은 지 1년 후에 있었던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라는 유언에 대해 강조하면서 불가촉천민들도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할 것을 당부했다.

16세때 〈부처님의 일생〉 읽고 불교 만나
세계불교협회 참석해 불교의식 살펴
〈붓다와 그의 가르침〉 출판
1956년 10월 13일 개종식

그러나 암베드카르가 불교로의 개종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1940년대 들어서이다. 그는 이 때 락쉬미 나라수가 쓴 〈불교의 정수〉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이 책을 재출판했다. 그리고 불교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은 영국에 있던 불가촉천민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구해 읽기도 했다. 불교교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는 팔리어도 공부했다. 그리고 1946년에 세운 대학을 '싯다르타 컬리지' 라고 이름 짓고 40년대 후반부에는 사석에서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암베드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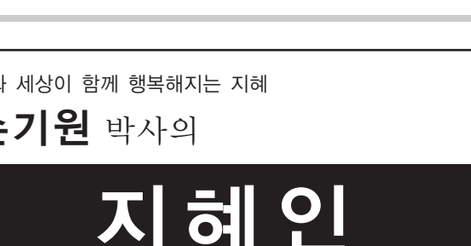
그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불교 개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1950년이었다. 그해 5월,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열고 그 행사에서 그는 한 기자에게 자신이 불교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있었던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아직 불교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년에 걸쳐 불교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잡지에도 불교가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불교에 끌렸으나 아직 불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달 그는 대각회에서 발행하는 '대각' 이라는 월간지에 '붓다와 그의 종교의 미래' 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예수, 무하마드, 크리슈나 등과 부처님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부처님은 다른 교주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결코 '신' 이라 칭한 적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가르침이 무결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낡은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하고 새로운 세상이 낡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종교뿐이다"라고 썼다.

같은 해 그는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세계불교협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방문은 회의 참석과 더불어 생활 속의 불교예식 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로 개종할 것을 호소하고 기존의 불교도들에게는 불가촉천민들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 해 9월에는 뭄바이에 있는 한 일본사찰을 방문해 불가촉천민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여생을 인도에서 불교를 재건하고 전파하는데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힌두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겠다는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그 새로운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밝히며 불교로의 개종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는 쉽고 단순한 불교교리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새롭게 불교로 개종할 불가촉천민들이 공부하기에는 불교경전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1951년 집필한 착수한 그는 1956년 〈붓다와 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리고 그해 있었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10월 13일에 개종식을 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가촉천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종을 선택했던 암베드카르가 그들을 위한 새로운 불교로 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 철학이 자유, 평등, 우애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 또한 자유,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부합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는 열린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합리적, 과학적이어야 하고 불교만이 이러한 요구에 충족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불가촉천민들을 고통받게 한 원인인 카스트 제도를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그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1급 · 2급 지도사 과정 모집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3~4월 60시간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복,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2013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 스님들께만 6개월간 명리학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 그동안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전국에서 6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초보자 위주로 교육하지만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명리학을 배우셨는데 통변에 자신 없는 스님께서는 강의 신청을 하셔서 교육기간동안 적중률이 뛰어난 통변비법을 배워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앞으로 사찰 운영하는데 신도들의 확보 문제에서 명리학의 활용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고, 학문인 동시에 살아온 삶들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사용되는 명리학은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삿된 학문이라고 거부하는 풍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세상 어는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상의 명리학 비법을 이 기회에 장착하십시오. 스님께 자신감을 드릴 것입니다.
장 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제2장소 : 울산강의실(경상도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일시 및 기간 : 2013년 3월초부터 6개월간
■ 수강료 : 6개월간 무료
■ 신 청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전신의 챠크라 열어드리고 숨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컬해야 숨고요 마음고요로
저절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쏙쏙 빠져나가는
완전웰빙 심신건강 예방 ,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숨차고, 헐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절을 잘못 하는 것
⊙ 장 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정 가 **20,000**원(1권)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 × 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70원 (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연꽃 봉축리본
판매가 18,000원 (100개)
• 개당 : 180원
• 분홍, 빨강, 노랑, 보라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 6,000원
※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칼라등지(8cm / 10.5cm)
30,000원 / 40,000원
진분홍,연분홍,빨강,하늘색,노랑색,흰색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8cm
▼10.5cm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바림등(10.5㎝)	@5,500원 (24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바림등(13㎝)	@11,000원 (12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장 만 월 등(국산)	200,000원 (1Box)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공단등(10.5㎝)	@5,500원 (24개이상)	• 등철사(100개)	6㎝/8㎝/10.5㎝/12㎝
• 공단등(13㎝)	@11,000원 (12개이상)		70,000원/75,000원/80,000원/85,000원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일반등(30㎝)	@80,000원		
• 공단·바림 칼라등(30㎝)	@9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0,000원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국산 LED전구
11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연잎(일반)/바림엽잎
5,000원/ 7,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 0515-8888-09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다라니 福 지갑

평생부자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백년의 궤적, 살아 있는 지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청빈한 삶과 서릿발 같은 수행으로 불교계는 물론, 대중들의 가슴에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40주년기념으로 2월 2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에서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는 '백년의 궤적, 살아있는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탄신부터 수행, 열반까지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사진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민회관서…2월 20일까지
사진 회화 유품 등 100여 점 전시

1층 전시장에서는 '탄신과 출가'의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성철 스님의 유물, 친필 등이 일대기 형식으로 전시된다. 성철 스님 부모님 사진, 스무 살 때 적은 서적 목록인 '이영주 서적기', 출가시절 사진,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첩 등이 전시된다.

또한 '일대기와 다비식'의 모습을 담은 10여분의 영상자료, 김호석 작가의 '그날의 화엄', 사리탑 등을 통한 '열반과 다비식'의 자료까지, 성철스님의 일생 궤적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2층 전시장에서는 주명덕 작가의 사진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어 생전의 성철 스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명덕 작가의 사진 19점, 김호석 작가의 그림 7점이 전시된다.

여기에 '발원문', '십이명', '납자십게', '공주규약' 등의 중요 친필자료들은 원문해석 자료를 함께 전시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민회관 측은 "김호석 작가의 그림 작품들은 기존의 성철 스님 기념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품이다. 또한 스님의 일대기뿐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라고 전했다. (051)630-5228

정혜숙 기자





성철 스님의 두루마기(사진 왼쪽)와 김호석 작가의 '그날의 화엄'

시대의 등불 되어준 〈선문촬요〉 집중 조명

부산MBC 특집 다큐 '마음 속 부처를 읽다'

〈선문촬요〉(禪門撮要)의 편찬 과정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부산 MBC 다큐멘터리 '선문촬요, 마음 속 부처를 읽다'는 〈선문촬요〉 인경 영인본의 제작과정과 시대별 〈선문촬요〉의 편찬기록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선문촬요…'는 지난 1여 년 간, 범어사가 〈선문촬요〉 목판본 중 소실된 일부를 복각(목판 복원)작업과 인경(목판인쇄)을 거쳐 재편찬하고 디지털화 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또한 1908년 구한 말 당시, 범어사에서 〈선문촬요〉를 개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밝힌다. 이후 〈선문촬요〉가 '선학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한글판 번역과 현토 작업에 힘쓴 스님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담당 PD 윤성준 씨는 "〈선문촬요〉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어록으로 한국 선문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서적이다. 구한 말, 범어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지난 100여 년 동안 범어사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이 책을 21세기에 새롭게 인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에 집중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된 〈선문촬요〉는 상·하 2권으로 편찬된 목판활자본이다. 이 서적은 조선 후기 경허 스님이 엮었다고 전해지는데, 상권은 1907년 청도 운문사에서 개간했고, 하권은 1908년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개간했다.

기존의 경전이 중국 스님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반면, 〈선문촬요〉의 하권은 지눌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편찬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시의 불교계가 한국 고유의 선불교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문촬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선문촬요〉 편찬 과정 기록
한국 선불교 성립에 기여
2월 2일 밤 11시 방영

다큐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한 〈선문촬요〉의 탄생과정과 이후의 편찬 과정을 따라간다. 1898년, 범어사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문을 일으키고자 선원을 열고 경허 스님을 모셨다. 이후 스님은 북쪽으로 떠나고 1908년, 제자들은 경허 스님의 이름으로 〈선문촬요〉를 개간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백용성 스님이 옥고를 치른 후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선문촬요〉를 한글로 번역하고 선의 대중화를 이룬다. 해방 이후 범어사의 동산 스님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세우기 위해 정화운동을 이끌어낸다.

동산 스님 입적 후, 제자인 설봉 스님은 1968년, 정화운동의 기치를 드높이고 선의 등불을 이어가고자 탄허·윤허 스님 등과 함께 우리말로 토를 단 〈선문촬요 현토본〉을 만든다.

신자현 작가는 "〈선문촬요〉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개간돼 왔다.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는 1900년 초 서구 열강의 침략과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한국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백용성 스님의 〈선문촬요〉는 일제강점기 이후 불교서적을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불교정화운동 이후, 설봉 스님의 〈선문촬요〉는 불교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계종의 확립에 기여했다"며 선문촬요가 불교사와 한국 역사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가 개간된 지 10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선 해방됐지만 각종 범죄와 공항장애, 자살 등 인간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선문촬요〉는 다시 한 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2012년 새롭게 인경된 〈선문촬요〉는 한국의 선불교가 지금껏 숱한 변화와 역경을 거치면서도 꿋꿋이 민중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허 스님의 선맥을 이어 21세기 〈선문촬요〉의 디지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범어사의 현재를 보여주며 다큐는 마무리 된다. 방송은 2월 2일 밤 11시 10분에 전파를 탄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산 MBC 다큐멘터리 '선문촬요, 마음 속 부처를 읽다'는 〈선문촬요〉 인경 영인본의 제작과정과 시대별 '선문촬요'의 편찬기록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사진제공=부산MBC

이응노미술관 기증작품 수장고 부족

그림 훼손 우려…예산확보 시급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연구하는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이 수장고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둔산대공원대전한밭수목원 내 이응노미술관 지하 1층에 약 36평 규모의 수장고는 800여 작품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재단 소장 작품이 1천200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들여올 예정이다.

그동안 작품을 기증해온 고암의 미망인 박인경 여사만해도 1만점 이상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여사는 최근에도 미공개 작품 등 고암의 대표적인 유작 664점을 기증했다.

이처럼 귀하게 들여온 작품들은 현재 수장고 부족으로 바닥에 놓여 있거나 액자에 넣어보지도 못한 채 받은 상태 그대로 종잇장처럼 쌓여 있다.

또 기존 수장고 구조가 폭 2~3m가 넘는 대형 작품은 보관할 수 없어 바로 옆 시립미술관의 공간을 빌려쓰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시작돼 두 달간 계속되는 특별전시가 끝나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액자에 넣었던 작품을 다시 꺼내야 할 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수장고 부족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고암 작품들의 셋방살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숙 기자

선화가 명상에세이 만나 치유를 말하다

이시형 박사의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출간 기념…김양수 화백 자연명상 그림 전시회

이시형 박사의 명상에세이집 출간을 기념한 김양수 화백의 자연명상 그림 전시회가 시가 1월 30일~2월 4일까지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시형 박사의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에 실린 김 화백의 선명상 그림을 비롯해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시형 박사가 몸으로 부딪힌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 명상에세이다.

책에는 대구 팔공산 산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 작은 아버지 집에 양자로 들어간 자신의 이야기 등이 실렸다. 또한 최근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이 되어 자연 속에서

토포하우스 2월 4일까지
명상 힐링 강연도 펼쳐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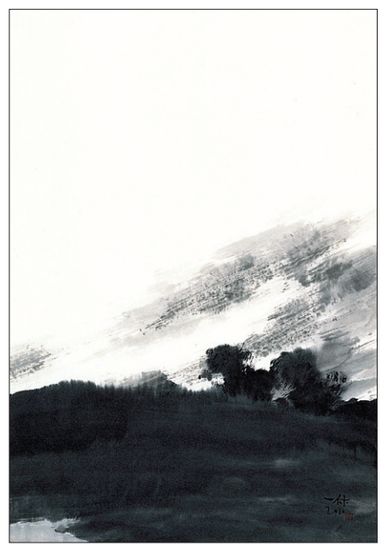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여기에 김양수 화백의 자연 명상 그림이 각 장(8장)마다 들어가 자연의 아름다움, 명상의 깊이를 더했다. 김 화백은 "이시형 화백이 많은 책을 냈지만 에세이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에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집필하다 보니 내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이번 전시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명상과 힐링에 대한 강연도 펼쳐진다.

△31일 우종민 교수의 '숲, 힐링이야기' △김효선 작가의 여행이야기 △김양수 화백의 그림 이야기 △이시형 박사의 명상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02)734-7555

정혜숙 기자



김양수 作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 큰스님 약력
지정 문화재 佛畵匠 기능보유자 (농-33호)
한양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준초상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상수상
사 대한민국 문화종합 예술대상
사 한양미협 초대대작 심사위원
국제미협 禪書畵展 대상
부산 미협 분과위원
국제미협 전서회 부회장 추천작가
국제미협 문화종합 예술대상
2005년 MBC 생방송큐 방영
2012년 불교TV 달마도 방영
(현)해운 달마정사 주지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유심문학토크는 박형준 시인을 초대해 시인의 시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심 문학토크 박형준 시인 초대

질주하는 이들에게 한번쯤 쉬어갈 의자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시가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시월간지 '유심'의 유심 문학토크가 1월 22일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달의 초대 손님은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시인'으로 알려진 박형준 시인이다. 김지녀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학토크에서는 기억 속에서 소재를 끌어내고 있는 박 시인의 시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출세를 하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소년은 검사나 판사가 되는 꿈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시 변두리에서 살며 사람들의 삶을 엿보던 소년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 저편으로 가라앉은 기억의 조각들은 시가 되었고 그는 '시인'이 되었다.

박 씨의 시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기억 그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고향 등에 대한 소재가 많다. 이런 서정적 내용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지만 시인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초현실주의자도 리얼리스트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의 시를 평가한다.

그는 "내 안에서 초현실주의든 리얼리즘이든 어느 한쪽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도달하지 못했다. 카프카의 〈변신〉은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삶이 그대로 설득력을 갖지 않나? 그렇게 극단으로 밀고 나가고 싶지만 자꾸 연민으로 빠지게 된다. 하지만 결국 기억과 상상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상상력에 기대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나의 시는 골동품 같은 곡선 느림은 빠름을 인식하게 해"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 오래된 듯한 시인의 시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준다. 이 시대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저도 새 것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요. 무궁화 열차가 있어야지 KTX가 주는 편리함을 알듯이 느린 것은 빠름을 인식해 주는 역할을 하죠. 저의 시는 골동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행위에 곡선을 주는 것,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혜숙 기자

설박 개인전 어떤 풍경展

송은아트큐브…2월 26일까지

설박 작가의 개인전 '어떤 풍경'이 2월 26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송은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그녀의 작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화선지에 먹을 묻혀 종이로 찍어낸 콜라주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설박 작가는 "좀 더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사용한 기법이다. 화선지를 겹겹이 찢어 먹을 묻혀 찍어내면 다양하게 번지는 효과가 있다. 세밀한 부분은 압축 목탄으로 정리를 해 작업한다"고 설명한다.


설박 作 '휘어진 풍경'

작가는 미황사 등 사찰 여행을 통해 많은 위안을 얻었고 한다. 설박 작가는 "아직은 막연하지만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절에 들러 참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전했다. (02)3448-0100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화생(蓮花化生)→만병화생(滿甁化生) ㊦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한다

꽃병을 만병이라는 용어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만병에서 변형된 꽃(영화시킨 꽃) 같은 것이나 현실에서 보는 꽃이 나오므로 사람들은 만병에서 꽃 같은 것만 나오는 줄 알 것이다. 만병에서는 꽃, 즉 통틀어 영기꽃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병에서는 용이나 여래나 여러 가지 영기문들, 더 나아가 만물이 생겨난다. 여태껏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항아리에서 여래가 나온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지극히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경전, 즉 〈법화경〉에 '蓮花化生'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량수경〉에는 '蓮花化生'이란 말과 함께 '自然化生'이란 말이 나온다. 이 '자연화생'이 기막힌 말인데 사람들은 그리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화화생'이란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은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화화생에 관하여도 진지하게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 다양한 영기화생의 도상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랴! 연꽃에서 여래나 보살이 나타나는 것을, '탄생'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화생(化生)'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화생이란 용어를 분명이 파악하려면 간단하지 않다. 단지 '홀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화생이라 한다'고만 흔히 말하고 있으니 화생의 참뜻을 알 수 없다. 매우 어렵지만, 화생이란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보기로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생명의 탄생방법을 불경(佛經)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등이다. 그런데 화생은 나머지와는 달리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홀연히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여래나 보살, 여신(女神) 등 신성한 존재가 탄생하는 경우에만 화생이란 말을 쓴다. 바로 연꽃에서 탄생하는 것을 '연화화생'이라 부른다. 그런데 연꽃에서 무엇이 어떻게 탄생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연꽃에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하여 영화시킨 다음에야 여래나 보살이나 신(神)들이 화생하는 것이다. 그 세계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세계이며 영적(靈的)인 세계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은 후에 아미타여래나 관음보살의 도움을 받아 아미타 서방세계의 연못에서 연꽃을 통하여 부처님 앞에서 '연화화생'한다고 말한 데서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누구나 쓰고 있지만,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탄생한다는 말은 어느 경전에서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형미술에서는 반드시 연꽃 형태에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해가며 영화된 연꽃, 즉 영기꽃에서 고귀한 존재가 화생하는 도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그러므로 바로 이 경전에 나오는 '연화화생'이란 말 때문에 연꽃이 영화된 까닭도 알 수 없었고, 그 밖에 '무한히 다양하게 전개하는 화생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경전의 용어가 화생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조각이나 회화에서는 여래나 보살 등은 반드시 연꽃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하는 광경'이라고 논문에서 써야 한다. 나 자신도 10년 전에는 연화화생의 의미를 확실히 몰라 그렇게 써왔었지만 그렇게 쓰면 틀린 말이다.


그림① 중국 금동불


그림② 중국 금동불 대좌 부분


그림③ 만병 채색 분석

그러면 연꽃이란 무엇인가? 연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경전에 수많이 등장하고, 조형미술에도 수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연꽃을 보고 불교를 떠올릴 만큼 불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바로 이 고정된 관념이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연꽃만 보이지 다른 꽃은 처다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연꽃만이 성스럽고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연꽃뿐만 아니라 모든 꽃은 아름답고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므로, '모든 꽃에서 여래나 보살이 탄생'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무한히 다양한 도상의 창조가 가능하다. 좀 더 꽃의 본질을 설명해보자. 아름다운 색이나 형태의 꽃잎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꽃에는 씨방이 있다는 것'이고 '씨방 안에는 무량한 씨앗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씨앗이 생명의 근원이어서 이 우주에서는 씨앗(식물)이나 씨알(동물)에 의하여 생명을 영원히 생성하여 지구나 우주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씨앗이나 씨알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생명의 근원'을 우리는 도(道)라고 부르고 태극(太極)이라 부르고 영기(靈氣)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씨앗이나 씨알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도(道), 태극, 영기 등이 생명의 근원이어서 거기에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여래나 보살과 신(神) 등은 도(道)나 태극, 이(理) 등,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무(無)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유(有)를 영기문(靈氣文)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원래 이름이 없어서 나 자신이 만든 이름이고 용어이므로 여러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용어를 써도 좋다. 그동안 영기문이라고 하는 무량한 조형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지만, 이름도 없고 이름이 있다손 치더라도 틀린 용어가 대부분이다. 즉 '영기-영기문-영기화생'이라는 '영기화생론'이라는 사상을 차차 정립하여 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써온 용어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영기화생이란, 영기를 조형화한 영기문에서 여래가 화생하는 것'을 뜻한다. 무량한 영기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병이며, '만병에서 화생하는 것을 만병화생'이라고 역시 용어를 새로 만든 것이다. '항아리나 병에서 솟아오르는 영기문 전체 모양을 나는 만병이라 부른다.'

바로 그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하는 조각품을 중국에서 가장 오랜 간다라 양식의 조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간다라 양식을 따른 4세기 초의 금동불로 유명한 초기 중국 불상이다.(그림①) 높이는 33센티. 어깨에서 돋아나는 긴 돌기 같은 것들은 불꽃무늬라고 흔히 말하지만 여래의 몸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다. 선정인(禪定印)을 취한 여래는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지 않고 사자좌(獅子座)에 앉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 박물관'에서 나는 여러 번 그 작품을 손에 들고 조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좌에 표현된 만병이 물론 눈에 띌 리 없었다.(그림②) 나이 70세에 이르러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 만병을 선으로 그려보니 연꽃 같으면서 연꽃이 아닌 영기꽃이 작은 둥근 항아리에서 사방으로 솟아올라 퍼지고 있다. 추상적영기문을 이렇게 구상적인 연꽃처럼 표현하되 자세히 보면 연꽃이 아니다. 인간이 창조한 영기꽃이다. 그 만병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③) 실제 연꽃에서는 아무 것도 탄생하지 않지만, 영화시킨 영기꽃에서는 만물이 화생한다. 연화화생이 아니고 만병화생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국 내 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 · 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김성우 공저
신국판 · 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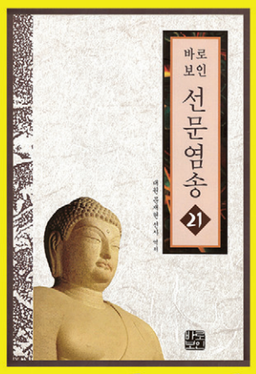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우리 민족의 일생의례에 미친 불교의 영향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구미래 지음
민족사 펴냄
2만8천원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의례'를 치르며 산다. 책은 우리 민족이 수용한 불교와 우리민족의 일생의례, 즉 불교적 영향력 속에서 치르는 일생의례에 대한 연구다. 책은 종교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측면에서의 일생의례가 아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속화된 불교, 민간에서 적극 수용한 불교를 통해 출생, 혼례, 회갑례, 상례, 제례의 다섯 가지 주제의 의례양상을 다뤘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시점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의례는 삶이 맞이한 변화를 주변에 알리고 주변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의식을 말한다. 삶이 맞이한 변화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말하며, 그 의식은 현실적, 초월적 존재들로부터 인정과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며, 그 의식의 필요성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민감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려되는 삿된 기운의 침범이나 자신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렇듯 일생의례는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초월적 존재를 향한 기원 또한 절실해지게 마련이어서 민간의 일생의례에 미쳐온 불교의 영향력은 깊고 넓다.

의례란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한 상징적 대처 방식이기 때문에, 일생의례를 보면 삶의 각 단계를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 일생의례를 다룸에 있어 출생, 성인, 혼인, 노인, 죽음 등을 불교에서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례 속에서 그러한 관점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담은 그림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성인(聖人)의 출생을 드러내는 다양한 전조(前兆)가 나타나 있다.

'의례'는 삶의 변화 알리는 것
불교 영향 크지만 관심 · 연구 적어
속설, 담론, 종교적 행위 등 포괄적 연구
불교 일생의례의 지침서 기대

책은 "실제 한국불교의 일생의례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불교의례는 주로 사후에 집중되어 있고, 출생이나 혼인처럼 삶의 각 단계에서 치를 수 있는 의례기반은 빈약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교 일생의례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역사적 검토는 물론 총체적, 체계적 접근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규범화된 의례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생의례가 민간의 역동적 삶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일생의례는 불교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자생적 신앙 방식에 의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교 일생의례의 내용은 보다 넓고 다채로워질 것이며, 민간의 삶으로 눈을 돌렸을 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다양한 양상을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생의례에 대한 연구는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주 대상이었다. 간혹 출생을 포함하긴 했지만, 환갑을 맞이하여 노인이 되는 시기를 다룬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일생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과 그 동안의 일생의례가 〈주자가례〉의 관혼상제에 얽매어 있었던 영향도 크다.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출생으로부터 혼례, 회갑례, 상례, 제례의 다섯 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러한 다섯 가지 단계를 각 장에서 교리적 접근과 부처님의 일생, 역사적 접근, 의례적 접근 등을 시도했다. 기존의 경전과 관련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민속지(民俗誌), 생활문물, 구술채록 등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자료를 분석해 불교 일생의례의 다면적인 모습을 새롭게 발굴 분석했다. 특히 생활불교의 전승 현장인 사하촌을 조사하여 불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일생의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교 일생의례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의례가 탄생했는지 밝히기 위해 의례 자체만이 아닌 의례를 둘러싼 속설, 담론, 작품 및 종교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연구했다.

특히 의례에 대한 분석은 물론 역사적, 민속적 양상을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노력했다. 이를테면 출생의 단계에서 미륵을 마을로 내려오게 만든 기자신앙의 양상, 제석의 다양한 변용과 수용, 마을을 찾는 탁발승을 둘러싼 출생담론 등은 민속불교의 역동성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들이다. 혼인과 성인(成人)의 단계에서는 혼인이 '물리적, 사회적 어른 되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실존적 어른 되기'임을 부처님의 행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가 왕성했던 고려시대와 이후 갈등 관계에 있던 조선시대의 상황을 통해 불교의 일생의례에 대한 수용과 배척의 다면적 역사를 다뤘다. 특히 상례에서는 '임종-빈소-장지-탈상'에 이르기까지 의례 단계별로 새로운 접근을 하고 탈상의 례로서 사십구재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했으며, 제례의 경우 고려시대에 불교에서 유교보다 먼저 기제사를 활발하게 치렀던 기록 등을 분석했다.

책은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일생의례를 인식함으로써 오늘날에 맞는 불교 일생의례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삶이 부르는 노래



내 안에 나
정운 지음
불교문예 펴냄
8천원

걷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중얼거리는 주력소리에
호랑나비도
풀잎도
돌부리도
꽃잎도
함께 반기며 인사한다.

'운동하시네요'
오늘은 한 번만 나오셨네요.
오늘은 두 번만 나오셨네요.
오늘은 세 번 나오셨나요.
지나는 길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짓 위에
신중님이 따로 없고
경책하는 도반이 따로 없는
일깨움 속에
나는
매일 매일 그 길을 걷는다. 〈포행길〉

지난 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선도, 보호활동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오랜 세월 청소년포교에 진력해온 정운 스님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한서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스님은 세원사 주지와 보령시 청소년연합회 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 누구보다 고단한 삶의 행로를 택해 살면서도 그 길 뒤편에서는 시를 품고 살았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라는 척박한 땅을 딛고 선 이순(耳順)의 스님은 그 땅에서 시를 틔우며 12년 만에 시인 '정운'을 다시 불러냈다.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성찰들을 구도자의 언어로 형상화했다.

"詩를 품고 살아가는 일은 / 내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질서이다. / 그 질서는 꿋꿋하게 자리 지키면서 / 나를 긍정스럽게, 고통스럽게, 참담하게 / 나무라기도, 부지런하게도 만들었던 단 하나의 내속에 / 나의 의식이었다. 〈중략〉 빙자한 언어가 사리(舍利)되어 알알이 빛난다 하여 / 농축된 내 심장의 박동소리는 꽃소리가 될 수 있을까마는 / 육십에 부르는 노래는 /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 나의 삶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문처럼 시작하는 첫 시에서 그는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에서 시인은 시에게 고행의 길을 묻는다. "무수한 생각으로 / 만들어낸 / 언어들을 / 함축한 일상의 영혼이 / '쉼'의 문을 열 때 / 나는 말 할 수 있으리라 / 네가 아프니까 / 나도 아프다고 - 시에게 고행을 묻다" 그에겐 아직 고단한 길이 남아 있음이다. 내 안의 나를 찾아 나선 시 69편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 ~ 1/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5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6	깨달음	법륜	정토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9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깨달으려 하지 말고 깨달음을 꺼내 쓰면 '1분 해탈'

아기 고슴도치의 깨달음

글 · 그림=형지 김재윤 | 참글세상 펴냄 | 1만3천원



'가슴을 열어주는 힐링 그림책', 책의 부제다. '장병들에게 띄우는 글'로 군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불교상담개발원 '마음산책'으로 삶에 지친 사람에게 힐링을 선사했던 형지 김재윤 법사의 글 모음이다.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마음껏 울어라. 네가 울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 울어라."

온 몸에 돋아난 가시로 인해 왕따를 당해 괴로워하는 아기고슴도치에게 엄마 고슴도치는 말한다. 실컷 울어버리라고. 아기 고슴도치는 엄마고슴도치의 품에 안겨 실컷 우는 것으로 위로받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왜 나보고 울라고 해? 다른 때는 항상 울지 마라, 울지 마라하면서?"

"이제 너도 어른이 돼 가고 있지 않니?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따듯한 위로 뒤엔 '견딤'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네 몸의 가시는 엄마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엄마 몸의 가시는 할머니의 선물이고, 우린 이렇게 대대로 선물을 받고 태어난다. 이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면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살피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란다. 평생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니. 날카로운 가시 덕분에 우린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있게 된 거야. 다른 이들은 비록 우리처럼 가시로 찌르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리한 가시로 다른 이들을 찌르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단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아기 고슴도치에게 이야기한다.

"가시에 찔리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만 아프지만, 더 아픈 가시는 말로 찌르는 것이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은 함부로 말을 하여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아픔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는 이들도 많단다. 너 역시 다른 아이들이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엉엉 울고 들어온 거잖니? 그러니 결코 너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거친 행동을 하지 마라. 항상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편안한 말, 따뜻한 말만 해야 해.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했구나.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네 몸에 있는 가시지, 너 자신이 아니란다. 그러니 더 큰 용기를 갖거라."

책은 저자가 그 동안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16편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은 저자가 삶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 즉 깨달음이다. 아주 쉬운 깨달음, 누구나 가지고 있고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들이다. 저자는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더 이상 깨달으려 하지 말고 잠시만이라도 깨달음을 꺼내 쓰자.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순간, 즉각 해탈이다. 1분 해탈이다. 24시간 부처가 되려 하기보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1분 부처가 되자. 전 인생이 깨달음으로 변해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것도 좋으나, 다만 1분이라도 욕망을 멈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린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부처가 되려는 것도 욕망이니 작은 부처부터 시작하자."며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지면 시드나니,
떵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마음건강 선사하는 불교적 처방전 제시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 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지음
박은영 옮김
북돋움 펴냄
1만3천원

인간은 누구나가 모두 고통 받는다. 그래서 고통의 종류도 다양하다. 망가진 가정, 잘못된 양육, 어린시절의 트라우마,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등등. 그러면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늘 자신 안에서부터 온다. 현대 심리학 역시 불행을 주관적 감정으로 규정하지만, 이론에 따라 그 원인을 다르게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망가진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저자는 듣기 좋은 위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가 잠깐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는 있어도 큰 효과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리상담사와 의사는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불교는 문제의 본질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 자신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로 불교서 찾았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소개하는 것 같다. 이 책은 바로 티베트 스님인 라마 조파와 라마 예세 밑에서 불교를 수련한 후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저자의 자기 고백이자 반성의 결과물이다.

카루나 케이턴은 티베트 불교를 오랫동안 수련해온 심리치료사이다. 그는 20년 넘게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왔으며, 불교 교리와 심리학 이론을 접목한 불교심리학의 보편적인 원리를 단순하고 명확한 말로 풀어내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에 헌신하고 있다. 카루나는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인 라마 조파 린포체와 고(2) 라마 툽텐 예셰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다. 35년도 더 전에 에버그린 주립대학의 아시아학 전공 대학생이었던 젊은 시절, 해외 파견 프로그램으로 네팔에 간 것을 계기로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네팔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 후 카루나는 라마 예셰의 요청으로 다시 네팔로 돌아가 코판 사원에서 수도승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거기서 서양인 대상의 수련 프로그램을 창설했다. 그렇게 네팔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라마 조파 린포체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서양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지식을 접목하여 불교 심리학을 널리 알리라고 권한다. 그 길로 미국으로 돌아온 카루나는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스탠퍼드 대학교 어린이건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팔로알토에 소재한 정신건강연구소에서도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흔한 치유의 말 대신, 마음의 건강을 선사하는 진짜 처방전을 알려준다.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 이론을 접목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법을 소개한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자신의 심리상담사이자 영적 멘토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다.

불교 가르침에 접근한 마음 치료
매 장 끝에 마음 훈련법 10가지 소개
매일 10분간 훈련하면 산란심 없어져

쉽게 고장 나고 오작동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려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매 장의 끝에 하루 10분씩 짬을 내 어느 곳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훈련법 10가지를 소개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 세기 △아이가 초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 구경하기 △신호대기때마다 대상 관찰하기 △한시간 동안 내가 느낀 모든 것 메모하기 △눈앞의 현실 '해체하기' △'정신근육' 단련하기 △여유로운 시간에 '나는 어디서 왔나?' 물어보기 △잠들기전 하루의 내 모습에 이름표 붙이기 △사소한 것을 좇는 마음 깨닫기 △측은지심 기르기 등이다.

꽉 막힌 출퇴근길이나 하루 일과 시작 전 자신의 방에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훈련들이다. 이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오작동이 만들어 낸 산란한 감정, '나'에 대한 가짜 이미지, '좋고 나쁨'에 대한 편견을 쓸어내고, 그 자리를 평정심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그제야 우리는 치유가 필요 없는 상태에 도달하며, 세상의 진짜 문제를 향해 나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저자 카루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문제에 함몰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요히 마음을 바라봄으로써 바깥세상의 소란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저자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하지만 본질을 건드린다. 문제는 문제라고 이름 붙여질 때지, 그 이름 붙이기는 언제나 산란해진 마음이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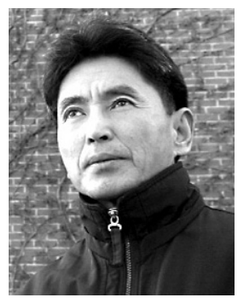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을 새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고 고요히 진실과 대면할 수 있는 간편한 명상 법들을 소개해 바로 오늘부터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0년만에 7번째 시집 …육십 인생 총체적 보고서

래여애반다라

이성복 지음 | 문학과 지성사 펴냄 | 8천원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무엇을 헤아리는지 모르면서/끊는 납물 같은 웃음을 눈 속에 감추고서/한낮 땡볕 아스팔트 위를/뿔없는 소처럼 걸으며/또 길에서 너를 닮은 구름을 주웠다 네가 잃어버린줄 알면서/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떤 누구인지/어디서 헤어져서, 어쨌길래 다시 못 만나는지를" (래여애반다라 중에서)

〈아, 입이 없는 것들〉이후 10년 만에, 이성복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래여애반다라〉가 출간되었다. 언뜻 불교 용어 같기도 한 이 낯선 제목 '래여애반다라(來如哀反多羅)'는 신라 시대 향가 〈풍요, 공덕가〉의 한 구절로, 이 여섯 글자 이두는 '오다, 서럽더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이두문자를 의역하면 "이곳에 와서, 같아지려 하다가, 슬픔을 맞보고, 맞서 대들다가, 많은 일을 겪고, 비단처럼 펼쳐지다"로 풀이된다.

이는 신라 백성들이 불상을 빚기 위해 쉼 없이 흙을 나르면서, 그 공덕으로 세상살이의 고됨과 서러움을 위안하고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다.

문학평론가 김현씨는 "이번 시집 처음에 나오는 "뜻 없고 서러운 길 위의 윷말처럼, 비린내 하나 없던 물결"의 맑은 '죽지랑의 못'과 맨 마지막에 소개된 "어렵고 막막하던 시절" 바라봄만으로 큰 위안이 되었던 한 그루 '기파랑의 나무'를 각각 입구와 출구로 삼은 것을 보면 이성복 시인의 시세계 연구에 키 포인트"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시집의 도입부와 끝부분을 먼저 읽다보면 가볍게 들어가 무겁게 나오도록 배치된 이 세계의 출구 밖에 서서 평생을 아파한 시인의 허무와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뼈와 거죽이 따로 덜그럭거리는 참으로 깊은 이 시상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는 다만 미소 짓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시인이 말했듯이 진실 앞에 섰을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투명한 기쁨의 미소일 것이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했던 대학을 뒤로하고, 지난해 이순(耳順)을 맞은 이 시인은 모두 82편의 시를 6개장에 나눠 실은 시집 〈래여애반다라〉에 육십 인생과 지금껏 발표한 여섯 권 시집의 자취를 고루 담아내려 했다.

두 편의 시 사이에 배치된 6개 장은 래·여·애·반·다·라로 각각 읽을 수 있다. 6개의 리듬은 이번 시집이 이성복의 일곱번째 시집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에 나온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이후 〈남해 금산〉 〈그 여름의 끝〉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아, 입이 없는 것들〉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은 이성복 시의 생애를 건너온 6개의 마디였고, 그 모두는 이번 시집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지난 시집들은 아버지, 어머니, 당신, 가족(아내와 아이), 말 못하는 사물들 그리고 시 창작연습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집은 그 전부의 운명과 존재 조건에 대한 해설을 시도했다고 할까요. 내 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입술' '구름' '식탁' '신문' 같은 사물에 대한 성찰(1부)이 이어지더니 '시에 대한 각서' '눈에 대한 각서' '생에 대한 각서'처럼 삶의 구조와 진실을 일깨우는 노래(2부)를 만나게 된다. 삶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인 사적 체험 속에서 밝혀내는 시어들의 성찬(3~5부)에 이어 마지막 장은 주제에 해당하는 '오다, 서럽더라'와 '래여애반다라' 연작시들이 펼쳐진다. 여기에 오면 삶을 초연하게 대하는 시적 자세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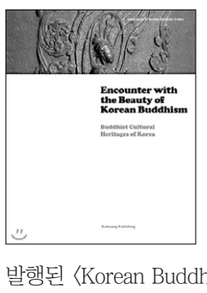
"이곳에 와서(來), 같아지려 하다가(如), 슬픔을 보고(哀), 맞서 대들다가(反), 많은 일을 겪고(多), 비단처럼 펼쳐지고야 마는 것(羅)"이 바로 우리들 삶임을,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온 누구나 예외 없이 생-사-성-식의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여 우리는 절망과 서러움으로 점철된 생의 '불가능성'을 거듭 되씹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노라"고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시종 담담하고 또 허허롭다.

김주일 기자

신앙적 측면서 바라본 한국불교 성보문화재

Encounter with the Beauty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지음 | 불광 펴냄 | 무료배포



이 책은 지난 2009년 발행된 〈Korean Buddhism〉, 2011년 발행된 〈6 Ways to the Heart〉에 이은 3부작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09년 발행된 〈Korean Buddhism〉은 한국 불교를 알고자 하는 영미권 독자들에게 한국 불교 개론서 역할을 해왔고, 2011년 발행된 〈6 Ways to the Heart〉는 간화선, 염불, 간경 등 한국 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뤘다.

이번에 발행된 〈Encounter with the Beauty of Korean Buddhism〉은 개론과 수행에 이어 한국 불교의 '문화' 그중에서도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형식을 중심으로 소개하던 기존의 양식사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시대나 특징별 배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불교 문화재에 대한 한국 불교의 신앙'이라는 발간 취지에 맞춰 각각 돌, 나무, 종이 등으로 크게 나눠 그것이 각각 어떤 염원이나 신앙을 안고 '성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1장 「돌에 새겨진 신앙」에는 석굴암을 필두로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 등의 불상과,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화엄사 석등과 월랑선사 탑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장 「붓으로 그린 신앙」에서는 세계인이 감탄해 마지않는다는 고려불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뿐 아니라 일본에 넘어간 고려불화의 도판까지 싣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고려불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3장 「나무에 새겨진 신앙」에는 부석사 무량수전, 금산사 미륵전 등 나무 하나하나에 간직되어 있는 한국 불교의 숨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영미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과 기도 혹은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1,700년 한국 불교가 만들고 간직해온 '문화재' 그리고 '아름다움'의 견지에서 또 다른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있다.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은 물론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려 밀려드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고려불화 대전에 전시되었던 고려불화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옛 사찰의 해우소나 석축까지, 사찰 안팎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양식사가 아닌 신앙의 측면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전작이 그러했듯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필자를 선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거쳐 완성되었다.

국문 원고 집필에는 전문 작가(윤금선)가 참여했고 미술사 전공자(심주완-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의 감수를 거쳤으며 한국 불교 관련 문헌을 영역하던 전문가(박희원)가 영문으로 다시 완성하고, 영문 원고에 대해 불교와 미술사 전문가(지철 스님, 박준)가 감수를 마쳤다.

특히 이 책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 소재 고려불화를 비롯해 모두 200여 컷에 이르는 문화재 도판과 설명이 담겨 있어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도 더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현등사 역사와 특징

현등사

활불교문화단 펴냄 | 가산 선우, 홍대한 공저
1만8천원



활불교 문화단에서 펴내는 한국의 명찰 시리즈 13번째, 현등사 편이다.

현등사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지눌스님이 등나무 넝쿨 아래 옥등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 여기서 등(燈)은 어둠을 밝히는 조명 기구인 동시에 부처님 말씀을 상징한다. 불가에서 심법 전수를 전지 전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저자인 선우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 대표적인 지장극락도량으로 불리는 현등사의 유물 하나하나, 각각의 유적마다 새겨진 성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등사 가는 길 초입의 금강 운악산과 주변 자연환경, 도시 가평을 둘러본 후 현등사의 역사와 유래, 특징,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현등사의 불교문화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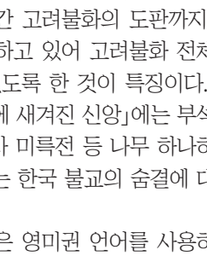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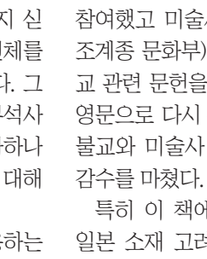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② 승려 도성출입금지 해제

친일불교 뿌리내린 불행한 사건인가


승려 도성 출입 금지 해제 전후의 남대문 전경 사진. 승려 도성 금지 해제는 근대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승려 도성 출입 금지 해제는 일본 승려 사노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게 일반론이지만 조선불교의 자체 노력이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돼고 있다.

1895년(고종 32) 3월 29일 승려들이 도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금령(禁令)을 해제하였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이 때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 1842~1896)과 내무대신 박영효(朴泳孝, 1861~1839)가 "승도(僧徒)들이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금령(禁令)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아뢰자 고종이 윤허(允許)했다는 것이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 의하면 일본 일련종(日蓮宗)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날 고종의 윤허는 그 후 한 두 차례 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한국근대불교사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동인(李東仁)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개화운동 등을 사례로 들면서 근대불교의 시작을 좀 더 이른 시기로 끌어올리려는 학자의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일본불교나 불교개혁론과의 관계 등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이전 시기의 불교양상과 확연히 다른 본격적인 근대불교의 시작은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해제로부터 상정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조선은 건국 이후 승려 수를 줄이고, 사원전과 노비를 몰수하는 불교정책이 진행되면서 세종대부터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령이 내려져 조선중기인 현종 대는 도성 안의 사찰을 헐어 서당(書堂)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영조 대에는 사찰에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지 못하도록 엄단했으며, 정조 대에는 승려의 도성출입을 엄금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과 탄압의 과정에서 불교계는 유구한 세월 동안 발전시켜 온 사상과 신앙, 교단의 체계화 등이 급진적으로 쇠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왕들의 표면적인 배불정책(排佛政策)과는 달리 16세기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었다. 아울러 당시까지만 해도 도성 내에는 적지 않은 사찰들이 명맥을 유지하며 존재하였고, 왕실과 사대부가의 신행(信行)사례가 보이고 있어 승려의 도성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이 다시 시작되고 난후인 1896년 7월 도성출입금지 해제를 주선했던 사노 젠레이(佐野前勵)는 도성해금을 축하하는 대법회를 마련하였다. 즉, 황제폐하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중흥과 유신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대법회였다. 5월 5일 도성 안 원동의 북일영(北一營, 현재 동숭동 서울대 병원자리)에서 개최한 한일승려합동무차대법회(韓日僧侶合同無遮大法會)는 당시 북한산 승대장(僧大將)이었던 중흥사 주지 권재형(權在衡)과 남한산 승대장 이세익(李世益)을 비롯하여 화계사(華溪寺)·백련사(白蓮寺)·용주사(龍珠寺) 및 금강산 등에서 300여 명의 승려들이 운집했다. 아울러 외부(外部)·학부(學部)·농상공부(農商工部) 대신과 김홍집 총리대신의 대리 등 20여 명의 조정 고관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능화는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선의 승려는 수백 년 동안 문외한(門外漢)의 신세였는데, 오늘에 와서 비로소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로써 불일(佛日)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용주사의 취허(就墟) 스님은 사노 젠레이에게 감사장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극히 비천하여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기를 지금까지 5백여 년이라 항상 울적하였습니다. 다행히 교린(交隣)이 이루어져 대존사 각하께서 이 만리타국에 오시어 널리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니 본국의 승도로 하여금 5백 년래의 억울함을 쾌히 풀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왕경(王京)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실로 이 나라의 한 승려로서 감사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성에 들어가면서 감히 소승의 얕은 정성으로나마 배례하나이다.

취허 스님은 도성에 500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해 항상 울적했는데, 이제부터 왕경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 해제와 이후 불교계의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려 있다. 박경훈은 "한국 불교계 안에 친일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으며, 최병헌 역시 "결과적으로 한국불교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환영받았던 해제조치가 한국 불교발전의 계기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친일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본불교로의 예속화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건이었다"라고 하였다. 정광호와 김광식 역시 "해금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 일본승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불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규정지었다.

日 일련종 사노의 건의로
출금 해제 윤허는 일반론
여과 안된 일본 식민사관
'자체적 노력 결과' 반론도
"당시 시대상을 냉정히 읽자"

반면 다른 시각도 있었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편찬한 〈조계종사〉 근현대편은 고종의 해금에 관한 윤허가 있기 이전인 1894년 6월 이미 갑오경장(甲午更張)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군국기무처가 개혁안으로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해제를 포함시켰음을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의 내용을 근거로 전제하였다. 이 책은 "해금(解禁)은 19세기 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박희승 역시 해금은 김홍집과 박영효가 건의했고, 고종이 결정을 내렸음을 전제로 "그런데 왜 이 조치를 일본 승려가 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일본 식민주의 역사가 다카하시의 〈이조불교(李朝佛教)〉의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 때문"이라고 해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론을 비판하였다. 참고로 다카하시 토오루의 의견을 보자

사노가 경성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조선불교의 생기가 이미 다하여 승려에게 종승(宗乘)도 없고, 종지(宗旨)의 신조도 없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일본불교의 종지에로 개종케 하고, 일련종으로써 조선불교계를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고, 이때에 조선 승려를 위한 파천황(破天荒)의 은혜를 베풀어 이로써 저들을 일본불교로 유인하는 계기를 삼고자 꾀하였다. 그리하여 기재(奇才) 사노가 붙든 것은 실로 조선 승려에 대한 입성해금(入城解禁)의 수행이다.

주목할 부분은 조선불교의 생기가 다해 조선의 승려들에게는 종승도, 종지도 없다고 한 것이다. 박희승은 이밖에 해금의 최종 결정권자가 고종이었고, 1894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제와 금지가 반복되어 1895년 3월의 조치만 따로 보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며, 조선 승려들의 자주적인 노력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 온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노가 5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해금을 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해제가 일본인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 한국불교가 굴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해제 자체는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부정론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사노 젠레이의 해금에 대한 건의는 사실이고, 다카하시의 당시 조선 승려가 종승과 종지가 없다는 지적 또한 사실에 가깝다.

필자는 몇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취허 스님이 500년 동안 도성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왕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조선 승려의 5백년의 억울함을 풀게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능화가 무차법회를 관람하다가 들은 "조선의 승려는 수백 년 동안 문외한(門外漢)의 신세였는데, 오늘에 와서 비로소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이다. 돋보기로 실상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노에게 감사장을 증정한 일을 두고 취허 스님을 '속 모르고 사노에게 감사장을 준 스님'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조선에 온지 한 달도 안 된 사노가 해금을 해결한 것을 두고 너무나 잘못된 해석으로 몰아 갈 수 있을까.

조선왕조 전 시기 동안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필 수 있다면, 그리고 해금이 있었던 당시 조선의 국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해제조치가 "한국불교 발전의 계기가 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일본불교로의 예속화의 단서를 연 불행한 사건"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일본은 이미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거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착각하지 말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당시 조선 불교는 곳간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나가야 했다. 역사는 흔히들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분석하고 살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으로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제1기
한국불교 전통의식 (범음범패) 학인 모집
1 강의 내용
1) 기초반 : 3개월
– 종성 · 향수해례 · 사성례 · 천수경 · 행선축원 · 사시불공
– 요령 · 목탁 다루는 법.
2) 중급반 : 9개월
– 49재 및 천도재 · 각종 시식 등
– 태징 ·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3) 고급반 : 6개월
– 바라(천수 · 사다라니 외) ·
– 작법(도량게 · 다게)
4) 연구반 : 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개강일시 : 2013년 3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5시)
3 접수일자 : 수시 접수
4 모집인원 : 10명
5 회 비 : 월 10만원 / 3개월분 선납 / 교재비 3만원 별도.
6 대 상 : 스님 · 포교사 및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등.
7 연 락 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615-3 불지사 梵音佛教大學
★ 지도) 승범 · 원광 / H·P 010-9368-0209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2013년 신입학인 모집
참 불자의 요람, 참 좋은 우리절 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정진을 함께 할 신입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 정 규 반
교육기간 : 1년 2학기과정(2013년 3월~12월)
입학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
수강일자 : 매주 화 목요일 19:30~21:30(주2회 2시간)
교육과목 : 불교입문, 석가모니 생애, 불교문화, 천수경, 대승불교, 한국불교사, 예불문의 이해 등
수 강 료 : 20만원(교재비 별도)
접수기간 : 2013.1.1~2.28일까지 졸업후에는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 행 반 (붇다의 수행법 : 위빠사다-사띠수행)
대 상 : 20세이상 성인 모집인원 : 30명
수 강 료 : 15만원
교육기간 : 2013년 3월~7월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9시) 총 14강좌 +주말집중프로그램 2회
교육과정 : 1회 100분(이론30분 수행 60분)
주말집중프로그램 : 1박2일 18시간이면 집중수행, 묵언, 발우공양, 오후 불식 본 과정을 마치면 불교와 SATI수행을 이해하고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출수 있습니다.
■ 경 전 반 (천수경과 불교의식)
대 상 : 20세 이상 성인 모집인원 : 30명
수 강 료 : 15만원
교육기간 : 2013년 3월~7일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9시) 총 14강좌
교육과정 : 천수경 강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습의 본 과정을 마치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의식 집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063)236-6633 http://cafe.daum.net/urijel/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85-1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입보리행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및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분들께선 많은연락바랍니다
* 또한암자에서 참선수행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염불CD판매

〈 우리말 예불1집 〉
한문예불을 우리말로 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용스님의 우리말 예불
〈정토선음악염불〉
극락세계 염불방법을 통해 쉽게 염불삼매를 성취하는 선용스님의 수행용 염불
구입처 : 전국불교용품점
010-8108-0715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한국무용 배우실 분

아직도 법당에 보살들을 세우시렵니까? 이제 직접 스님들께서 천도의식을 진행하십시오
살풀이, 승무, 극락무, 지전무 등등 스님에 한하여 수강해 드립니다
(부산 보성암)
보성스님 010-8510-0108

운봉사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출가자 및 초보부전 (비구니) 모집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음
3년 공부 후
소임부여
010-6429-50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천년고찰 고성 운흥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전국 지사장 모집

살아수
지마생명공학(주)
1. 쇼핑몰 관리및 홍보
2. 시/군/구 대리점장 모집권 부여
3. 무보증금,무담보,무투자,투잡가
4. 전국 시도별 각1명씩 모집
문의 : 053)768-9532~3 쇼핑몰 : www.살아수.com

불교노인병원 한의사 구합니다

(경남, 60세 이상)
010-5579-04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부전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절 운영이나 보살님 절도 좋습니다.
(50대 비구)
010-4668-1284

경자생 비구 사찰 및 법당운영 소임 원함

사주명리 명상치유등의 방편력 보유
010-4876-1042
성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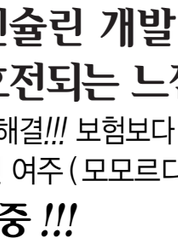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보시금은 형편에 맡기고 조계종 정법으로 모든 불공과 법문을 지극정성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단 초하루, 지장재일은 제외. 7일전에 전화 주십시오.
010-8459-1472

대한불교(실천)조계종 선운사 포교원에서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명산명찰로 산신기도 순례를 합니다.
출발 : 7호선 면목역 3번출구 07시 (7일전에 전화예약, 회비 2만원)
02) 433-0718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수행하면서 계실 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0-4901-4925

천년고찰 곡성 관음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61)362-4433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 절 염 · 통 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 뇨 · 고 혈 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 대리점 모집 중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밤엔
부엉이처럼 깨어 있어라. 깨달음을 얻기에 더없이 좋은 밤이기 때문이다
- 장로게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의왕
- 법당 : 50
- 요사 : 60
- 대지 : 1000
- 종각,가액 8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700
- 가액 : 15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 23평
- 요사 : 80평
- 부지 : 19,000
- 가액 : 9억

- 위치 : 경기포천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30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010-6505-8004

주 택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40평
- 목재 황토 주택 뒤는 산
- 앞 수백리 전망 혐오시설 없음
- 양도가액 : 1억 3,000만원

010-6460-13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창원시 어창구 도계동 407-13
- 3층의 2층
- 평수 50평, 방2개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55)238-91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 북정동
- 평수 약 50평
- 방3, 부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716-1032

토굴암자명당

- 위치: 지리산 악양면
- 양 계곡의 물이 합수하고 암반있는 수려한 명당
- 약 500여평
- 가액: 5천만원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서구
- 법당 약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칠성,신중탱화
- 깨끗하고 조용한 산자락 사찰
- 약간의 텃밭도 있음
- 가액: 6천만원

010-5346-413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가 큰대로변
- 3층중 2층 38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2000만원)
- 불,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

010-4880-1533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 평수 : 38평 2층 건물중
- 1층: 공양간 및 방 3칸, 2층 법당
- 도시가스 완비, 전철과 시장 1~2분거리, 시설비 없음
- 가액: 1억 8천 5백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578-49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시 원평 2동
- 중앙시장 입구
- 평수 20평정도
- 방2, 법당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2418-622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주시 중앙시장입구
- 4층건물 3층
- 80평. 시설완벽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5분
- 소임으로 급양도
- 1000-35-1300

010-52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서구
- 법당 약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칠성,신중탱화
- 깨끗하고 조용한 산자락 사찰
- 약간의 텃밭도 있음
- 가액: 6천만원

010-5346-413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한옥 독채 대지 약 80평(월세)
- 방 6개, 화장실 2개, 욕실, 거실, 법당
- 아파트식 올 수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 신중탱화, 산신각
- 에어컨80평, 용등3대, 온풍기80평 외 시설완비
- 보증금 4천만원 / 월 85만원
- 시설비 8,000만원

010-4719-538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산내면
- 소재지에서 5분거리
- 문복산 자락 명당절터, 총 4만평 (임야 3만8천8백, 농지1천2백평)
- 개울물이 철철흐르는 산허리 명당절터
- 전기배설시설은 마을에서 200미터 거리임
- 가액:2억2천만원

010-4856-26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능)
- 삼존불,영단, 탱화(산신,신중,용왕)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2542-22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칠성시장 사거리
- 3층건물중3층 총88평
- 법당60평,석가모니불,문수,지장, 관세음보현보살
- 신중,산신,영가단, 시설은 회상급(즉시법회가능)
- 방2, 친견실, 공양간,화장실별도
- 5만평사찰불사 인연으로 급히양도코저함
- 가액: 보증금1천 월90만원 (시설비별도절충)

010-4912-337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1억8천만원 (대출 5천5백만원) 실양도가 1억 2천5백

010-4910-6358
010-8612-6914

사 찰 안 내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2리 부근
- 터 100평, 건평 요사채 25평,
- 창고7평 , 법당 15평, 산신각 2평 주차장 있음
- 터는 1년 문중텃세 5만원
- 가액: 4천 5백만원

010-3810-5908

사 찰 (급) 안 내

- 부산 상서 오봉산
- 주위 신도시확정(인구 5만이상유치)
- 대지 380평
- 건물: 요사채 및 법당(기와40평)
- 기타시설완벽, 부처님 4불 모두 동불
- 주차시설 20대
- 양도가 6억 5천만원

010-2864-195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1억8천만원 (대출 5천5백만원) 실양도가 1억 2천5백

010-4910-6358
010-8612-691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1)506-403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한옥 독채 대지 약 80평(월세)
- 방 6개, 화장실 2개, 욕실, 거실, 법당
- 아파트식 올 수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법당1, 산신각, 용궁 산신, 나한전
- 방3, 공양간, 화장실3
- 전세 1억
- 양도가 3억

02)939-4339
010-9299-978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가 큰대로변
- 3층중 2층 38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2000만원)
- 불,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

010-4880-1533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한옥 독채 대지 약 80평(월세)
- 방 6개, 화장실 2개, 욕실, 거실, 법당
- 아파트식 올 수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 : 11억3천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50평
- 양도 : 26억2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氣가 있는 월출산 명당터
- 부지 16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문간채
- 산신각, 화장실, 공양간, 창고, 주차장
- 가액: 3억 (답사후 조정가능)
- 주지스님 지병으로 급 안내

010-3640-1494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4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월 10만원, 방사 2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 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 독채: 임법당(18평), 방 4개, 창고 1
- 80년 이상된 사찰 아미타불(동불석자)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영단탱화
- 인등 100등 이상, 1년등 150등 이상
- 산신각, 용왕당, 법당집기 일체 • CCTV 4대, 에어컨 3대 (지하철, 시내버스 1분거리) 현재 법회중(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2천 5백만원 (절충가능)
- 보증금 천오백만원 월 35만원, 불사 관계로 양도

010-3783-360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서면
- 건물30평,법당,요사채
- 삼존불,각단탱화
- 아득한동네 뒤편야산
- 가액: 2천5백만원(시설비포함)

010-5386-1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수성구 요지
- 지하철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
- 포교, 상담, 교육 최적지

010-9690-827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 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2.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3. 대출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 면제
4.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5.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항상 호흡에 집중…마음 알아 차려요”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2〉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한국명상원장 묘원 법사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변해가는 남편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톨릭 신자였던 제가 마음공부를 시작한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미술치료로 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제 내면의 명상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된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에요. 이제는 정치를 하는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항상 호흡에 집중하라고 남편에게 권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때그때 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을 갖게 됐죠”

정경순(50) 씨는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에서 4년째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한국명상원의 위빠사나 수행이다.

1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국명상원은 30여명의 대중들로 꽉 찼다. 수요일 저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서 여유를 즐길 이 시간에 이들이 택한 것은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법문-경행-좌선-면담으로 나눠진다.

한국 명상원은 일주일에 총 네 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사념처 수행-수요반 법념처 수행-목요일 종일반(좌선)-마음알아차리는 수행(심념처) 등으로 구분되지만 모두가 위빠사나 수행을 바탕으로 한다. 각 반의 구별은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택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율 보시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국명상원은 앞에 상좌불교가 붙는다. 이는 미얀마에서 7년간 수행을 한 묘원 법사가 위빠사나를 통해 2500년 전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묘원 법사는 “처음 위빠사나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호기심이 생겼다. 그렇게 미얀마로 건너가 4년은 호흡 위주의 신념처 공부를 했고 이후 쉐우민 스승을 만나면서 3년 동안 마음 수행을 배웠다. 이를 통해 대상을 아는 것,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됐다”고 전한다.

순수 위빠사나 마음공부
법문 경행 좌선 면담 진행
인과 아는 지혜 · 관조의 힘 길러
가평에 집중 수행처 건립

그래서 한국명상원은 사념처 수행을 바탕으로 마음을 보는 위빠사나 수행을 강조한다. 묘원 법사는 “한국 명상원은 순수 위빠사나만 수행한다. 자비관 등 대중적인 수행을 가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순수하게 마음을 보는 위빠사나만을 강조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관조의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좋고 나쁨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전한다.


한국 명상원은 순수 위빠사나로 2500년 전 부처님 법을 만나는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묘원 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그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을 객관화해 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곧 위빠사나 수행이고 마음공부입니다”

한국명상원의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있는 마음 보기’ - ‘일어난 마음 보기’ - ‘하려는 마음 보기’ -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 이렇게 네 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특히, ‘하려는 마음’은 마음이 하려는 의도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묘원 법사는 “모든 행동은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행위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묘원 법사는 몸과 마음이 벗어난 불교는 없다고 설명을 한다. 그는 “느낌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고 아는 마음을 보는 것, 또 아는 마음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열반”이라고 전한다.

현재 한국명상원은 경기도 가평에 집중 수행처를 건립하고 있다. 묘원 법사는 “이곳에서는 단체도 집중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수행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생활 수행을, 가평에서는 수행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양로원, 빠알리어 대학원도 건립해 2500년전 부처님의 법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만족 인정하면 행복 얻을 수 있죠”

위빠사나 수행자 장은실 씨



장은실〈사진〉 씨는 한국명상원에서 2년째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다. 3년간 간화선을 했지만 답답함을 풀 길이 없었던 그에게 위빠사나는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는 불만족스럽고 불만스러운 자신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하면서 바라는 것이 많아졌어요. 답답하니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나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날 신에게 의지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간화선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불교와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화두를 들고 자리에 앉아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이후 장 씨는 묘원 법사의 CD 법문을 듣게 된다. “처음부터 법사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생소했죠. 하지만 꾸준히 틀어놓고 듣다보니 제가 가진 의문이 풀리게 됐어요. 그렇게 수행을 시작했죠”

그녀는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제가 늘 특별한 사람이기를 갈구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고 불만족스러웠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제는 수행을 하면서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만족스럽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함박 웃음을 띠는 그녀는 오늘도 수행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 존 카밧진 박사의 MBSR 프로그램 ㊦

보편적인 자기 치유 능력 계발…“붓다 처방 위대”

지난 923호에서는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함께 존 카밧진 (Jon Kabat-Zinn) 박사에 대한 소개도 다뤘다.

카밧진 박사는 MBSR에서 사용하는 마음챙김의 불교적 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마음챙김이 오로지 ‘동양적’이거나 ‘불교적’ 인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임을 강조한다.

카밧진 박사는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불광출판사 刊)에서 “마음챙김은 온전히 주의력과 자각에 관한 것이며 이 둘은 우리 모두에 내재된 인간의 능력이다. 붓다 자신도 ‘불교도’가 아니었으며 ‘불교’라는 용어조차 대부분 예수회 수사였던 18세기 유럽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유일의 MBSR 인증지도자인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은 “카밧진 박사가 마음챙김 수행과 관련해 종교적, 문화적 색깔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참가자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내적 자원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고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MBSR 프로그램의 구조

CFM(Center for Mindfulness)에서는 기타 마음챙김 치료법에 비해 MBSR 지도자의 마음챙김 명상 경험을 매우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MBSR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의료, 심리, 교육 등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위빠사나 또는 선(禪) 전통의 명상을 5년 이상 수행한 경력과 적어도 수차례의 집중수행 참여하고 다양한 지도자 과정 이수 및 MBSR지도경험있는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MBSR은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목적 보다는 교육을 통한 자가치유(self-healing) 적 요소가 강하다.

MBSR의 총 수업회수는 종일수업을 포함해 9회다. 주당 수업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되며 한 명의 MBSR지도자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종결까지 수업을 일관되게 진행한다. 8회기 중 전반부에는 마음챙김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중반기에 들어 마음챙김 능력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교육과 연계시키며, 후반부로 갈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중반기 이후 자애명상, 산 명상 같은 집중명상이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MBSR참가자들은 집에서 하루 45분, 일주일에 6일, 8주 동안 과제를 행하도록 돼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호흡 알아차림,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소리 알아차림, 생각 알아차림, 감정 알아차림을 거쳐 마지막으로 선택 없는 알아차림까지 단계적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선택없는’이라는 뜻은 편향 없는 알아차림, 좋아함(likes) 이나 싫어함(dislikes)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MBSR 프로그램

1회기 프로그램	주제: 자기 속에 내재돼 있는 내재적 자원에 대한 재인식 실습: 마음챙김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건포도 명상, 바디스캔
2회기 프로그램	주제: 지각과 창조적 대응하기 실습: 바디 스캔, 호흡 알아차리기
3회기 프로그램	주제: 현재 이순간의 기쁨 실습: 마음챙김 요가, 정좌명상, 유쾌한 일 알아차리기
4회기 프로그램	주제: 빠져 있는 것 알아차리기와 빠져 나오기 실습: 마음챙겨 걷기, 불쾌한 일 알아차리기
5회기 프로그램	주제: 스트레스 자동반응과 마음챙김 자율반응 실습: 정좌 명상(생각 알아차리기)
6회기 프로그램	주제: 대인관계 어려움 마음챙김 실습: 선택 없는 알아차림(choiceless awareness)
집중수련	총 7시간 동안 6주간 배운 것 총 복습 산[山], 자애명상, 쾌속 보행 등
7회기 프로그램	주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함 함양 실습: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일상 속의 관대함
8회기 프로그램	주제: 8주 수업은 평생 지속됨 실습: 바디스캔 등 총 복습. 자신의 명상 스타일 알기, 앞으로의 실천계획 세우기, 일상생활 알아차림 계속하기 위한 강구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MBSR 연구소(cafe.daum.net/mbsrkorea)가 MBSR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을 진행하며 기업 · 학교 · 병원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간화선 세계화…보편성과 과학적 접근성 결합돼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간화선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선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을 전달해 전 세계인이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서양인에게는 한국의 간화선이 어렵고 잘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간화선이 존 카밧진 박사와 MBSR 프로그램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안희영 소장은 MBSR이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 인식론이 합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내면의 주관을 보는 진리의 법(法, Dharma)과 삼인칭적인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는 과학의 결합이다. 여기서 카밧진 박사가 말하는 다르마(Dharma, 法)는 불법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진리의 다르마(Universal Dharma)를 말한다.

안 소장은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등 세계의 유명한 서구 명상가들이 아시아의 수행법인 위빠사나 등을 배우고 돌아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다”며 “그들은 기독교 전통이 뿌리 박혀 있는 곳에서 보편적 다르마를 과학이라는 전통과 조화시켜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MBSR이 전세계에 널리 퍼졌던 이유를 수많은 과학적 검증과 임상실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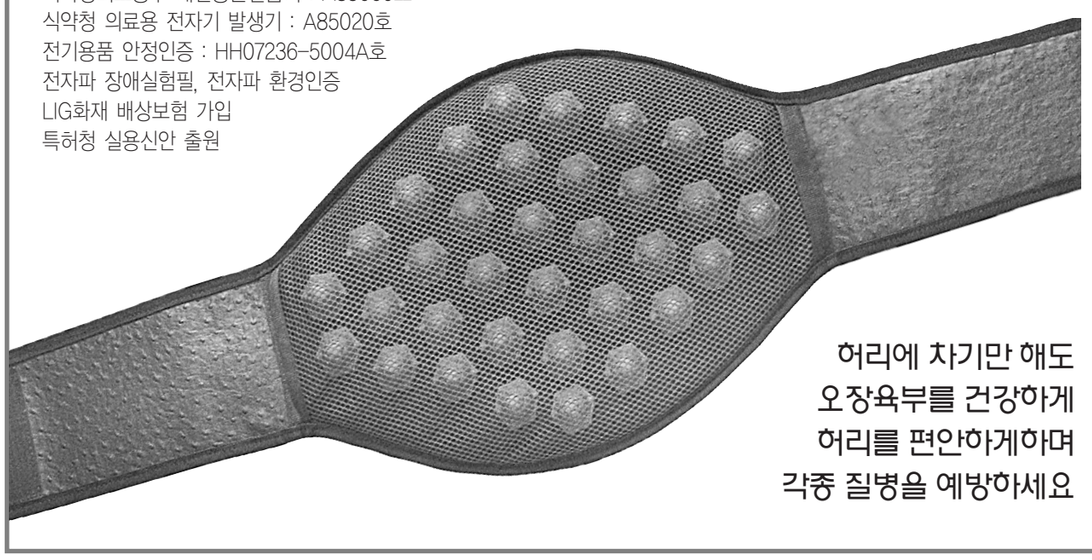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

안 소장은 “서양인들은 명상을 깨달음 같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MBSR 수업을 하니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삶속에서 확인하면서 신뢰감이 늘어가는 것”고 설명했다.

카밧진 박사의 불교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을 불교신자라기보다는 불교명상 수련자라고 생각한다. 카밧진 박사에게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왕도이며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마음의 특성이다. 이 전통을 가장 선명하게 이어온 것이 불교이지만, 마음챙김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불교도가 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마음챙김은 주의력에 관한 인간 마음의 보편적 기능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법칙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것처럼 평등하게 적용된다. 카밧진 박사는 인류의 질병을 진단하고 정신적명료성과 안녕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제시한 붓다를 위대한 치유자이자 혁명가로 보고 있다.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자발적으로 밥을 지은 여인의 공덕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5)

석 달 동안 '말 먹이'를 드신 부처님

수라연국에 바라문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기달이며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다. 어느날, 수다타에게 물었다.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셨는데 모든 천인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달은 곧 부처님을 뵙고 말씀드렸다.

"원컨대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저의 석 달 동안의 하좌(夏坐 · 하안거)를 돌보아주소서."

지극하게 청하는지라 부처님께서는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청을 받아들여 그 나라로 가셨다. 성읍은 지저분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걸식도 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우선 정사조차 없었다. 성의 북쪽 숲에 자리를 잡으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마을은 가난하며 좁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가 많으니 걸식하기 어렵겠구나. 여기서 안거하려는 사람은 머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뜻대로 하여라."

6일이 지나자 모든 비구들은 걸식하기 어려웠다. 이때 목련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울염부라는 나무가 있으니, 저는 그 열매를 가져다 대중들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울단왈에는 저절로 나는 멥쌀이 있고, 도리천에서는 수타미를 먹습니다. 제가 모두 가져다 대중들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달콤한 지미도 있으니, 저는 한 손으로는 모든 중생들을 높이 들고, 한 손으로는 땅을 뒤집어서 모든 비구들이 스스로 취하여 먹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은 목련의 신통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말 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말 치는 사람이 말했다.

"몹시 굶주려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 떨어졌고 드릴 것은 말 먹이는 보리밖에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비구들은 그러기로 했다. 말은 5백 마리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날마다 두 되씩을 먹었기에 각각 반씩을 나누어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별히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은 하루에 네 말을 먹었다. 그 말의 먹이 반을 나누어 부처님께 바쳤다. 아난이 부처님 몫과 자기 몫을 받아 마을로 가지고 들어가 한 여인 앞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말했다.

"내가 여기에 인연이 있어 여기에 안거하고 있으니, 그대가 밥을 좀 지어 주겠소?"

"일이 많아서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곁에서 어느 여인이 듣고서 말했다.

"주십시오. 제가 밥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착하고 지혜가 있으며 계율을 지닌 비구도 말했다.

"저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바로 밥을 지어 아난에게 주었다. 아난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은지라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왕족이시라 언제나 좋은 음식만 잡수셨었다. 이 밥은 너무 거칠고 험해서 몸에 좋지 않겠구나."며 밥을 물에 말아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난은 슬퍼서 목이 메었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먹어라."

아난이 "예" 대답하고 받아 먹어보니 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실로 이것은 모든 천인(天人)들이 맛을 더해 준 것이었다. 아난은 한량없이 기뻤다. 두 여인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의 여인이 만약 밥을 지었다면 마땅히 전륜성왕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을 것이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밥을 지은 사람은 그 복이 한량없으리라."

이때 여러 나라의 아주 귀한 거사와 큰 부자 살박 등이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말 먹이는 보리를 잡수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공양거리와 갖가지 좋은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자자(自恣) 7일 전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에 들어가서 아기달에게 안거가 끝났으므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말하여라."

왕은 그때까지도 부처님이 말의 보리를 잡수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왕의 청을 받으신 날부터 이 나라에 계십니다."

"누군가 공양을 드렸습니까?"

"부처님은 석 달 동안 말이 먹는 보리를 드셨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청하고도 부처님을 공양에 소홀했음을 참회하며 부처님께 다시 머물러 주실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떠난다고 하자 왕은 석 달치 공양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공양거리를 길 가운데 흘뿌려 놓고 가시는 길에 밟고라도 지나가시라고 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공양이란 먹어야 하는 것이다. 발로 밟다니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그 동안 하지 못한 공양을 생각해 한꺼번에 공양함으로 참회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왕의 공양을 백성들을 위해 베풀고 설법하시니,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안(法眼)을 얻었다. (〈중본기경〉 하권과 〈십송미사색률〉에도 나온다.)



삽화 · 강병호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⑤



'우리'로 사는 법 알아야 참불자

내가 나를 사랑 할 수 있는 삶

나는 늘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곤 한다.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늘 하는 일이지만 거울 앞에 앉아 나를 살펴본다. 굳이 대중의 선방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시간에서 나를 들여다보며 지나온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살아온 부족한 삶 속에는 옥구슬 같은 삶이 있다. 그건 부처님과의 만남이니 그야말로 보배로운 삶이었다고 믿는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으로 은혜로운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본시 착한 성품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겠지만,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실천하는 삶도 보람 있는 삶일 것이다. 문득 문득 부처님 회상에서 배우고 느낀, 소중한 가르침이나 법문을 되새길 때 마다 나의 욕심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향기로움을 느껴 볼 때가 있다.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 자신부터 바르게 닦는 일이 먼저일

다른 사람 사랑하려면
'나' 부터 바르게 닦아야
"기복아닌 정법으로 부처님 닮자"

것이다. 그래야만 남에게도 부처님의 향기를 바로 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청소를 하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다보면 하수구가 고장날 때가 있다. 상수도가 고장나면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하수구가 고장나면 악취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취하기보다 버리는 일, 아니 베푸는 연습으로 향기로워 져야 하리라. "내게 이익이 없는 사람과 길동무도 하지 말라 차라리 혼자서 갈 지라도."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이익이란 무슨말이겠는가? 쓸데없는 말로서 아무런 도움도 배울 것도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는 것이다.

한사람과의 만남이라도 내게 새로운 희망이며 활력이 되는 충고와 격려라면 좋은 만남일 것이다. 우리가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늘 정진한다면 만나는 만남이 모두 지혜를 나누는 만남일 것이고, 지혜의 거름이 되어 만나면 만날수록 법향(法香)에 젖어 그 '만남'이 즐거우리라. 작은 마음이 하나하나 모이면 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멀쩡히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영정만으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로 사는 법을 알아야 진정한 불자가 아닐까 싶다. 모든 음식과 물자가 풍성한 이 시절, 절마다 각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로 넘치고 있다. 선방의 스님들이나 보살들도 정진하는 이때에 우리들도 기복을 위한 나만의 기도보다는 참회진언이라도 부지런히 외면서 지나온 갈등이나 원망 다 버리고 맑고 향기롭게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천을 보아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내가 내게 만족해야 바깥 경계가 바로 보이는 법이니 나를 다스려 나를 행복하게 살아야 하리라. 소림의 법우님들! 우리가 그동안 불법을 닦아 온 까닭은 부처님을 닮으려는 서원에서 비롯됐음이니, 함께 우상이 아닌 실상으로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천년의 행복을 안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바라보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2003년 3월부터 맡아 해오던 신도회장직을 그만두었다.

그토록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기에 거절 아니, 사양을 했지만 그대로 회장이란 당치않은 자리를 맡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부족하기만한 나를 항상 채워주시는 큰스님과 대중 스님들의 격려, 신도님들의 사랑으로 5년 6개월의 회장직을 잘 치르고 오늘에야 수석 부회장이던 이성균님께 그 자리를 물려드리게 되었다.

그동안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더라면 참으로 행복했을 도량인데 스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한 회장으로서 죄송할 뿐이다. 그래서였을까. 축가를 부르는데 왜 목이 메고 가슴속으로 눈물이 차오르는지.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만큼이나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도량이 되기를.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드렸다. 너무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나간 회장 임기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과분한 복이었다. 어찌 그 큰 자리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싶다. 인사말을 할 때나 회지의 글을 읽을 때나 너무나 밝은 얼굴과 똑똑한 눈빛으로 들어주시던 그 고마움을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부처님 앞에만 서면 소림사 청심장학회와 소림사 신도님들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축원 했지만 오늘부터 더욱 단단한 원력으로 기도 드릴 것이다. '감사합니다'를 가슴에 새기면서 지난 6년을 값진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노보살님들이 꼭 안아주셨던 따뜻함과 젊은 아우님들이 아쉬워 눈물 글썽이던 그 고마움을 부처님께 고할 때,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흘렀다. 분명 아쉬움보다 후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 두겠다고 떼를 쓴 것도 죄송스럽고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던 것 모두가 가슴에 남는다. 믿고 맡겨 주셨던 스님들 그리고 소림의 신도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두 손 모은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빙의, 최면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 생생하게 담아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북갤러리
Tel : 02)761-7005 / Fax : 02)761-7995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 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학생 심리 상담
3. 빙의 퇴마, 원인모른 병, 정신이상, 환시, 환청
4.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011-772-4606 / 031-842-8023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염주굵기 25mm
₩ 65,00

B 타입
염주굵기 16mm
₩ 55,000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2인용
1인용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대행 스님

어떠한 문제든 근본에 놓고 슬기롭게 웃을 수 있어야

도량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해 여러분이 춥고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대로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모두가 아마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의 길로 이끌어 나감에 있어 어떠한 거든지 걸림 없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생활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교재라고 했습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이유가 어딨느냐. 사람이 살면서 내 주인공의 줄을…, 이건 근본이기 때문에 움죽거리진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의 줄을 잡고 그 언덕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천야만야한 산을 타는데 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본래 우리들은 제각기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이걸 떠나서 다,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불성은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공(空)했다는 걸 알아야죠. 내 전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로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한 개체가 '나'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나만 없다면. 그래서 '나의 나무는 나의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줄타기할 때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게 하지 않고,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만 찾든지, 모든 것을 잘하라는 둥 믿으라는 둥 이렇게만 자꾸 나간다면 자기는 그 언덕 위의 맛을 못 보고 항상 심부름꾼 노릇만 해야 되겠죠. 자기 부처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그냥 심부름꾼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 공한 줄 알고,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왜냐.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공했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래서 부처란 얘기죠.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내 몸뚱이가 살아 있어도 체가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세울 게 없는데, 또 본래 있으므로 찾을 게 없는데, 체가 없는 나가 물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알고 간다면요, 죽을 리가 없죠. 불에 들어가도 뜨거워서 타 죽을 일 없죠. 지옥고에 빠진다 하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오히려 건지죠. 이러한 거를 살아생전에 다 알아야 돌아가셔도 제 길을 자유대로 찾을 수가 있죠.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아니면 그냥 보살로서 행해 나갈 수도 있고, 상세계의 부처님 도량에, 한 도량에 한마음으로써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시쳇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듣고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죠. 그것은 전체 한울, 한 도량에서 인가를 받는다, 또는 그런 원력이 그대로 주어진다, 지위가 그냥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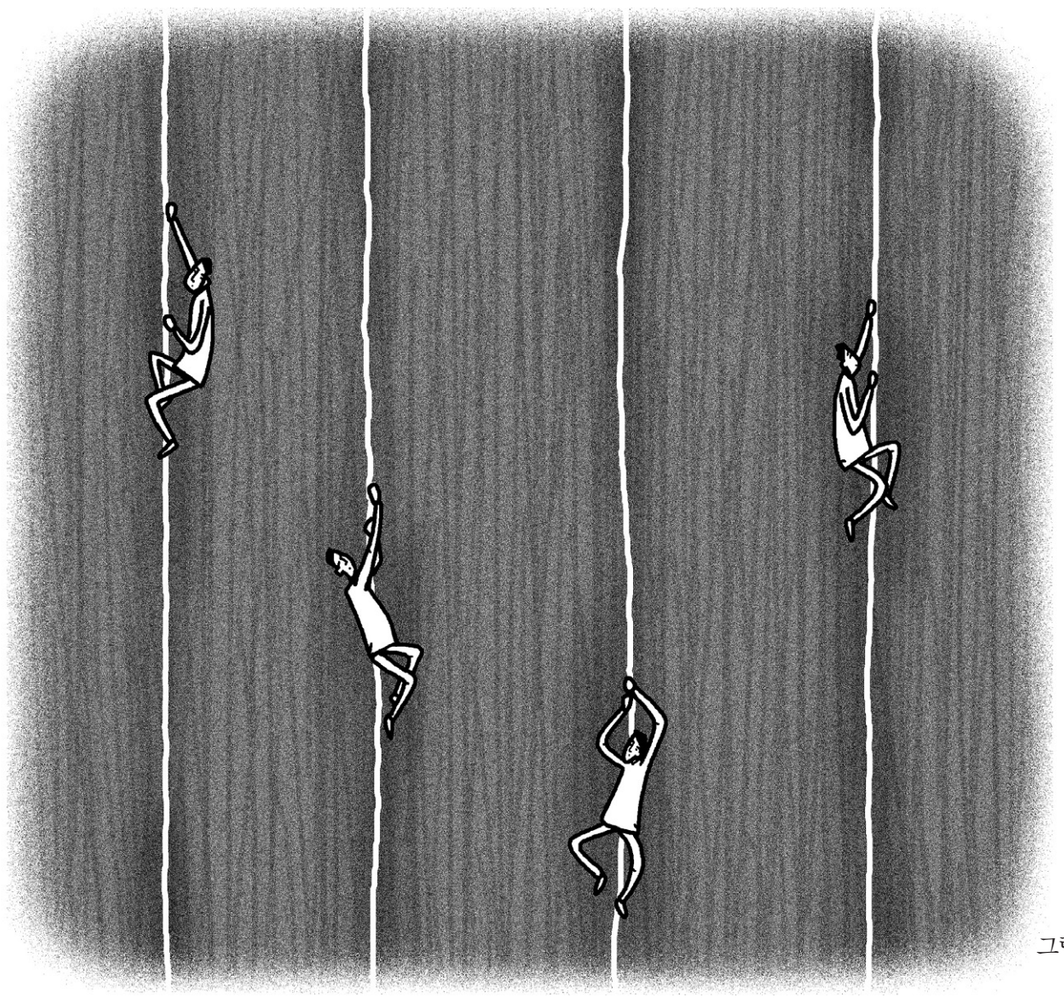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다면 외려 지옥고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환상을 보면 전부 그냥 무서우니까요. 자기가 체가 없는 줄도 모르고 관습, 욕심, 착, 이런 거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옥고도 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첫 단계에 지옥고를 건너지 못하면 두번째 단계에는 빠져 죽을까 봐 강을 못 건넌다 이겁니다. 세번째 가서는, 지금 이 허공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불은 뜨겁지 않은 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체가 없는 거를 생각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발동하면 뜨거운 불기둥을 넘어가질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 언덕'이라고 그랬죠? '피안의 언덕'이래도 되고요. '저 언덕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 이건 참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못하지. 여기서는 정말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예요. 모르는 게 도라니까요.

그래서 저 언덕이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일거수일투족 그 줄을 잡고 간다. 옆에서 아무리 별소릴 다 해도 그냥 둘이 아니게 그대로, 진리대로 붙들고 간다. 거기서 에너지를 배출하는 거니까, 어떠한 것으로 화해서 바꿔져 돌아가든지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다 이 줄이 말해 주는구나.' 하곤 그냥 좇아가야죠. 그런데 그거를 좇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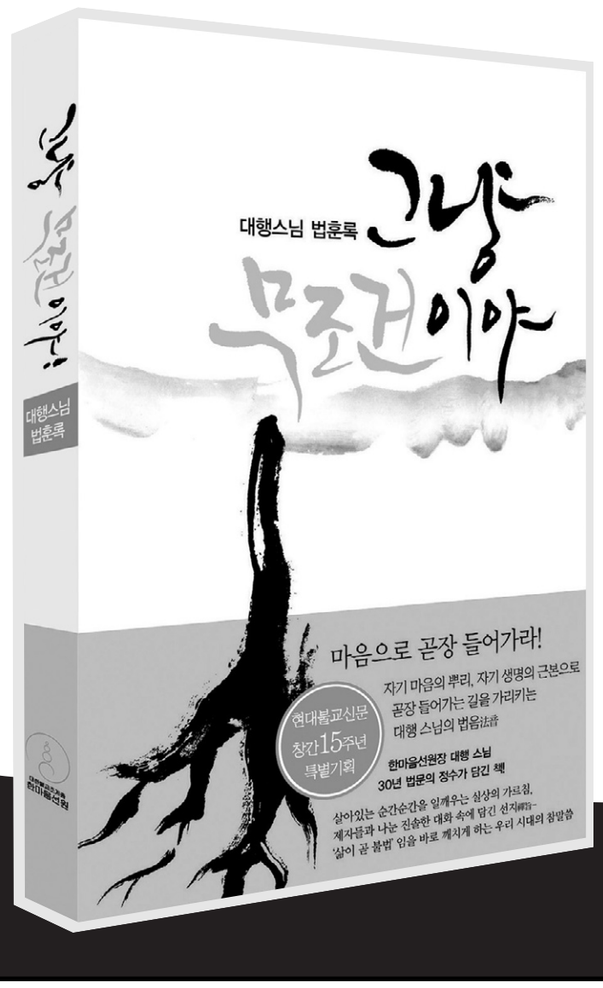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알아야지 죽은 뒤에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살아서는 부딪치니까 부딪치는 아픔을 알고, 슬기로운 지혜를 알고, 모든 걸 그렇게 알아서 하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살리고 물리가 터지도록 할 수 있는 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내 마음이 '아, 이젠 가도 넉넉하겠구나! 이젠 내 몸이 옷을 벗어도 괜찮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으면 뭐를 할까?' 하는 생각이 없어도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차원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벗고 가려면 벗고 가고, 조금 더 있으려면 더 있고, 그렇게 돼야 그래도 사람의 삶이 그저 허탕하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허망하고 허탕하고 이런 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정신차려야 할 것은, 이런 공부를 아니하고 기복으로만 아무리 몸을 닦아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닦아라' 이러는데 '닦는 게 아니라, 쓴물 단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도 없다. 없는데서 그냥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딛고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딛고 가는 것도 공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부처자 제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부처를 알면, 제불이라는 것은 모두를 한데 합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을 모두 하고 가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뒤에서 철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방망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또 인연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치러 들어와도 모르고요. 길을 가고 오다가 무명 영가들이 들이덤벼도 알 수 있나? 인간 하나가 사는 데에 그렇게…, 우연히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그 업이 자기한테 찰나찰나 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그 안에서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라고 그런 겁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일거수일투족 오로지 주인공 줄을 잡고 가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깨치실 때도 별성을 보고 깨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참나의 그 근본 불성은 바로 별성이다. 그 별성은 '자신(自神)'이지만 나로서 지금 있는 것은 나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돕는다,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천도를 했는데 왜 또 하래냐.'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길에 오가다가도 천도가 금방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인과성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유전성, 또 세균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매여 있어서 한 고비 한 고비 이렇게 풀려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야 할 거를 다 묵살하고, 자손들이 한 번 하고 나서도 '아주 천도가 제대로 됐다.' 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되는 거죠. 삼천 년을 업을 지었다면 삼천 년을 지금 현재 참나로, 이쪽도 참나, 저쪽도 참나가 돼서 하나로 묶어지면서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생각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봐야죠.

내가 요즘 답답한 것은요. 이 부처님 법을 가르친다고 온통,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뭐니 쭉 가르치는데 그게 외려 자기를 속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거기에 매달리고 속박이 돼서 자기가 그냥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이 돼요. 이거는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서 깨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우물에 빠졌다면 자기가 나와야 되지, 누가 건져 주고 거들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물과 같다. 자성의 근본 자리의 구멍이 우물과 같다. 본래 우물 안에 빠져 있으니 우물 안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다.' 이 소리나 같죠.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그래서 오신통도 성사가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보는 것도 '심안으로 봐라' 이러는 거는 '물질계의 네가 봤다고 하지 마라. 그 눈 속에 바로 진짜 너가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심안으로 봐라.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들어라. 가고 오는 것도 심안으로 가고 온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제각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한 줄 알고,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고, 만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다는 걸 아는 차원이 돼야 종을 치지 않아도 건질 수 있고, 강에서 사는 고기들도 건질 수 있는 거죠. 그 무명을 벗겨 주는 것이 건지는 겁니다. 어떠한 미생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부처님 모습과 둘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그대로 죽은 조상들도 무명 영가들도 다 건질 수 있는 도리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에 단계가 있죠. 왜 가만히 있으면 불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왜 생각을 했으면 법신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왜 화신, 즉 보현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삼 단계가 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더러운 것도 거기서 나오고 깨끗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응, 내 참나의 줄이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도, 의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면 벌써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고는 마음이 전부 흐트러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뭘 그러냐!' 이렇게 아주 탁 풀어져 버리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 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도 확 풀어지죠. 작용해 주는 생명체들도 다 혼돈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벌컥벌컥 벌컥벌컥 변하죠.

> 인간 하나 사는 데에는 우연히가 없고
>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 그 업이 찰나찰나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 그 것을 모두 자성의 근본자리에서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 거기다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딴 데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요 백지장 하나 사이를 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깨쳐야지. 깨치질 못했으니까 중생이지.' 이러고 '내가 깨쳐야 될 텐데 깨치질 못한다.' 이런 생각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여러분께서 불성도 가지고 있으며, 즉 불성이 자부처니까 자부처가 자기한테 있으며, 또 중생이라는 그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하고 정신하고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진리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등 동물로서 본래 갖추어 가지고 나와 있다. 갖추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갖추어진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또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가. 깨치지 못했다. 중생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차원이 벌써 저 언덕을 넘어서지 못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 이걸 떠나서' 라는 얘기는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거기 놓고 슬기롭게 웃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대로 진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진리를 좀 보시라고 해도 그게 반절만 들어가지 하나가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알면 그대로 도승이에요. 허허허…. 아니, 그대로 부처란 얘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붙잡고 자기가 정말 자기 샛별을 봐서 둘 아닌 거를 알게 되느냐. 그럼 세세생생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줄을 잡고 이 도리에…, 내가 지금 백지장 하나 사이라고 말하는 차원의 근기를 한번 편안하게 놓고 보세요. 그대로 구정물이 들어오는 것도 거기, 새 물이 들어오는 것도 거기, 파도가 이는 것도 거기, 바람이 자서 물이 잔잔한 것도 거기, 죽는 것도 거기, 사는 것도 거기, 밥 먹는 것도 거기, 똥 누는 것도 거기, 잠자는 것도 거기. 매사가 그러하니 별나게 '내가 잤다' 하지 않죠? 만날 자는 거니까. '내가 봤다' 할 수가 없죠?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도 만날 만나기 때문에 '만났다' 할 수가 없죠?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죠. 내가 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갔다, 가고 온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생각들을 하고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여하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내려가다가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아이구, 이거 얼마만이야?" 하고 그냥 만나서 반가워하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둘이 아니니까 만나야겠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그대로 팔만대장경을 엮어서 여러분한테 설법을 해 주시고, 역대 조사들이 설법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중생이고 팔자 운명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건만도 그 말씀하는 뜻을 넘어설 줄 몰라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었더니 가섭이 웃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웃는 것이 꽃이냐?' 이런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꽃도, 사람의 얼굴도, 웃는 것도 마음을 둘 아니게 내면 다 꽃이죠. 그러니 둘이 아니게 이 도리를 배워야 되는 거지, 배워야 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지만요. 내가 그랬죠.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형성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러면서 반복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다 자기 몸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생명 아닌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올라온 거를 안다면…,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 이렇게 그 뜻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억 나유타라고 하지마는 광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 수억 나유타 광년을 거쳐온 자체를 찰나찰나로 했으니까요.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생물이었다가 짐승도 되고 자꾸자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부처 될 자격이 99%가 된다. 자기한테 자부처가 있다. 자부처를 알아야 일체제불의 마음과 한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깨쳐서 아는 거하고, 깨치지 못했더라도 그 자리를 아주 철저하게 쥐고 가는 사람은 진리가 돌아가는 것이 공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공했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별다른 게 아니니까요. 세번째는 그것도 못 쥐고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한다면 위로는 조상들과 아래로는 자녀들이 그만큼 한 도량에, 한마음 속에 들어서 모두가 출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래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근기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마라. 남들을 그렇게, 누구를 막론해 놓고 섭섭하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 모든 거를. 부부지간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관하라.' 이렇게 한 번만 잘 관해도 사람이 백 년을 살면서 기복으로 하는 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산에서, 그 얘긴 다 못 하겠지만, 추운 겨울에 산소 옆에서 옷을 빨아 입고 나니까 그대로 얼어 버리는데, 건너다 보니까 아, 불이 반짝거리는 옴막집들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축지법을 하면 아주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축지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걸 안다 하더라도. 내 몸을 감춘다, 이런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부처님의 정법의 도리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지. 남을 현혹시키고 남을 붕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뚝 떨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과정은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한데 떨어뜨리지 않아야 법이 되느니라.' 하신 거죠.

그래서 '저기 건너가면 이렇게 떨리고 춥지는 않지.' 했는데, 번득 '로케트가 올라가는 이 시대에 무슨 칼, 창 이런 걸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저기 건너가는데 축지법이 더 빠르냐, 체가 없는 너가 그냥 가는 게 빠르냐?' 는 거야. 그건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지. 이 허공에도 가설이 된 전깃줄이 있듯이 보이지 않게 줄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랬다면 또 대단한 사람으로 들을 것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고 싶군요. 하지만 그거 하나는 말하죠.

그래서 그 집을 그냥 갔습니다. 허허허…. 거길 들어서자마자 말입니다, 온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 안이 추우면 전기난로를 켜죠? 그와 같은…. 그래서 그 얼음물에다 빨아서 입은 것을 다 말려 가지고 떠났어요. 이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에요. 아주 좋은, 아니, 말로는 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을 찾으면 바로 그렇게…, 정말 잘한다고 궁둥이 두들겨가면서 갈 거다. '너 손 좀 빌려라.' 그러곤 궁둥이 두들겨서 데리고 다닐 거예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1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제언합니다

마음 치유 등 불교 사회적기업 모델 찾아라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 대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으로 그 이익을 공익적인 가치에 회향하는데, 한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은 일반적으로 △일자리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등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많은데 비해 한국에서는 일자리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가톨릭계 사회적 기업인 '카리타스'와 기독교계 '디아코니'는 주목할 만 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사회공헌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불자 생산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이익을 불교계 사업에 회향하도록 한다.

범불교적인 사회적기업의 지향으로, 친환경, 친자연 제품의 착한소비운동을 통하여 영세한 불교계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하여, 소비자들에게는 불심이 담긴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교계의 공익사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장점은 종단과 사찰 및 신도회의 지원과 참여로, 차별화된 불자 생산자를 보유하여 불심(佛心)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교계의 소비시장을 구현하고, 불자 생산자를 육성하며, 업종별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불자들의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불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생산자의 영세성,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서 투자유치가 어려우며,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사찰과 불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자본이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원 또는 파트너쉽을 통해 사회성과 기업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교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찰과 연계된 친환경사업 모델, 선과 명상의 마음치유모델, 사찰음식(식품)모델, 문화관광모델, 사회복지공헌모델, 고령화사회 일자리창출모델 등과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공헌 및 정신복지를 증진하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불교계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불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창업상담과 인증지도, 모니터링과 판로개척 등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컨설팅하고, 사업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조언해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불교계는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자원과 조직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인 신도회 조직과 주된 소비자층인 여성 불자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방대한 전통문화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과 복지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사)날마다 좋은날의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사업단이 주축이 된 불교계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불교계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역할은 회원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정보교환과 홍보와 판매 지원사업,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유누스센터와 같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세워서 이벤트, 사회적 미디어, 간행물,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운동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도 불교계 사회적기업협의회가 할 일이다.

그라민크리에이티브랩(GCL)과 같이 사회적기업과 의사소통하고, 자체의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며,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사 분석의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의 설립도 숙제다.

또한 2012년 말에 발효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결합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불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창출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으며, 종교기관에서 사회적기업 금융지원기관을 설립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등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서 불교계는 사회공헌 및 정신복지의 증진에도 힘을 기울여서 자립의 복지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 기고는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 대표가 〈선문화연구 13집〉에 기재한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실천 모형에 관한 연구'를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불교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이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인 만큼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잘 계도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불교계가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확산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고민 많은 사춘기 학생 개개인의 관심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 성취목표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사업으로 자기개발과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성취포상제 중앙운영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 의하면 2012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한 사찰은 42개다. 7개 사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참가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있어 하나의 스펙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서 출발 했지만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대부분 즐거워했다.

우리 불교계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소재들이 많다. 우선 명상과 마음공부가 있다. 다도와 선무도, 탱화그리기, 영어법회, 각종 봉사활동 등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잘 개발한다면 국제청소년포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은 물론 우리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이끌 수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그동안 사찰 등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영어법회 등을 자기개발활동에 포함시켜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 장점이 있기에 참여 사찰을 늘려나간다면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한 몫을 단단히 할 수 있다.

故 지관 스님 1주기를 추모하며

세수 80세, 법납 66세로 입적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1주기 추모 행사가 봉행됐다. 20일에는 주석처였던 경국사에서 문도회의 1주기 추모 다례재가 있었으며, 19일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추모관에서 연구위원과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재가 열렸다.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될 때까지 초하루·보름 추모재는 계속된다. 모두 번잡하지 않게 차분하게 스님을 추모하는 모습들이었다.

故 지관 스님은 불학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자 종교지도자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견인해 온 선지식이었다. 1960년 서른세 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에 해인사 강주를 맡으며 이후 10여년간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수많은 전승 교학의 주석서를 찬술하기도 했다.

스님은 1986년 제11대 동국대 총장과 2005년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돼는 등 학사·종무행정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수많은 종교편향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범불교도 대회를 이끌며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문도회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추모사업은 불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올해 안 해인사에 비문과 부도가 들어선다. 비문은 고은 시인이 작성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한글본 40권, 영역본 15권의 〈가산지관대종사전집〉을 비롯해 지관 스님 관련 아카이브 구축, 추모공원 조성, 1주기 추모문집 〈큰스님 뵙고싶습니다〉 등의 선양사업을 이어간다. 무엇보다 스님의 필생의 역작인 〈가산불교대사림〉완간을 위해 문도와 연구원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관 스님의 선양사업은 단순히 문도회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부대중이 나서야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 스님의 덕화를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성원이 모아지길 바란다.

발언대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으로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부서의 업무와 특성에 맞지 않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창조과학'이 연상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불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민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불편하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창조경제론'을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국가성장동력을 발굴·지원하는 종합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기초과학 육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명칭이다. 미래창조와 과학이 만났다고 하지만, 미래와 창조과학이 만났다고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줄여 부르는 경향 상 '창조과학부'로 불린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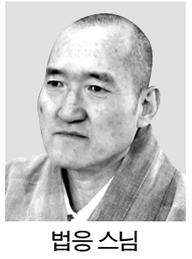
'창조과학'은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상의 내용 즉, 소위 창조론에 대한 것이다.

인수위원회 위원 중 창조과학회 회원인 KAIST교수가 활동하고 있었고, KAIST에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창조과학관이 설치된 바 있다.

영문 명칭 또한 '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로 논의되고 있는바, 'Creative Science'는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의 영문표기와 흡사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를 폐기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는 국민과 소통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제고해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박근혜 당선인 정부부서의 개편을 시도하면서 '핵심 4대 컨트롤 타워' 중 하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창조경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사용 한다면,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의 근본신앙에 기초해서 전 분야의 과학을 수용하는 그들만의 견해인 소위 '창조과학'을 직간접으로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부작용의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사용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순수학문으로서 과학의 호도 △국민에게 특정 종교의 직, 간접홍보 △국민 간, 종교인 간 대립의 조장 △정부부서 명칭의 객관성 결여 △우주, 철학, 생물학, 역사학 분야 학문의 훼손 △창조과학계 인사들의 우월감 조장 및 활동 강화의 가능 △국제적 망신의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부서의 명칭을 한번정하면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정부부서의 명칭은 단순하고 짧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부서의 명칭을 장문으로 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무능성이 내재돼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 간 화해와 상생을 통한 대 통합을 이루려 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의 사용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풍수, 절반의 증거
'도대체, 풍수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증거證據'임을 강조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의 주장은 과연 온통 미신잡술일 뿐인가? 그렇다면 그 오랜 역사는 결국 미신에 집착한 역사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풍수가 있는가 없는가?' 10년간을 이거 하나에 몰두한 결과물이란다. 저자는 그 결론을 다음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첫째, 풍수 있긴 있다. 둘째, 풍수의 핵심은 (氣가 아니고) 靈(혼령 지령)이다. 셋째, 풍수는 과학이 아니다.
한편 저자는 이른바 '명당 발복 사상'은 적극 경계한다. 오히려 부정적이다.
현직 공무원인 저자는 앞으로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풍수 바로세우기'와 '풍수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유영재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44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aid & Omega3 Cream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치주질환 예방
▶ 충치예방
▶ 치태제거
▶ 구취 제거
▶ 시린 이 개선
▶ 미백효과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 핵심 가르침 정리

새로운 해석으로 돌풍을 일으킨 금강경 해설서 15년만에 재탄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생활을 통해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강의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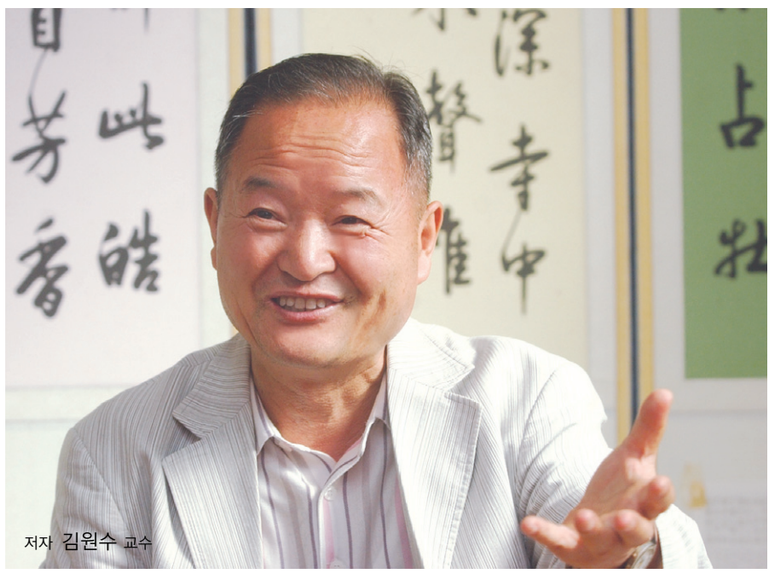
저자인 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재료공학부)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전해주신 스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으며, 자택마저 무료급식원으로 내 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실천하였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불교복지식당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금강경 구절이 도저히 해설되지 않을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이런 경우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되풀이 하는 기도,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동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얻어지며 난제가 종종 해결하는 기도를 통해, 금강경에 나타나는 핵심 진리 4가지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①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②공(空)의 가르침(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요 착각임을 알자) ③불이(不二)의 가르침(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④구족(具足)의 가르침(내가 없으면 부처님과 같은 구족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이다.

이 가르침들이 금강경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 네 진리에 입각하여 금강경을 해석하려 할 때에만 비로소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 될 뿐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석, 알기 쉬운 해석, 실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살게 하는 해석이 됨을 알게 된 것이었다.

금강경을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금강경을 오직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지 현실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던 분들. 불법(佛法)은 부자(富者)가 되고 유능해지는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책에 소개된 대로 금강경을 실천해 보면 공(空)과 불이(不二) 그리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깨쳐서 ①무소유 불자(佛子)가 아닌 큰 부자(富者) 불자. ②세상을 외면하고 조용히 사는 불자보다는 유능하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는 불자. ③역경과 재앙을 피해 사는 불자보다는 역경을 감사하게 알고 재앙을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 받들고 무량대복(無量大福)을 누리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승보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저자 김원수 교수

이 책의 4대 특징

(1)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경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만동 서원행 보살

절에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복으로 믿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원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고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경주 함월산 기림사 법희 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년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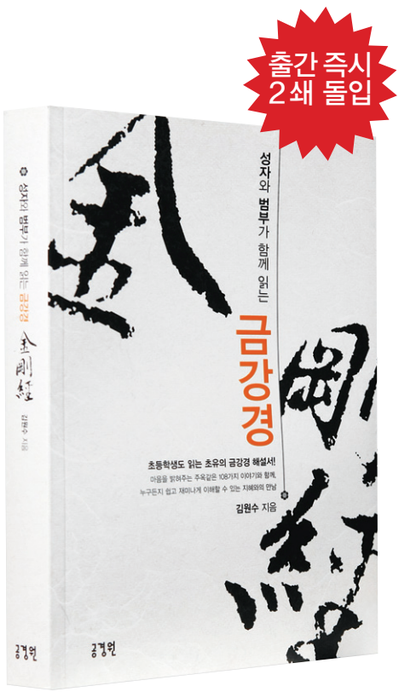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록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피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홀연히 사라짐과 동시에, 원인모를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 저자 김원수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학군장교(ROTC) 3기로 전역 후 백성욱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4년간 출가수행. 지난 2010년에는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우고 자택마저 무료급식원으로 내놓아 무주상보시행을 9년째 실천한 공덕으로, 사회복지대상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복지재단 이사장, 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원 원장, 바른법연구원과 본각선교원에서 '생활 속의 금강경'을 강의 중.

도서출판 공경원
TEL 070-7720-6832 FAX 02)303-5811
www.facebook.com/diamondkhj
http://cafe.daum.net/diamondsutra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 공경원 펴냄 | 430쪽 | 19,000원

자연과 하나 되는 삶, 그 감동을 지향하는 민속죽염

"차별화된 생산 공정과 그 속에 녹아있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죽염을 만드는데 최선"


민속죽염 최태규 대표

"민속죽염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태백산맥의 낙동정맥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을 공급받는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죽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속죽염은 1988년 정식 설립 된 이래 죽염 업계의 선발주자로써 죽염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한결같은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국민건강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30여 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왔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는 슬로건 아래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염을 생산해 이러한 연구결과로 업계최초로 자색죽염을 생산하게 되었다.

민속죽염 설립은 건강이라는 화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태규 대표는 "선천적 요인으로 병약한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당뇨, 위장병, 축농증, 신경쇠약, 무기력, 권태감으로 늘 고통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생에 대한 깊은 회의, 나아가 고통 없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지향하며 골똘히 사색한 결과, 육신의 완벽한 건강 없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세 무렵부터 전국의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의식을 고양 확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죽염과 만나 건강을 회복시켜 그 때의 고마움으로 죽염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죽염의 효능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저와 같이 허약한 몸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죽염의 효능을 직접 전달하고자 열심히 생산하여 알음알이로 보급하다가 1988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립과정 애환을 설명해 주었다.

이처럼 민속죽염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까다로운 원료의 선택, 정확하고 세밀한 제조공정에서 투명한 유통에 이르기까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죽염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오염된 공기와 탁한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에 눈 뜨기 전에 진실성을 바탕으로 죽염의 대중화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건강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죽염업계에 귀감이 될 것이다.

민속죽염 상품 안내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문의 : 016-823-0483 www.msjy.co.kr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